주요 언론보도

〔2017.2.13(월) 언론협력담당관〕

□ TV 방송

○ K B S

- 대형건물에 도사린 화마 (취재파일K)
- 구제역 확산, 방역체계 문제없나?(일요진단)
- [뉴스해설] 변종 발생, 방역 공백 위기(뉴스광장)
- 경기도 10개 시·군 오후 4시 건조주의보(뉴스9경인,뉴스7경인)
- 보은서 4번째 구제역 확진…'최고 단계' 경보(뉴스12)
- 보은 두 번째 의심 농가 'O형 구제역' 확진 판정(930뉴스)
- 안성, 2016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 대상(뉴스7경인)
- 경기재난본부 13일부터 초고층 건물 긴급 합동점검(뉴스광장경인)
- 경기북부 소 13만 마리 'O A'형 백신 긴급 접종(930뉴스경인,뉴스광장경인)
- 구제역 최고 위기 단계 격상 …전국 가축시장 폐쇄(뉴스광장)

○ M B C

- 항체 있어도 구제역 감염, 백신 믿을 수 있나?(뉴스데스크)
- '항체 형성률' 높아도 구제역 발병, 백신 효과 의문(이브닝뉴스)

○ O B S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발인 마쳐(뉴스M)
- 경기도, '억대 농부' 5천 가구 육성 추진(뉴스M,경인투데이)
- 최악 AI에 보상·방역비도 '최다'...경기도 1천300억원(뉴스M,경인투데이)
- "119 호출 꽈병 환자, 구급차 못 탄다"…과태료 200만 원(뉴스라인,뉴스M,뉴스&이슈)
- '취준생·사회인까지'…경기도에 일자리 있다(뉴스M)
- [네트워크 경인] 경기도, 해양레저 인력 양성‥60% 취·창업 성공(뉴스&이슈)
- 만성질환자 1대 1 관리, 중복 의료비 '절감'(경인투데이)
- 평택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갈등' 주민감사 청구(경인투데이,뉴스945)
- A형·O형 구제역 동시발생…위기경보 '심각'(뉴스745)
- AI에 구제역 '공포'까지…안성시 '초비상'(뉴스745)

○ **M B N**

- [경기] '아이들 안전 지켜요'…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네트워크)
- 구제역 7년 만에 '심각' 단계…황 권한대행은 엉뚱 지시(굿모닝MBN)
- 공주 우시장 가보니…찬바람만 가득(뉴스8)

○ **TV조선**

- 구제역 최고 단계 '심각'…전국 가축시장 폐쇄(뉴스7)

○ **J T B C**

- 연천 A형 구제역 베트남선 돼지서 발병…농가 초비상(뉴스룸)

○ **Y T N**

- 연천 농가 항체율 90% "백신 맹신 안 돼"(YTN24)
- "백신이 구제역 완벽하게 못 막아"(네트워크)
- 경기도 파주·연천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네트워크)
- 일선 시·군 인력난에 도 전입시험 논란(네트워크)
- 허위로 119구급차 부르면 벌금 2백만 원 '강력 시행'(뉴스출발)

○ **연합뉴스 TV**

- 13일 연천 A형 구제역 유전자검사 결과 발표
- AI에 구제역' 지쳐가는 농촌공무원들…살처분 트라우마도
- [라이브 이슈] 구제역·AI 첫 동시 '심각'…구멍난 방역망

□ 라디오 방송

○ **C B S**

- 남경필 "백신 접종 일주일 내 완료가 중요"
- 경기도내 소 29% 구제역 백신 접종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화 사업 지원
- 경기재난본부, 초고층건물 긴급 합동점검

○ **불교방송**

- AI 방역, 살처분 비용 사상 최대

○ **경기방송**

- 최악 AI에 보상·방역비도 '최다'...경기도만 1천300억
- 경기도, '억대 농부' 5천 가구 육성 추진
- 못믿을 백신...항체율 100%농장 소도 구제역 의심증상

-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률 '90%'..."백신 맹신 안 돼"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 모집
- 강득구 연정부지사, 평택 구제역 방역현장 방문
- 경기지역 정월대보름 행사 대부분 취소 '초강수'
- 경기도 전용 서체 test 베타 버전 최초 공개
- 연천 구제역 농가 항체률 '90%'...백신 접종도 못믿어

○ **경인방송**

- 경기도, 낚시어선.유어장 안전대진단 실시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올해 첫 회의...연정과제 등 논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발전 도민토론회...13일 경기인재원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21일까지 수행기관 공모
-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가구당 최대 60만원 지원
- 경기도, 'A+O형' 작용 구제역 혼합백신 긴급접종
-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첫 자문위원회 개최
- 연천 A형 구제역 항체률 90%에도 뚫려...군 투입도 저울질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화 사업 지원...17일까지 협의체 공모
- 경기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 수상
-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영업 재개' 무기 연기...상인들 '한숨'

□ 중 앙 지

○ **조선일보**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6월 착공
-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16연패
- 구제역 공포 확산... 수입 쇠고기 소비 늘고, 국내산은 찬밥

○ **중앙일보**

- 보은 또 구제역 증세, 첫 발생지 2.4㎞서 신고
- [분수대]소의 눈물

○ **국민일보**

- '항체형성률 88%' 농가서 5번째 구제역
-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

○ **한겨레신문**

- 구제역 A형’ 무방비…돼지 1천만마리가 불안하다
- [유레카] 누명 쓴 표본조사

○ **경향신문**
- 구제역 엎친 데 ’항체 미달 과태료’ 덮쳐… 축산농의 눈물
- 동계체전 절대강자’ 경기도 16년째 종합 우승

○ **한국일보**
- 구제역 백신 급한데... 英 제약사 본사엔 연락도 안 한 농식품부
- 구제역 O형만 대비한 백신정책... 골든타임 허비

○ **세계일보**
- O+A형 백신 수입’ 계약도 못한 당국

○ **서울신문**
- 보은서만 네 번째 구제역 확진… 전국 여섯 번째
- [사설] 황 대행, 구제역 차단 선봉에 서라
- 핫바지 이번엔 ‘HOT바지’ 입자… 충청 안희정 측근 ‘어공’ 줄사퇴

□ 경 제 지

○ **매일경제**
- 보은서 잇단 발생 … 뺑뚫린 구제역

○ **서울경제**
- 구제역株 동반강세
- 보은서 6번째 구제역 의심…정부, 160만마리분 백신 긴급수입

○ **한국경제**
- 구제역, 여름보단 가을·겨울에 기승 사람도 감염 가능성 있지만 ‘희박’
- “돼지마저 구제역 걸리면 자영업자는 끝장”

○ **머니투데이**
- 전국 5번째 구제역 확진… 방역당국 ’패닉’

○ **파이낸셜뉴스**
- 충북 보은서 5번째 구제역 확진
- K-뷰티 엑스포’ 中·태국·베트남·한국 등서 개최

○ **아주경제**

-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 경기도, 임대보증금 지원
- A형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 全無… 발병 땐 '속수무책'

□ 지 방 지

○ 경인일보

- 경기도 방역, 1조원 삼킨 '밑빠진 독'
- 화성시·안산시 "군공항 거부" 국방부 이전강행에 공개대응
- 11세 이하 50만이상 줄어 어린이집 숫자도 '내리막'
- 2기 연정실행위 첫 의제는 '청년구직 지원금 확대'
- 백신 못맞은 돼지 수백만마리 'A형 구제역 무방비'
- 경기도의회 "道 산하기관 먼저 비정규직 해소" 압박
- "대한민국 안위 위협 용납 못한다"
- 파주와 연천, 관광으로 잇는다
- 구제역 직후 대량 도축, 불안한 소비자
- 올해도 휘몰아친 다관왕·신기록... 경기도 '16연패' 강타
- "종목 평준화… 비인기종목 창단 준비"
- 경기 '1등 같은 2등' 인천 '금쪽같은 5등'
- "400년 역사 해동화 놀이 지켜내야"
- 섬유 중기+디자이너 '윈윈' 콜라보
- 킨텍스,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사전설명회
- 경기산학융합본부 인턴십 고교생에 아두이노등 교육

○ 경기일보

- 반쪽짜리 '더하기 프로젝트' 1년만에 중단
- 성난 중국... '공무원 교류연수' 보이콧?
- 中企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道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道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암초
- 소비위축에 구제역까지… 엎친데 덮친 농가 깊은 한숨
- 못 믿을 구제역 백신
- 관심 끊긴 도내 공부방… 학생 발길도 '뚝'
- 수도권 인구比 어린이 교육시설수 경기지역 '최고'… 도서관은 '최저'
- 사회 어둠 밝히는 '착한투자' 통했다
- 경기관광公.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맞손

- 열린 사고로 다양성 중시… 국태민안 꿈꾼 실용학파의 뿌리
- 경기도의료원, 감염병 통합대응체계 구축
- 뜨거운 겨울’ 경기도, 16연패 신화를 쓰다
- “평창 빛낼 글로벌 스타 육성에 주력”
- 道,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아쉬운 2위

○ 중부일보

- 백신접종 여부, 소 잃고도 몰랐다
- 道공제회, 흡수통합 찬반 내홍
- 항체 형성률 높아도 구제역 발병
- 임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 활성화 노력
- 판교TV 입주 청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 2기연정실행위 내일 첫 회의 청년구직지원금 등 계획 논의
- 김영란법.AI.구제역 ’악재 쓰나미’... 외식.유통.화훼업계 ’비명’
- 道, AI에 1천300억 투입
- 도의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하려다 쓴소리만...
- 道, 2020년까지 ’억대 농부’ 5천가구 육성
- "수원.대구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공동발표로 혼란 줄여야"
- 한반도 벼농사 기원... 천주교 발생지 문명의 전환기때마다 빛난 경기역사
- 16년째 ’경기도 천하’... 준우승 서울은 하얗게 질렸다
- "이젠 올림픽 무대 휩쓸 선수 찾아야죠"
- 道 효자종목 ’빙상.알파인 스키’ 종목 1위 위엄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사고 8일만에 장례절차 완료
- 기본’ 잊은 사회... 불티를 화마로 키운다
- 아이가 줄었어요
- 재선충병 채취시료 2주간 방치... 확진 후 긴급방제 소동

○ 경기신문

- A형백신 접종·확보량 전무 돼지 농가는 구제역 무방비
- 도, 전국동계체전 16연패
- 1300억 퍼붓고도... 도 가축질병 지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내달까지 낚시어선 안전진단 유어장 27곳도 점검 대상...
- ‘억대 농부’ 경기도가 키운다
- 도, 뷰티산업 수행기관 공모 생산시설 표준화 등 3개 분야...

- 태양광으로 전기요금 '뚝' 도, 베란다형 발전소 지원
- 道 연정실행위 내일 첫 회의 촉각
- 경기복지재단 '지역별 복지 균형발전' 모색
- 道,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에 최대 2천만원 보증금 지원
- 관광공사-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맞손
- 道,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 모집
- 대목인데도 사라진 꽃다발... 시들어가는 화훼업계
- 소 사료작물 봄 파종 기술지도 도농기원, 내달 20일까지 실시
- 김포도시公, 청산보다 존속으로 가닥 잡히나
- 구제역 유입 방지 온 힘
- 경기도, 1251점 종합우승... 겨울스포츠 절대 지배자
- "道, 동계종목서 국제선수 배출하도록 노력"
- 道, 금메달 20개 따냈지만... 아쉬운 종합 2위
- AI 이어 구제역까지 설상가상... 방역 공무원들 넉다운

○ **기호일보**

- 쓰러져가는 닭·소에 道 재정도 휘청
- 평화누리길 연계 어촌관광 최적지 김포 대명포구, 제2의 소래포구로
-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모두 "우리 지역은 안돼"
-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 주거비용 마련 걱정 던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작정 덜 뽑는다고 해결되나
- 경기도,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 우리 회사도 CF 만들어볼까
- 도내 지자체 균형적 복지발전 모색
- 남 지사 "북한 도발 고립 자초"
- 청년수당' 1200명으로 확대 논의할 듯
- 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너나없다'
- 안철수 "AI 등 가축 전염병 대비 '백신은행' 설립해야"
- 농가소득 5000만 원 실현을 농협 경기본부 농정간담회
- 도, 스타트업 육성 K-챔프 랩 정보 공유 등 '데모데이' 성료
- [사설]구제역 원점에서 근본적인 처방 마련해야
- 경기도 빙상 신기록 9개… MVP는 김민석
- 동계올림픽 주역 발굴 계기 마련

- 장애인동계체전 경기선수단 준우승
- 소·돼지고기도 밥상 올리기 무서워요… 썰렁한 축산물 코너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망자 넷 발인 마쳐

○ **인천일보**

- 최악의 AI … 보상·방역비도 사상 최대
- 道 '16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
- 도청사 주차난 해결? … '글쎄'
- "최적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 이재율 부지사 스마트 제조라인 시설 방문
- 2기 경기연정 추진방향 논의
- 2020년까지 '억대 농부' 5000가구 육성
- "관광객 동선 고려 주변 시군 협력 트렌드"
- 경기 금 86·은 72·동 86 … 16연패 인천 금 5·은 6·동 3 … 8위로 껑충
- "전력 극대화 만전 … 17연패 도전"
- 봄 파종 기술지도'로 동계사료작물 추가 생산
- 낚시어선·유어장 내달말까지 안전 점검
- 동탄 화재 사망자 발인 절차 마무리

□ 통 신 사

○ **연합뉴스**

- 경기도, 동계체전 16년 연속 우승...MVP는 빙상 김민석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모두 발인 마쳐
- 남경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 규탄한다"(종합)
- 경기도, '억대 농부' 5천 가구 육성 추진
- 경기도 2기연정위 14일 첫회의...청년구직지원금 논의
- 최악 AI에 보상·방역비도 '최다'...경기도만 1천300억
- 친환경축산·시민참여·총력방역'...구제역 이렇게 막는다
- 한국 가축전염병 '쇼크'...방역시스템 사실상 '붕괴'
- 구제역과 전쟁'...우량젖소 종자보급소 '살얼음판'
- 못믿을 백신접종...항체율 100%농장 소도 구제역 의심증상
- 휴일에도 분주한 구제역·AI 상황실
- 경기도, 김포 대명포구 '명품 관광포구'로 개발

- 제14회 장애인 동계체전 폐막...서울 종합우승
-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률 '90%'..."백신 맹신 안 돼"(종합)
- 남경필,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와 협력 방안 논의
- 경기도 10개 시·군 오후 4시 건조주의보
- 남경필, 주한 獨대사와 만나 '대연정' 불지피기
- 북한서 왔나...연천 'A형' 구제역 감염 경로 오리무중
- AI에 구제역까지 엎친데 덮친격...방역 공무원 '파김치'
- 접종·소독 잘못했다고 깎고...AI·구제역 보상에 '불만'
- 연천 구제역 발생농가 항체률 '90%'..."백신 맹신 안 돼"
- 알기 쉬운 '김영란법', 경기도인재개발원이 MBC에 무상 제공
- 남경필 지사 "백신 접종 일주일 내 완료가 중요"
- 닭·소 이어 돼지까지?...돼지구제역 전파력 소의 최고 3천배
- 남경필, 구제역 예방접종 현장 점검
- 충북 보은 2번째 의심사례도 'O형' 구제역 확진(종합)
- 뺏으려는 경기도·지키려는 시·군'...공무원 전입시험논란
- 파주시, 소나무재선충 시료 채취하고도 '뒷북' 의뢰

○ 뉴시스

- 제98회 전국동계체전 경기도 1위...MVP 4관왕 김민석
- 구제역 확산 예의주시하는 도청 상황실 관계자들
- 여야 대선주자, 북 미사일 발사 일제 비판...'야, 북풍 경계도'
-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연천군과 관광활성화 3자 협약
- [종합]남경필 지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비난
- 남경필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히 규탄"
- 전국 구제역 5번째 '확진'...충북보은 발생농가서 460m 떨어져
- 남경필 지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비난
-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협약' 삐걱...산하기관 불만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시책 수행기관 공모
-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 14일 올해 첫 연정실행위 개최...청년구직 지원금 등 논의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 임대보증금 지원
- 경기도, 13일부터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실시
-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

- 경기도의회서 13일 '공항버스 요금 인하 타당한가' 토론회
- 전북선수단 동계체전 종합4위...'메달 사냥' 순항
- 서울,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
-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정기총회
- 젖소 사육 농가 찾은 남경필 "일주일 안에 백신 접종이 중요"
- 연천 구제역 발병농가 A형 항체율 90%..."감염 초기 높게 나올 수도"
- 정부, 7년만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

○ **뉴스1**

- 제98회 동계체전 폐막... 경기도 종합우승 '16연패'
- 휴일 반납' 비상 근무하는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 남경필 北 미사일 발사에 "정부 위기 관리 만전 기해야"
- 충북 보은 또 구제역 확진 'O형'...전국 5번째(1보)
- 경기도, 13일부터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 경기도, 내달 20일까지 사료작물 파종기술지도
- 경기광주 곤지암에 '팀업캠퍼스' 조성...내달 공사 착공
- 경기도, 5월부터 전국 최초 '푸드바이크' 시범운영
- 경기도 전통시장, 전국대비 매출액 비중 감소세
- 남경필 "대연정이 최고의 혁신"...'연정' 띄우기
- 동탄세교선에 트램까지...광역교통망 호재 '세교신도시 메트로움' 눈길
- 경기도,구제역 백신접종 효과?...'백신부족·항체형성율↓'
- [단신]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 열어
- 소 잃고 백신 접종 여부 파악 나선 경기도 방역당국
- 남경필 지사, "구제역 백신접종 차질없이 진행돼야"
- 충북 구제역 차량 99개 농장 들락날락 확산 '비상'
- 남경필 경기도지사, 구제역 예방접종 현장점검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 참여단체 모집
- 구제역 발생 5일 만에 살처분 소 800마리 넘어

KBS

2017년 02월 12일 (일)
종합

대형건물에 도사린 화마



<드롭로그>

영화 '타워' 즘 거대한 위엄에 휩싸인 초고층 건물.

순식간에 번진 불길에 건물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출구를 찾지 못해 발버둥칩니다.

<녹화> '초급 있으면 더 번질 것 같아.'

이런 재난 상황이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난 4일,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화재.

불이 난 곳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4층 상가동에서 시작된 불이 고층 주거동으로 번졌다면, 자칫 영화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신축 건물들이 더 높아지고, 더 거대해지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대형 복합건물의 소방 안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따라 대규모 미천루가 형성돼 있습니다.

건축물 규정에서는 30층 이상을 고층 건물로 보고 이 중에서도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물로 분류합니다.

현재 국내 초고층 건물 80여 채 가운데 가장 많은 27채가 이곳 부산에 몰려있고,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도 3백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지난 2010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 충격을 줬습니다.

<녹화> 입주민 : "밖에서부터 층간 건물과 건물 사이 층간으로 막 타고 올라갔어요."

건물 꼭대기 38층까지 불이 붙거붙는 데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고층 건물 들어가고, 해운대 고층 화재 이후 건설된 한 초고층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50층 높이의 이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입주자들은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

[대피 경로 알나?]

이 건물에는 면적대기층에서 지상까지 통하는 특수피난계단이 설치돼있습니다.

이 계단과 연결되는 건물 중간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마련돼있습니다.

1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지상으로의 탈출이나 특상 전입이 어려운 경우 화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간 한쪽에 화재를 더 키울 수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 보입니다.

<녹화> 주승호(한국소방기술사회 무회원) : "화재와 관리의 직접적으로 돼 있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거나 그런 것들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피난안전구역으로 유도하는 안내 표시도 부족합니다.

<녹화> 주승호(한국소방기술사회 무회원) : "그 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이다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주변에 거무 기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초고층 재난관리 특별법에 따라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이런 피난안전구역을 30층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30층 이상 49층 이하 주초고층의 경우는 지상까지 연결되는 직통 피난계단이 있으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예외 규정 때문에 전국 고층 건물의 97%나 되는 2천5백여 채 대부분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안형준(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 "오세 나오는 것이 48층, 49층짜리 건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고층의 체한을 안 받으려고. 48층이나 49층이나 50층 건물하고 특같은데도..."

[지세 전화 알아나?]

초고층 건물은 끊은 타임 확보가 관건인 만큼 초기 자세 전화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 곳곳에도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경보기가 질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이 소방당국과 함께 체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녹화> 박영준(부산 해운대소방서 소방교) : "소방교 안기를 감지해서 서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주는 장비입니다."

화재 경보기도 작동시키봤습니다.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언제든 임의로 꺼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동탄 화재와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모두 오작동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와 화재감지기, 경보기 등을 설치해놓고도 꺼둔 게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녹화> 대피 상황 직원(음성변조) : "1~2분 사이에 연기가 자욱하게 내려와가지고 막 뛰어 나왔다네 뛰쳐가면 냄새가 한산히 아니더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방시설을 꺼두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한 건물 관리업체는 증언합니다.

<녹화> 건물 관리업체(음성변조) : "많은 경우 귀찮다고 해조. 건물주나 건물관리 대행사들이란 쪽에서 시이랜이 울리게 되면 입주자. 예정 방문고객들이 건급하게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이나 직당에서 일생하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건물 관리 업체들이 다 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상가 운영 시간 중에 켜두는 건 사실상 소방 점검이 있을 때뿐입니다.

<녹화> 건물 관리업체(음성변조) : "점검 나올 때는 저희가 켜놔야죠. 건물주한테 그런 경우 다 얘기를 하고 점면이나며 켜놓고 그렇게 해조. 그럼 또 건물주는 (소방점검) 끝났으면 다시 꺼놓으라고 해고."

['굴뚝 효과' 피할 길은?]

고층 건물은 화염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굴뚝 효과'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사람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는 속도보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12배 이상 빠른 분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에서 시민 3만명을 대상으로 대피 실험을 해봤습니다.

118층에서 일부는 16개 층을 걸어내려와 피난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모두 지난층 계단을 통해 지상까지 걸어 내려오게 했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이동자들은 21분 30초만에 건물을 빠져나온 반면, 계단만 이용할 경우, 1시간이 조오별됩니다.

승강기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2년부터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피난 전용 승강기를 적어도 한 대 이상 이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체전이 점검에 나선 건물피랍 추가 전용일 경우 피난용 승강기가 없습니다.

용돔연구가 적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축 건물은 성업용과 주거용이 공존하는 복합형 건물이 늘어나는 추셍니다.

<인터뷰>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다종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 이 공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큽니다. 집체로 밀출경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돼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대형쇼핑몰의 소방안전시설을 살펴봤습니다.

매점 한쪽 입체 미로맵을 공사가 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 작업을 하여 천장의 스프링클러까지 페인트로 당은 지국이 보입니다.

<녹화>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도색이 돼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크링클러의 작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맛했을 수 있게죠..."

이번엔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셔터가 양쪽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일부가 구무러져 있습니다.

<녹화>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잘 맞아 올라가지 않았다면 내려와서 직동을 하신대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안거라든지 화염 같은 것들이 바로인 못한이 안되게 해야 하는데..."

가액이나 비상구를 찾기 어려운 미로 구조인데, 비상구로 가는 통로에는 물건까지 적체돼 있습니다.

<녹화>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평상시에도 즘치한 비상시엔 많은 사람들이동하에 이동에거나 이할 때는 굉장히 즘이셔서 사실 피난해 장애가 될 수 있죠."

또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집니다.

방화벽이 내려올 자리는 물건들이 자지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투명한 구조물은 가운데가 뚫 비어있습니다.

연기 확산을 막아 화재 감지를 빠르게 하는 제연경계벽이 망가진 겁니다.

<녹화>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제연구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서 화재 감지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 방화벽과 제연구획, 스프링클러 복손은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화재, 역시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터미널 화재 사망 모두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천5백여 채로 61단데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용 장비 수준은 아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전화용 굴절 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35층에 불과합니다

소방용 헬기도 충돌 위험이 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녹화> 안형준(무선 해운대소방서 소방관) : "초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초고층용 장비들이 아주 절실한 부분입니다. 확충을 필요가 있죠."

결국 원칙로서는 소방관이 직접 걸어올라가 진화해야 하는 상황.

59층 초고층건물에 불이 난 갈 가정해 소방관이 계단으로 걸어올라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

면적대기층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10분.

실제 화재가 나면 2배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화> 허창일(경기북부소방본부 특수대표단) : "실제 상황일 땐 심적인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눈앞이라든지 아니면 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요."

공기통도 평균사에는 20분 정도 버틸 수 있지만, 호흡이 가빠지면 10분만에 공기가 다 바닥납니다.

전입 활동에 평균 80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부산 해운대 고층 화재 이후 방염 처리와 스크링 클러 설치 대상이 늘어나는 등 소방 관련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형화재는 여전히 줄이지 않고, 그 원인도 이전 시고들과 저 닮아있습니다.

<인터뷰> 주승호(한국소방기술사회 무회원) : "성무리 좋은 소방시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집시, 점지, 관리, 운영해는 사람의 주추이 따라가지 못하면 ..."

건물주나 관리자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안형준(한국초고건축학회 연구원장) : "제2롯데월드는 22층, 40층, 60층, 80층, 102층에 피난층이 있어요. 거기 사용자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하고 있는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한 순간에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화재는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재난방재 시스템도 더 손보아야 하지만,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가 언제 또다시 우리 사회를 덮칠지 모릅니다.

.

14.4 X 97.7 cm

KBS

2017년 02월 12일 (일)
사회

구제역 확산, 방역체계 문제없나?



.

14.4 X 10.1 cm

KBS

2017년 02월 11일 (토)
사회

[뉴스해설] 변종 발생, 방역 공백 위기



[임오진 해설위원]

조류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그것도 다른 유형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전국의 가축시장이 폐쇄됐고, 이동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7년 만에 최고 수준인 '심각'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제 항체 형성률은 정부 발표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방역과 초기대응에 실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엄청난 피해가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에서, 두 번째 의심 신고도 최종 확진이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구제역은 기존 O형과는 다른 A형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 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형에 적합한 백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긴급 수입에 나섰으나 빨라야 1주일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소 2주 정도는 방역 공백기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소보다 항체 형성률이 낮은 돼지로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 돼지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330만 마리가 매몰처리되는 등 무려 3조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화를 키운 것은 또 믿을 수 없는 항체 형성률입니다. 3백만 마리가 넘는 소 가운데 1%도 채 안 되는 표본조사로 형성률이 97.5%라고 발표했지만, 고작 5%에 불과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농가들도 이런 발표만 믿고 백신 접종 등 관리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AI도 처음으로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확진돼 변종 확산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가축의 매몰처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다고 실무자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관련 수출과 내수가 무너지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국가적 재앙으로 군 동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모두가 비상한 관심을 두고 맞서야 합니다. '육식의 종말'이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14.4 X 19.6 cm

KBS

2017년 02월 10일 (금)
사회

경기도 10개 시·군 오후 4시 건조주의보



.

14.4 X 10.1 cm

KBS
2017년 02월 10일 (금)
경제

보은서 4번째 구제역 확진...'최고 단계' 경보



<앵커 멘트>

구제역 양성 반응을 보인 충북 보은의 한우농가에서 올 겨울 네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탄부면의 한우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O형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O형 구제역 바이러스는 앞서 충북 보은군 마로면과 전북 정읍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혈청형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지난 5일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의 젖소농장과 불과 1.3킬로미터 떨어져있습니다.

따라서 두 농가 사이에 전염병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해당 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30%에 그쳤고 인근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우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구제역이 확진된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전국의 가축시장이 오는 18일까지 임시 폐쇄됐고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도 금지됐습니다.

전국에 거점 소독 장소가 설치되고 앞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도로 우제류 반출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KBS

2017년 02월 10일 (금)
사회

경기재난본부 13일부터 초고층 건물 긴급 합동점검



.

14.4 X 10.8 cm

KB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경기북부 소 13만 마리 'O A'형 백신 긴급 접종



.

14.4 X 10.8 cm

KBS
2017년 02월 10일 (금)
경제

구제역 최고 위기 단계 격상 ...전국 가축시장 폐쇄



<앵커 멘트>

정부가 구제역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확산 방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우 백 50여 마리를 키우는 충북 보은의 한우 농장,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농가에서 불과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이 농장의 소 세마리가 침을 흘리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적막감 속에 방역 인력만 분주히 농장을 오갑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걱정이 많죠.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방역하고 백신 잘 하고 그런 거죠."

경기도 연천의 젖소농장은 추가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위기단계 격상에따른 후속 조치로 우시장 등 전국의 가축시장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일단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지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거점 소독 장소가 설치되고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로 우제류 반출이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 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1주일이 구제역 발생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

MBC
2017년 02월 10일 (금)
경제

항체 있어도 구제역 감염, 백신 믿을 수 있나?



◀ 앵커 ▶

세 번째 구제역 확진을 받은 경기도 연천 젖소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90%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백신으로 방역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우시장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구제역이 더 확산되면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농가들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종성/강원도 횡성 가축방역 담당]
"구제역이 걸렸던 사례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올 1월에 전 두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으로 과연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 농가의 소들을 조사했더니 A형 구제역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90%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국내에는 A형 구제역 백신이 없어 O형과 A형이 복합된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 이 복합형 백신으로는 A형 구제역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급한 대로 복합형 백신을 쓰면서 A형 백신 수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도입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채찬희/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A형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돼지는 전무합니다."

정부는 연천 농가의 경우 구제역 감염 이후 항체가 만들어진 것도 있었다면서 실제 백신으로 인한 항체 형성률은 50% 내외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

MBC
2017년 02월 10일 (금)
경제

'항체 형성률' 높아도 구제역 발병, 백신 효과 의문



◀ 앵커 ▶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농가의 소들을 조사했더니 항체 형성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기도 연천의 젖소 농가의 항체형성률이 A형은 90%, O형은 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발생농가의 젖소 21마리를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에서, O형은 11마리에서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농가와 달리 90%의 형성률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병하자 백신접종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내에 A형 백신이 없어 복합형 백신을 접종해 왔는데, 복합형 백신으로는 A형을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만 복합형 백신을 접종하고, A형 백신 수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도입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추가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앞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같은 O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의 거리가 1.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두 농가 사이에 전염병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의 영향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응하고 가격안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 장기화 될 경우, 수입 촉진 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

OBS NEWS

2017년 02월 12일 (일)
종합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발인 마쳐

이동민|
경기도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4명의 발인이 모두 이뤄진 가운데 시설관리업체 등과의 배상 협의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은 사고발생후 8일동안 화성시 대책반과 시설관리업체 측이 구체적인 사고 수습안을 마련하라며 발인을 미뤘습니다.

화성시는 어제부터 오늘 정오 사이 공사업체 현장소장 63세 이 모 씨 등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민 leedm35@obs.co.kr

14.4 X 5.6 cm

OBS NEWS

2017년 02월 12일 (일)
종합

경기도, '억대 농부' 5천 가구 육성 추진

이동민|
경기도는 2020년까지 연간 수익 1억원이 넘는 '억대 농부' 5천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기간 도내 농가 평균 연간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만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2015년 기준 도내 1억원 이상 수익 농가는 4천185가구, 농가 평균 연간소득은 천백만원입니다.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생산공동 경영체 육성, 창농, 따복미래농장 운영 등 9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민 leedm35@obs.co.kr

14.4 X 6.7 cm

OBS NEWS

2017년 02월 12일 (일)
종합

최악 AI에 보상·방역비도 '최다'...경기도 1천 300억 원

이동민|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며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도 사상 최대 액수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소강 상태지만 종식 선언이 아직 이른데다 구제역마저 발병하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 7천 마리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도는 AI를 차단하기 위해 50여 일 동안 1천3백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이동민 leedm35@obs.co.kr

14.4 X 7.1 cm

OBS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119 호출 꾀병 환자, 구급차 못 탄다"...과태료 200만 원

이홍렬|

【앵커멘트】
감기나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택시 처럼 불러 이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비응급 신고자에게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홍렬 기자입니다.

【리포터】

술 취한 목소리의 한 남성이 119에 긴급 구조를 요청합니다.

【싱크】 허위신고자
"머리가 아파서요. 소방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병원 가실려고요?"

"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 남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정작 병원에 도착하자 치료도 받지 않고 10분만에 사라졌습니다.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이 남성에게 지난해 처음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는 별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잠재응급환자는 17만 2천여 명.

1년 전보다 12%가량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채수희/경기도 광주 오포119안전센터 소방대원
"1분, 1초가 진짜 아까운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저희가 출동해서 처치해야 되는데 비응급환자들 때문에 처치가 늦어지고 출동도 늦어지고…"

감기나 치통 등 비응급 신고가 최근 3년간 급증하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료기록을 대조한 뒤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합니다.

【인터뷰】 윤성근/경기도재난안전본부 구급팀장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비응급 신고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스스로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BS뉴스 이홍렬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배영주>

이홍렬 orchid7410@obs.co.kr

OBS 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취준생·사회인까지'...경기도에 일자리 있다

강병호|

【앵커멘트】
요즘이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바쁜 시기인데요,
취업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기도가 대학졸업생은 물론 일반 사회인의 취업까지, 일자리 만들기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기업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교 졸업반 김 모 씨.

틈틈이 온라인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꿈의 대학센터'입니다.

【인터뷰】 김락훈/취업준비생
"어디에서나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 좋구요. 이력서나 화상면접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난해 3만5천여 명의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취업 전략과 관련교육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문가들의 이력서 코칭부터 공기업 모의면접까지 40여개의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영/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 과장
"올해는 새롭게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공채시험, 직무적성검사 이런 콘텐츠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낸 원동력은 바로 사회적일자리 분야.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청년통장 등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수면상담사와 병원 아동생활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 마련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싱크】 김중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구조의 어떤 형태를 따라간다면, 미리 나타날 수 있는 직업들을 예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경기도는 앞으로도 대학과 민간이 연계된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편집 : 배영주>

강병호 kbh@obs.co.kr

14.4 X 19.3 cm

OBS 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네트워크 경인] 경기도, 해양레저 인력 양성...60% 취·창업 성공

정진오|

【 앵커멘트 】
해양레저 분야는 최근 주목받는 분야지만, 기술자를 구하기도 취업이나 창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지역인만큼 이에 걸맞는 기술자를 키우고 취업 창업과 연계시키고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 기잡니다.

【 리포트 】
올해 모터보트 업체에 취업한 박진영 씨.

지난해 경기도 해양레저 전문가 과정을 밟으면서 몇 안 되는 모터 기술자가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진영/경기도 해양레저 전문가 과정 수료생
"처음 오면 전혀 용어를 모르고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 지식은 배우고 와서 그런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바로 이해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한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알려진 해양레저산업은 최근 5년간 한 해 약 19%씩 성장중입니다.

업체 입장에선 그에 맞는 기술자가 필요해졌고 전문가 과정을 거친 인력이 반갑기만 합니다.

【 인터뷰 】 한하원/모터보트 수입업체 부장
"사실 다 생소한 언어고 엔진 용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어 자체라도 알고 오고 공구 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선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 과정 수료생 중 절반 이상이 취,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도는 가평과 양평 등 국내 최대 해양레저 지역이자 보트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련 분야 기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인터뷰 】 양성호/경기도 마이스산업팀장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정비 활동이 필요하듯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해양레저 분야의 전문가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정진오 jino52@obs.co.kr

OBS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만성질환자 1대 1 관리, 중복 의료비 '절감'

김대희|
【 앵커멘트 】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약 저약을 모두 먹다보니 중복된 처방으로 오히려 회복이 더뎌지고, 약값은 약값대로 부풀기 일쑤입니다. 김대희 기자가 경기도가 제시한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만성질환자 A씨는 약을 달고 살다시피합니다.

고혈압, 심부전증, 관절염, 통풍 등을 앓다보니 한꺼번에 먹는 약만 4봉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질환별로 안정제, 위장약 등을 중복해 먹다보니 과다복용에 돈 문제까지 뒤따랐습니다.

【 싱크 】 A씨(만성질환자)
"옛날에는 병원마다 약을 타서 한번 먹을 때마다 4봉지 약을 먹고 또 먹었어요"

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의 전문적인 1대1 컨설팅으로 복용 약이 한봉지로 확 줄었습니다.

【 싱크 】 정미애 의료급여관리사
"대상자(만성질환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서 만약에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들한테는 자활과 연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구요"

앞서 경기도는 31개 모든 시군에 배치된 85명의 관리사를 통한 멘토링 제도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에만 진료비 121억원을 아꼈습니다.

【 싱크 】 곽선미 경기도 생활보장팀장
"그들이(만성질환자) 스스로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법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복지예산도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예산확대와 관리사 충원을 통해 장기입원과 고위험군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넓혀 나가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영상편집 배영주>

김대희 godnsory@obs.co.kr

14.4 X 16.3 cm

OBS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평택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갈등' 주민감사 청구

고영규|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와 1년 넘게 끌어온 지하차도 건설비용 다툼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지제역 주변 역세권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은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조합은 300명가량 서명을 받아 오는 13일 청구서를 낼 계획입니다.

고영규 midusyk@obs.co.kr

14.4 X 6.3 cm

OBS 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A형·O형 구제역 동시발생...위기경보 '심각'

김창문|

【앵커멘트】
경기도 연천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서 나온 것과 다른 유형인 것으로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A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O형'과 다른 유형입니다.

A형과 O형이 같은 기간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형은 지난 2010년 경기 포천과 연천에서 소 6마리에 나타난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O형이었습니다.

때문에 당국은 주로 O형에 대비한 백신을 준비해뒀고, A형 관련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O형과 A형을 동시에 예방하는 '혼합형'이 있긴 하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싱크】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검출된 바이러스 O형과 A형에 대해서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에 송부해 바이러스 분석과 백신의 매칭결과를 확인할 예정…."

당국은 A형이 발생한 연천엔 O형과 A형 혼합형 백신을 접종하고, 중·남부 지역엔 O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형 백신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하고, 흔하지 않은 A형에 항체 형성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가축의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되는 한편 전국 86개 가축시장이 전면 휴장합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전종필 / 영상편집 : 정재한>

김창문 asyou218

OBSNEWS
2017년 02월 10일 (금)
종합

AI에 구제역 '공포'까지...안성시 '초비상'

고영규|

【앵커멘트】
연천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경기도내 최대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안성시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피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구제역 공포가 턱밑까지 조여오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AI 발생으로 이미 안성지역 가금농가는 초토화됐습니다.

안성지역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오리의 절반인 300만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이번에는 구제역 차례입니다.

경기도 방역선이 뚫리면서 구제역 공포가 턱밑까지 조여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물질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싱크】 하충호/영농육우회 안성지부장
"축산농가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죄인 취급 당하고 손해보면서도, 매몰당하면 또 막대한 피해도 보고…."

철통 방역과 백신을 접종하면서,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싱크】 양재성/한돈협회 안성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독 철저히 하고 백신만 철저히 한다면 글쎄, 피해갈 수도 있을 것같은데…."

경기도 전체 소와 돼지의 71%가 경기남부에 몰려있고, 안성에서만 2천여 농가에서 45만 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

안성시는 AI대책 특별 상황실을 'AI·구제역 상황실'로 전환하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길목마다 초소를 세워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외부 차량의 진입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2일까지 축산농가의 백신 보강 접종을 끝내는가 하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인터뷰】 김건호/안성시 축산정책과장
"철저한 이동통제와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농가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철저한 소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으로 경기도내 19개 시·군 2천400여 농가에서 174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다시 터진 구제역 소식에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축산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정재한>

고영규 midusyk@obs.co.kr

朝鮮日報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전국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6월 착공

경기도가 수원시로부터 신청사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한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있는 부지 11만8200㎡ 가운데 2만6000㎡에 연면적 9만9000㎡(지하 주차장 5만1000㎡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22층)과 의회(12층)로 구성되는 신청사는 2020년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담아 신청사에 유리돔 의사당을 조성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스마트 오피스 개념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5.6 X 7.1 cm

朝鮮日報

2017년 02월 13일 (월)
25면 스포츠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16연패

경기도가 12일 폐막한 제98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금 86, 은 72, 동 86개로 총점 1251점을 받아, 서울(1037.5점)을 제치고 2002년부터 대회 16연패(連覇)를 기록했다. 최우수선수(MVP)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도 대표 김민석(18·평촌고)이 뽑혔다.

5.2 X 4.3 cm

朝鮮日報

2017년 02월 13일 (월)
B05면 경제

구제역 공포 확산… 수입 쇠고기 소비 늘고, 국내산은 찬밥

대형 유통상들 물량 확보 경쟁
소·돼지고기 소비자가격 들먹

이달 들어 수입 쇠고기 매출이 크게 늘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내산 쇠고기 매출은 줄고 있다. 최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져 외국산 쇠고기 매출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산 쇠고기 값은 구제역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중간 유통상들의 사재기 움직임이 겹쳐 오르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지난 5~9일 국내산 쇠고기 매출이 일주일 전 (1월 29~2월 2일) 대비 20% 감소했지만, 외국산 쇠고기 매출은 12%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도 이달 1~9일 국내산 쇠고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로 올라 전국 86곳 가축 시장이 잠정 폐쇄되면서 한우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9일 한우 등심 평균 소비자 가격은 1kg에 7만8017원으로 전날보다 2085원 올랐다.

아직 구제역이 생기지 않은 돼지고기 도매가도 지난달 31일 kg당 4329원이던 것이 8일 4757원으로 10% 올랐다. 한 대형 마트 정육 판매 담당자는 "대형 유통상들이 미리 물량을 다량 확보해 놓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운 기자

17.1 X 7.4 cm

중앙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2면 사회

보은 또 구제역 증세, 첫 발생지 2.4㎞서 신고

항체 형성률 81%인데도 증상
확진 땐 전국서 6번째 발병

검역당국, 돼지로 전파 비상
밀집 사육 탓 급속 확산 우려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다. 충북도 방역대책본부는 "예찰 과정에서 보은군 탄부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소 3마리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곳 농장의 소 1마리는 침을 흘리고 2마리는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였다. 이 농장은 한우 171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최초 발생 농가와 2.4㎞ 정도 떨어져 있다. 충북도는 의심 소 3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5일 젖소 195마리를 사육하는 보은 젖소농장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전북 정읍 한우농장(사육 마릿수 49마리), 경기도 연천 젖소농장(114마리), 보은 탄부면 한우농장(151마리), 보은 마로면 한우농장(68마리) 등 5곳으로 확산됐다. 이번에 신고된 구제역 의심 소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전국적으론 여섯 번째, 보은에서만 네 번째다.

앞서 보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3개 농가 소에게서 나온 바이러스는 모두 같은 혈청형(O형)에 유전자형도 일치했다.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은 "구병산 기슭에 있는 이들 3개 농장은 거리가 가깝다"며 "공기 전염이나 사람 이동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검역본부에서 사료차·농장 주 출입이나 소 이동에 의한 전파가 있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의 잠복기는 4~7일 정도다. 보은군 마로면에서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소가 처음 발견된 5일 이미 주변 농가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구제역은 공기로 50~60㎞ 이동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검역 당국이 우려하는 건 소에게서 돼지로의 구제역 전파다. 돼지는 밀집 사육 비중이 커 감염병에 취약하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률이 소에 비해 낮게 나온다.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충북·전북·경기도 3개 권역이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 3개 도에서 기르는 돼지는 1562개 농가 364만 1400마리에 달한다. 전국에서 사육 중인 돼지 1036만6779마리 가운데 35.1%가 구제역이 발생한 3개 도에 몰려 있다.

'O+A형' 백신 긴급 수입 결정

문제는 돼지농가에 O형 구제역 백신이 집중 접종됐다는 점이다. 연천에서 발견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엔 듣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회의를 열어 'O+A형' 구제역 백신(O형과 A형 용도 백신을 섞은 것) 160만 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백신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농장은 충북도가 실시한 일제조사에서 87.5%의 항체 형성률을 기록한 곳이다. 이날 추가로 의심 신고를 한 탄부면 농가의 소 역시 81% 항체 형성률을 보였지만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

조현숙 기자, 보은=**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구제역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정부가 12일 'O+A' 형 백신 160만 마리분을 이달 말까지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이날 충청 지역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관리인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3.5 X 17.8 cm

중앙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31면 오피니언

소의 눈물



분수대
양영유
논설위원

어릴 적 농촌에서 소는 가족이었다. 소가 아프면 온 식구의 애가 끓었다. 꼴 먹이기는 아이들 몫이었다. 여름철 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네 시쯤이면 소를 몰고 야산이나 둑으로 몰려나왔다. 소를 풀어 놓곤 찐 옥수수를 먹고 닭에게 줄 간식용 개구리를 잡으며 놀았다. 소가 풀을 실컷 뜯으면 방죽으로 데려가 물을 먹였다. 배가 빵빵해야 칭찬을 듣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먹을 만큼만 먹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

소의 임신 기간은 280일이다. 쌍둥이를 낳으면 잔치를 벌였다. 자식 공부와 농사 밑천이니 경사였다. 소는 덩치가 커도 겁이 많고 민감했다. 돌산에서 터진 남포 소리에도, 자동차 불빛에도 화들짝 놀랐다.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 동물학자에게 물어보니 "놀라 긴장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생리적으로 눈물샘이 터지는 것"이라고 했다. 감정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정이 있는 건 분명했다. 목이 멍에에 짓눌려 진물이 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농사철엔 표정이 어두웠다. 고단한 소의 노동은 1970~80년대 경운기가 본격 보급되면서 안락해졌다. 일소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일 안 하는 사육소로 바뀌었다.

소는 인간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주고 간다. 그런 소를 인간이 울린다. 지난해에는 정치까지 가세했다. 김영란법 여파로 한우 선물세트가 외면당했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도 끌려 나갔다. 소와 정치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번에는 구제역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전국의 친우(親牛)들이 위태위태하다. 소는 억울해한다. "비좁은 사육장에서 충실하게 살을 찌워 왔어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적도 없고 물 백신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젖이 덜 나도 제대로 맞았어야 했는데…."

구제역은 확산일로다.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경기도 연천 등 5곳으로 번졌다. 서로 다른 O형과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데 백신도 부족하다. 벌써 1000마리를 저세상으로 보냈다. 353만 마리를 매몰한 2010년의 악몽이 떠올라 아찔해진다. 소도 물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인간의 물욕(物慾)의 끝은 어디인가. 미안하다면 총력 방역으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3312만 마리의 닭·오리와 생이별했는데 소까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다. 고향 친구네 소들의 우는 소리가 뒤통수를 때린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나요? 다 인간들 잘못이지."

11.8 X 15.0 cm

국민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2면 사회

'항체형성률 88%' 농가서 5번째 구제역

또 충북 보은…첫 확진 농장 인근 2.4㎞이내서 3마리 의심증상도
허술한 초동 방역대응 비판 고조

정부, 2회 접종 권장된 돼지 백신 '1회 접종' 고사…관리 허점 제기

전국적으로 소 구제역 확진 농가가 5곳으로 늘었다. 정부의 일제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8%로 나온 농가인데도 구제역이 발병했다. 충북 보은에선 4번째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도 발견됐다. 또 정부가 돼지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고시에 1회 접종만 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보은군 송현리의 한우농가를 역학조사한 결과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농가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젖소 농장에서 4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번 구제역 확진 판정 5건 가운데 3건이 보은군에 집중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첫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2.4㎞ 이내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3마리가 이날 의심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소 구제역 발생 지역과 살처분 현황

지 역	바이러스 혈청형	발생농장 항체 형성률(%)
충북 보은	O	20.0
전북 정읍	O	5.0
경기 연천	A	52.3
충북 보은	O	28.1
충북 보은	O	87.5

살처분 현황(11일 자정 기준)
-16개 농장, 1196마리.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지만 확산 일로다. 특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방역대(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3㎞ 이내) 안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파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동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빗발친다. 5번째로 확진을 받은 농장의 경우 11일 한우 6마리가 의심증상을 보여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장은 인근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진행된 일제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7.5%가 나왔다. 항체 형성률이 100%인 보은군의 다른 한우농장에서도 5마리가 의심증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와 달리 백신이 있는 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항체 형성률이 높은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불백신'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일선 농가에서는 농가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한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2회 접종이 권장되는 새끼돼지 백신 접종을 1회 접종으로 규정하는 등 허술하게 백신 접종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 백신 허가 부표'를 보면 새끼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 재접종하도록 돼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행 지역에선 매 4주 추가 접종을 하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에서 새끼돼지는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해 스스로 허가한 백신사용 지침보다 완화했다.

정부 실험에서도 1회 접종은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얼사 계열 돼지용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 실험 결과에 따르면 1회 접종한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5~30%로 낮았다. 지난해 긴급 백신으로 일부 도입된 러시아·아르헨티나산 백신도 항체 지속 유지를 위해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된 소는 11일 밤 12시 기준으로 전국 16개 농장 1196마리(예방적 살처분 11개 농장 695마리 포함)에 이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민관합동 구제역·AI 점검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31.2 X 14.3 cm

국민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3면 사회

경기도,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키로

경기도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0.5㎾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제품은 난간거치형, 고정·이동식형 등 총 13개로 발전용량이 200~500W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들로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 검사를 통과해 구조적으로도 안전하다. 설치 후 5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된다.

설치를 원하는 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안산시 소재 경기도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pms.gtp.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2.4 X 9.3 cm

한겨레
2017년 02월 13일 (월)
16면 사회

'구제역 A형' 무방비…돼지 1천만마리가 불안하다

7년만에 A형, 연천 젖소농가 발생
돼지감염 위험 배제 못해 비상

A형 백신, 소 전용 수입한 것뿐
그마저도 재고는 99만마리분
"정부, 비용탓 돼지엔 O형만 접종"

보은 한우농가서 여섯번째 의심사례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두 가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소 농가에 동시 발생하면서 전국 돼지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돼지는 A형 백신을 맞히지 않은 '무방비' 상태여서 감염 땐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12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선 다섯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여섯번째 의심 사례도 추가로 나와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구제역 백신 부족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백신 재고	사육 두수
소	O+A형(소전용) 99만마리분,	330만
돼지	O형(소·돼지용) 852만마리분	1100만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소는 통상 'O+A형'의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을 쓰지만, 돼지는 O형 단가 백신만을 사용한다. 국내에선 2010년 역대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거친 이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했지만, 대비책에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여기엔 국내 구제역 사례가 돼지는 전부 O형이었으며, 소에서만 일부 A형이 나타났던 점이 작용했다. 실제 2000년 이후 8차례 구제역 사태를 겪었는데 A형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은 2010년 한 차례였다. 또 지역적으로도 경기 연천·포천에 국한됐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소보다 돼지 사육 마릿수가 훨씬 많은 데다 백신에 바이러스 유형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7년 만에 다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아직 A형이 나타난 곳은 지난 9일 세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 연천의 젖소 농가 사례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외국에선 돼지도 A형 감염 사례가 보고돼 돼지 농가라고 해서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돼지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규모가 급속하게 불어나는 구조다. 소 농가는 수십마리 단위로 사육을 한다면 돼지는 수천마리 단위로 기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현재 A형 백신은 소에 접종하려고 수입했던 O+A형 백신뿐이다. 그마저도 정부에 남은 재고는 이날 현재 99만마리분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는 330만마리(접종 대상 283만마리)이고, 돼지는 1100만마리에 이른다. A형 백신 물량을 이 정도 대규모로 급하게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소에 일제 접종을 지시했지만 그나마도 O형 단가 백신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앞서 수년 전부터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선 A형 구제역 발생이 꾸준히 보고됐으나, 정부는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다. 구제역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현재 영국산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일단 부족분을 구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인 영국 메리알과 접촉에 나섰다. 또 중국 백신의 수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 보은에서 또 구제역 의심 소가 나왔다. 확진되면 전국에서 여섯번째, 보은에서만 네번째 구제역이다. 이날 충북도는 보은군 첫 구제역 발생지 주변 3㎞ 이내 농장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부면 한우 농장에서 감염 의심 소가 발견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의심 신고된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한우 농가 건도 확진돼 전국에서 다섯번째, 보은에서 세번째 구제역으로 판명 났다. 최종훈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cjhoon@hani.co.kr

27.1 X 20.2 cm

한겨레
2017년 02월 13일 (월)
26면 오피니언

유레카

누명 쓴 표본조사

통계 조사의 방법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란 말 그대로 모두 조사하는 방식이고, 표본조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조사해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통계 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뤄진다. 전수조사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조사를 마친 시점에서 데이터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반면 표본조사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 통계청 조사도 대부분 표본조사다.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처럼 뒤에 '센서스'가 붙은 조사 정도가 전수조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민관 합동 구제역·AI 점검회의'에서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라"며 "방역인력 부족이 우려되면 군을 투입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항체 형성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따른 조처였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사육되는 소가 338만마리, 돼지는 1100만마리다. 인력도 문제이지만 전수조사를 마칠 때쯤이면 상황이 종료돼 있을지 모른다.

농식품부가 불신을 받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엉터리로 했기 때문이다. 표본조사의 생명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전국 9만8천여 농가 중 6900곳을 뽑아 농가별로 1마리를 검사해 양성이 나오면 그 농장의 모든 소에 항체가 생긴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이 1마리를 농장주가 선정했다. 한 예로 소 100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농장주가 고른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그 농장의 항체 형성률이 100%가 되는 식이다. 통계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황 총리의 엉뚱한 지시 탓에 장병들만 생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안재승 논설위원 jsahn@hani.co.kr

12.2 X 12.8 cm

경향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2면 사회

구제역 엎친 데 '항체 미달 과태료' 덮쳐… 축산농의 눈물

소 농장주에 책임 물어 수십곳 부과 대상… 더 늘어날 듯

전문가 "농가가 직접 접종 시스템으로 방역 기대 못해"

소사육농장들이 줄줄이 과태료를 물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 백신을 제대로 놓지 않아 항체형성률이 낮게 나온 책임을 농장주에게 묻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농장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농장 반경 3㎞ 이내 소사육농장에 대해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첫 발생 농장을 포함해 15곳(젖소 6곳, 한우 9곳)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인 80%보다 낮게 나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는 소 사육농장 등이 백신 주사를 놓게 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항체형성률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농장주에게는 적발될 때마다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15곳 농장의 항체형성률은 0~75%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의 젖소농장 인근 3㎞ 이내 소사육농장의 항체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9곳 중 2곳의 항체형성률이 50% 미만으로 나왔다. 전북 역시 구제역 발생농장 3㎞ 이내 17곳의 농장 중 10곳은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였다. 이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항체형성률 조사를 모든 젖소·한우·육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해제되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보은군의 한 소사육농장주 ㄱ씨는 "소가 새끼를 가졌을 때 백신을 놓으면 유산할 수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접종을 해도 주삿바늘이 소의 근육에 제대로 꽂히지 않아 항체형성률이 낮게 나오는 등 부실 접종이 생길 수 있는데 모든 책임을 농장주에게 떠넘기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앞서 백신 접종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은 약품 구매부터 접종까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농가에 맡겨져 있다. 김기운 축산컨설팅 전문업체 금강(주) 대표는 "축산농장에 백신 접종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재의 방역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구제역이 주로 겨울에 발생한 점에 고려해 10월과 이듬해 4월께 백신을 일괄접종한 뒤 혈청검사를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농장주에 대한 백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450m가량 떨어진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농장에서는 12일 'O형'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다. 또 관기리 농장에서 2.4㎞ 떨어진 탄부면의 한우농장에서도 이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확진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6번째, 충북에서 4번째 발병이 된다. 권순재·박용근 기자 sjkwon@kyunghyang.com



5번째 확진… 보은 한우농장 봉쇄 올해 5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우농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12일 방역당국에 의해 봉쇄돼 있다. 연합뉴스

34.2 X 20.5 cm

경향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25면 스포츠

'동계체전 절대강자' 경기도 16년째 종합 우승

경기도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으로 종합 우승했다.

경기도는 12일 끝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6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86개로 총점 1251점을 획득, 1037.5점을 얻은 서울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2002년 대회부터 종합 1위를 놓치지 않은 경기도는 이로써 16년 연속 동계체전 최강자 자리를 유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도 대표 김민석(18·평촌고)이 차지했다. 김민석은 남고부 1500m와 5000m, 8주 종합, 매스스타트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 동계체전에서 2회 연속 4관왕에 올랐고 대회신기록도 3개나 작성했다.

한편 스키 여자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동계체전의 전설' 이채원(36·평창군청) 역시 4관왕에 올랐다. 이채원은 동계체전 통산 금메달 수를 67개로 늘렸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11.6 X 6.7 cm

한국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구제역 백신 급한데… 英 제약사 본사엔 연락도 안 한 농식품부

정부가 'O+A형' 구제역 백신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닷새 동안 정작 이 백신을 만드는 영국 제약사 본사엔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방역 당국이 한 일은 이 회사의 국내 지사를 재촉한 게 전부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경기 연천군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자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O+A형' 백신 제조사인 영국 메리알에 백신 공수를 긴급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 보은군과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O형이었다. 영국 메리알의 'O+A형'백신을 긴급 수입해 사상 첫 두 유형(O형과 A형) 구제역 동시 발생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었다.

그러나 12일 본보 확인 결과, 농식품부는 이날까지도 'O+A형' 백신 재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메리알 본사에서 아무런 확답도 받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메리알사의 한국 법인인 메리알코리아가 본사에 재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O+A형 백신 추가 공급에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일정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적 재난인 가축 전염병의 백신 수급 문제를 영국 백신 제조사의 한국법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백신회사 본사와 직접 핫라인을 구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리알사는 공식적으로 메리알코리아와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11면에 계속

6.4 X 19.3 cm

한국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1면 종합

구제역 O형만 대비한 백신정책… 골든타임 허비

2010~2011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은 뒤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방식의 대안으로 추진해 온 '백신정책'이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거액의 비용만 낭비한 채 백신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A형까지 막는 백신 크게 부족
접종대상 소 30%는 맞지도 못해
해외 제조사에 전량 의존도 문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전의 한 한우농가에서 주인이 사료를 주며 소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책 1: O형만 대비하다 A형 날벼락

정부의 구제역 백신 정책에서 가장 명백한 실책은 'O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구제역 발생 상황에는 사실상 거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2010년 경기 일부 지역에서 A형이 발생했는데도 그 동안 국내 구제역이 대부분 O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백신 정책은 오로지 O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경기 연천군에서 확인된 구제역이 A형으로 밝혀지며 방역 당국은 처음부터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 O형뿐 아니라 A형까지 방어하는 백신 재고는 190만마리분에 불과, 백신접종 대상 소(283만마리) 중 90만마리 이상은 당분간 백신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돼지는 지금까지 O형에 대비하는 백신을 접종해 왔다. A형 백신은 아예 맞힌 적도 없다는 이야기다. 만약 A형 구제역이 돼지까지 확산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돼지는 사육두수가 소의 3배가 넘고, 구제역에 걸릴 경우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양도 소보다 1,000배나 많다.

이미 주변국에서 A형이 종종 발생했다는 점에서 O형 위주 정책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2013~2015년 중국에서 25건의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돼지에서 발생했다.

실책 2: 영국만 바라본 해바라기 대책

구제역 백신을 영국 수입사에만 의존한 것도 문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 구제역 백신은 국내 백신회사가 영국 메리알에 제조를 의뢰해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들여온 백신을 정부와 축협이 일선 농가에 공급한다. 그러나 백신을 단일 공급처에만 의지하다 보니 이번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선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영국산 백신이 '물백신(효과가 없는 백신)'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 전문가는 "국내 개발이 가능한데도 장기계약을 한 영국 업체에만 끌려 다니고 있다"며 "구제역이 이미 토착화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백신을 개발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백신 개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올해서야 구제역 백신 개발을 신규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나마 증액된 예산의 총액도 23억원에 불과하다. 국산화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책 3: 농가에만 맡긴 사후관리

백신 접종과 사후 관리를 농가에만 맡겨 둔 것도 무책임했다. 축산단체와 농민들은 당국이 농민들에게 접종방법조차 교육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다. 농가당 소 1마리만 표본으로 삼아 항체 형성률을 추정한 것도 문제를 노출했다. 농가당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1마리씩만 표본 검사를 하다 보니 표본이 전체 소의 0.8%에 그치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발표한 소 항체 형성률(95.6%)은 그저 서류상의 공허한 숫자에 불과했다.

세종=이현주·이영창 기자

18.1 X 25.8 cm

세계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1면 사회

'O+A형 백신 수입' 계약도 못한 당국

보은서 전국 6번째 구제역 확진

"물량 부족… 추가 생산 등 협의"
당장 체결해도 보급에 5일 걸려

돼지 A형 대비 안돼 급확산 우려
보은서만 4번째 발생 농가 확인
바이러스 지역 내 확산 가능성

이정우·이동수 기자 woolee@segye.com

충북 보은군 한우농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진 사례가 나왔다. 보은 지역에서만 네번째, 전국에서는 여섯번째다.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O+A'형 구제역 백신이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A형' 백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청북도는 12일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의 한우농가에서 수포, 침흘림 등의 의심증상을 보인 소 3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가는 올겨울 국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2.4㎞ 떨어져 있으며, 소 171마리를 기르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보은군의 3㎞ 방역대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하던 중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 3마리를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방역대 내 농장 4곳이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지역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현재 살처분 된 소는 농장 16곳에서 1196마리에 달한다.

잇따라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백신을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백신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O+A형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새로 생산을 할 건지 다른 국가에 배정된 물량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에이전트와 협의 중인데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제역 백신 수입을 처음 거론한 것은 지난 8일 경기 연천의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이 국내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A형'으로 확진된 9일이다. 구제역 일제접종 대상 소는 283만마리이지만 국내 'O+A형' 백신 보유량은 현재 99만마리분 뿐이다. 이에 정부는 'O형'과 'A형'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O+A'형 구제역 백신 부족분을 일주일 내 영국 메리알사에서 수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는 "(계약이 완료되면) 항공편으로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당장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현지 배송 후 전국 각지에 배분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5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경기도 수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O+A'형 구제역 백신 160만마리분을 이달 말까지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 국가나 현지 물량 확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언제 수입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852만마리분의 재고가 있는 'O형' 백신은 320만마리분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소를 대상으로 'O형' 백신 접종을 대부분 마쳤다. 반면에 'O+A형' 백신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을 중심으로 방역대 형성에 필요한 소 사육농장만 접종했다. 대부분 소와 마찬가지로 O형 백신만 접종해온 돼지도 A형 구제역 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구제역이 돼지로 전파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0일 "인근 국가에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선을 뚫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백신 약 2000만개를 확보할 수 있는 중국산의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구제역 발생 일지

발생일	발생 위치	축종	사육 규모(마리)	혈청형
2월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젖소	195	O형
6일	전북 정읍시 산외면	한우	48	
8일	경기 연천군 군남면	젖소	114	A형
9일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한우	248	O형
11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한우	68	
12일	충북 보은군 탄부면	한우	171	검사 중

구제역 살처분 현황

(11일 자정 기준)

젖소…… 농장 4곳 428마리
한우…… 농장 11곳 739마리
육우…… 농장 1곳 29마리
합계…… 농장 16곳 1196마리 (예방적 살처분 695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2.9 X 17.1 cm

서울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1면 사회

보은서만 네 번째 구제역 확진… 전국 여섯 번째

첫 발생 농가서 2.4㎞ 떨어진 곳
당국, 백신 부족한데도 "일제 접종"

충북 보은의 한우 농장에서 추가로 신고된 의심축이 구제역으로 12일 확진됐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다. 이날 오후 보은군 마로면 상장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충북도 축산 위생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드러났다. 보은 지역에서만 네 번째 의심축이 신고돼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일 구제역 첫 신고 이후 일주일 만에 살처분된 소가 1200마리에 육박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은군 상장리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171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이 농장은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 농장에서 2.4㎞ 떨어져 있다. 충북도는 171마리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 3마리를 살처분한 뒤 시료를 채취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또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온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젖소 농장에서 450m가량 떨어져 있다. 이 농장은 구제역 발생 직후 이뤄진 긴급 항체 형성률 일제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왔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아도 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물백신'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앞서 경기 연천의 젖소 농가에서도 A형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9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형 구제역이 발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체가 바이러스 유입 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출된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 이후 생긴 항체인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형 바이러스에 대한 'O+A형' 백신 효과 논란에 대해서도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O+A형' 백신이 A형과 O형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전국 소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O+A형' 백신의 재고 물량이 소 190만 마리분에 불과해 소 일제 접종(283만 마리)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영국 메리알사에 긴급 수입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2.3 X 11.3 cm

서울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31면 사설/칼럼

황 대행, 구제역 차단 선봉에 서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다. 이러다가 2010년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다시 겪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0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서너 달간 350만 마리가 넘는 소, 돼지를 살처분했다.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날 만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사상 처음 A형과 O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덮쳤다. 지난주 경기 연천에서 신고된 구제역은 지금껏 국내에 없었던 A형 바이러스로 판명됐다. O형 바이러스에만 대비해 온 정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당장 확보된 A형 백신이 없다니 축산 농가는 발만 동동 구른다.

구제역은 잊힐 만하면 반복됐다. 지난 16년간 8차례나 터졌으니 2년에 한 번꼴로 겪은 셈이다. 그 과정에서 살처분 등의 비용으로 들인 세금이 3조 3000억원이나 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서도 정부 당국은 학습효과조차 제대로 못 보고 번번이 원점에서 허둥댄다. 바이러스 대비책만 봐도 그렇다. 엎어지면 코 닿을 중국에서 A형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다면 여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했다. 이제 와서 A형 백신을 영국에 수소문하고 있다니 딱해도 보통 딱한 게 아니다. 이럴 거면 정부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한숨이 나온다.

소뿐만 아니라 돼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이 들린다. 돼지 방역을 소홀히 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거라는 경고들이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소보다 돼지가 빠르고, 바이러스 배출량도 더 많기 때문이다. 전국 1000만 마리의 돼지에도 A형 바이러스 백신은 전혀 접종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러니 벌써 소·돼지고기 사재기가 극성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에 계란값 폭등을 경험한 유통상들이 미리 물량 확보에 나선 결과라니 나무라지도 못할 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열 일 제쳐 두고 구제역 재앙을 막는 데만 신경을 쏟아야 할 때다. AI의 초동대응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 대행은 공직사회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 구제역 차단 방역에 명운을 건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현장 사정도 제대로 모르는 형식적 지시나 던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황 대행은 관련 모든 부처를 총동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비상 가동하는 컨트롤타워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15.6 X 10.8 cm

서울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35면 기획

〈어쩌다 공무원〉

핫바지 이번엔 'HOT바지' 입자… 충청 안희정 측근 '어공' 줄사퇴



›› 대선 바람 속 지자체 인사 바람

"충남 핵심정책이 국가비전 될 수 있다" 흥분

"안희정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로 옮긴 측근 공무원들이 경선 때 충남도의 핵심 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로 갈 수 있고 말이죠."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게 자치단체의 새해 정기인사는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체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측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 공무원들은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이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 3순위를 달리면서 충남도가 국가 핵심 정책의 원산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핫바지' 충청도의 대우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우선 안 지사의 도정 및 정치활동을 보좌한 최측근들이 지난달 말 퇴직하고 경선 캠프에 합류했다. 장모 미디어센터장(서기관급), 노모 메시지팀장(사무관급) 등 임기제 직원 5명이다. 안 지사와 함께 공무원이 된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이지만, 도 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안 지사의 충남도 핵심 정책은 '3농(農) 혁신' '역간척 사업' '차등 전기요금제' 등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안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충남도의 숙원 사업들이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냐. 더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면 각 정부부처에서 이를 배우려고 충남도를 털어갈 것"이라고 흥분했다. 이 관계자는 "도 공무원이 국비 확보를 하려고 찾아가도 쳐다보지 않던 부처 공무원들이 안 지사의 인지도가 부쩍 높아진 지난해 초부터 대우가 달라졌다고 들었다"면서 웃었다.

충남도 공무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옮겨간 사례를 들어, '영전'도 꿈꾼다. 도 관계자는 "요즘 저녁·술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주요 안줏거리"라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도청사 뒷산인 용봉산의 기(氣)가 좋아 안 지사가 꿈을 이룰 거라고 풍수지리까지 동원한다. 도지사 영빈관(관사)이 용봉산 중턱에 있고, 안 지사가 정상도 자주 오르니 그 기가 오죽 좋겠느냐는 것이다.

충남도의 정기인사는 지난달 초·중순 모두 끝났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다음달 미래성장본부(본부장은 3급 부이사관급) 출범을 앞두고 2개 과를 신설하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과'로 축소했다.

박원순 시장 '하차 전' 인사…고위직 적체 심해

박원순 시장은 대선 주자를 중도 하차하기 전에 1월 정기 인사를 끝냈다. 고위직 승진 인사는 많이 적체됐다. 류경기 1부시장, 이제원 2부시장을 고수해서다. 박 시장이 출마했더라면, 서울시정을 책임질 예정이었던 타라 이동시킬 수 없었다.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경기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공무원 인사를 차례로 단행했지만, 지난해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의 인선을 놓고 '정피아'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예년보다 빠른 지난 1월 초 실·국장과 부단체장, 과장급 전보인사까지 단행했다. 김관용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고서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해서인지 캠프에 참여하려고 퇴직한 도 공무원은 아직 없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5.6 X 14.1 cm

매일경제
2017년 02월 13일 (월)
12면 경제

보은서 잇단 발생… 뻥뚫린 구제역

정부, 위기경보 최고로 높였지만 잇단 확진
뒤늦은 백신접종도 물량 부족·물백신 논란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구제역 발생은 멈추지 않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 지난 5일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이 지역에서만 12일 세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 농가가 나왔고, 이날 추가 접수된 의심신고에서도 또 한 곳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3㎞ 방역대 내의 축산농가에 대한 시료검사 과정에서 한우 171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 3마리를 확인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정밀검사 중이다. 이 농장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2.4㎞ 떨어진 곳이다.

앞서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68마리 중 6마리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해 역학조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이번에 첫 확진 판정이 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45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로써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6곳이고, 5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보은의 경우 첫 발생농장 주변에서 3건의 확진 판정이 나오고 또 1건의 양성 판정 사례가 추가돼 이 지역에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경기 연천에서 의심신고가 이뤄진 것을 마지막으로 보은에서만 주변 지역으로 구제역이 퍼졌을 뿐 다른 시군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로만 60㎞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전파력이 강해 농가와 정부가 방역을 위해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예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이 시급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미처 대비를 못했던 'A형' 구제역이 경기 연천 젖소농가에서 터지면서 예방을 위해 접종해야 할 'O+A형' 백신 물량은 190만마리분밖에 안 돼 93만마리분이 부족하다. 정부는 해당 백신을 생산하는 영국의 제약회사에 긴급히 생산을 요청하는 등 뒤늦게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수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열린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새누리당에 이달 말까지 'O+A'형 백신 160만마리분을 수입하고, 현재 852만마리분의 재고가 있는 'O'형 백신은 320만마리분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축산 선진국처럼 제대로 백신 접종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4~2016년 구제역 백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축산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은 살처분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9가지 계통의 항원을 2000만회분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 5일 이내에 신속히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2001년 대규모 구제역 피해가 발생했던 네덜란드 역시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9개 계통의 백신 1600만회분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국내 백신 회사가 영국 메리알사에 제조를 의뢰해 수입한 뒤 일선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농장에서는 항체 형성률이 높았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해 '물백신'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연천 젖소농가의 경우 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결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항체 형성률이 100%인 돼지에게서 구제역이 생겨 이른바 '물백신'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서동철 기자



소 농가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방역활동이 대폭 강화됐다. 12일 보은군 탄부면 거점소독소에서 방역 인부들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이후 구제역 발생 현황
(단위=마리·억원)

발생기간	살처분	재정소요
2010년 1월 2~29일	5,966	272
2010년 4월 8일~5월 6일	49,874	1,040
2010년 11월~2011년 4월	3,749,962	27,393
2014년 7월 23일~8월 6일	2,009	17
2014년 12월~2015년 4월	172,798	638
2016년 1월 11~13일, 2월 17일~3월 29일	33,073	59

올해 확산되는 구제역 (단위=마리)

지역	사육 마릿수	의심신고일
충북 보은	젖소 195	2월 5일
전북 정읍	한우 49	2월 6일
경기 연천	젖소 114	2월 8일
충북 보은	한우 151	2월 9일
충북 보은	한우 68	2월 11일
충북 보은	한우 171	2월 12일

19.1 X 22.5 cm

서울경제
2017년 02월 13일 (월)
21면 증권

구제역株 동반강세

제일바이오·파루 등 수혜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위기경보가 7년 만에 '심각'으로 격상되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울 등으로 확산한 데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백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물의약품 전문업체 제일바이오는 구제역이 발생한 후 일주일(6~10일) 간 15.53% 급등했다. 이 기간 중앙백신도 15.6%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파루(7.97%)와 이-글벳(5.39%) 등 방역 관련주도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한일사료는 구제역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지난 한 주간 41.23%나 급등했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염소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후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여러 시·도로 확산되고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4.9 X 15.9 cm

서울경제

2017년 02월 13일 (월)
30면 사회

보은서 6번째 구제역 의심…정부, 160만마리분 백신 긴급수입

구제역 발병 일주일 만에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5번째 확진과 6번째 의심 신고가 연이어 나왔다. 1,100만 마리를 사육하는 양돈 농가 대부분이 'A형'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에 이어 정부가 예방을 장담했던 구제역까지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축 전염병으로 초토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 탄부면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농장은 올해 국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마루면 관기리 젖소 농장에서 2.4㎞ 떨어진 곳이다.

또 이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 농가도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 관리 젖소 농장에서 450m 떨어져 있는 기본 방역대 범위 안 농장이다. 이 농장은 구제역 발생 이후 이뤄진 긴급 항체 형성률 일제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첫 발병 이후 이날 현재까지 구제역 확진 건수는 충북 보은 3건, 전북 정읍 1건, 경기 연천 1건 등 총 5건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된 소도 1,000 마리를 넘었다.

연천 젖소 A형 발병했지만
양돈농가 O형 백신밖에 없어
돼지 A형 바이러스 무방비
국내 1,100만마리 비상
전국 확산될 지 예의 주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항체의 경우 바이러스 유입 후 자연 형성이 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출된 항체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백신 접종 후 생긴 항체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 1~2주 후에야 항체가 형성된다. 타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도 빠르면 이번 주께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백신도 태부족이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160만 마리분의 'O+A형' 백신을 이달 말까지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가 구비한 백신은 99만 마리분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최초 발생 외에 두 번째 발생 농장부터는 의심소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도 연천군 젖소 농가에서 발병한 'A형' 바이러스가 돼지 농가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제역은 A·O·C·Asia1·SAT1·SAT2·SAT3형 등 총 7가지 혈청형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각 혈청형의 백신은 다른 혈청형 항체 형성 등 교차 방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껏 우리나라 돼지 농가에서 A형 바이러스 검출이 되지 않아 백신 접종이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 농가에선 O형과 A형 바이러스를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영국 메리알사(社)의 2가 백신(O+A형)을 상시 백신으로 사용한다. 이에 비해 돼지 농가는 O형 전용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12일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의 거점 소독소에서 방역 당국자들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지난 5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병한 충북 보은에서 이날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A형 바이러스가 돼지 농가로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2013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25건의 구제역 중 3건은 돼지에서 발생했다. 돼지가 공기 중에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농도는 소에 비해 3,00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쉽게 말해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전염성과 전파력이 더욱 크다는 뜻이다.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에선 주로 O형 구제역이 발병하다 보니 백신도 그쪽으로만 구비해 놨다"며 "연천 이외에는 아직 A타입이 발병하지 않은 만큼 돼지 농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36.3 X 18.0 cm

한국경제
2017년 02월 13일 (월)
16면 IT,과학

구제역 바이러스 A to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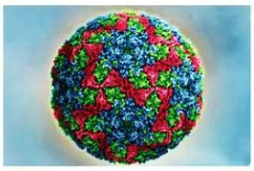


구제역, 여름보단 가을·겨울에 기승 사람도 감염 가능성 있지만 '희박'

충북 보은의 한 한우농장이 12일 다섯 번째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제역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흑염소,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가축 질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국제 교역을 제한할 정도로 경제 사회적 피해가 크다. 구제역 바이러스(그림)는 단일 나선 RNA 바이러스로 크기가 25나노미터(1㎚=10억분의 1m)에 불과해 비교적 작은 바이러스에 속한다.

유전정보를 가진 RNA를 둘러싼 단백질이 20면체를 이룬 이 바이러스는 동물 피부나 내장기관 표면을 덮



는 상피세포에 잘 달라붙고 증식하는 성질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항원 구조에 따라 A·O·C·SAT-1·SAT-2·SAT-3·Asia-1 등 7종의 혈청형이 있고 그 아래 80종이 넘는 혈청아형이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A형과 O형 두 종류 바이러스가 동시에 출현하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혈청형과 혈청아형에서 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을 만들기 어렵다.

무엇보다 혈청형 간에 교차 면역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처럼 A형과 O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각에 맞는 백신이나 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2가 백신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구제역이 혈청형 O형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A형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일 경기 연천 구제역이 A형으로 판명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은 여름보다는 가을과 겨울에 기승을 부린다. 소와 돼지 장에선 3일가량 살지만 오줌에선 39일까지 산다. 네덜란드 연구진은 2007년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서 얻은 자연케이싱(소시지용 껍질)에서 최대 250일까지 살아남은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소는 주로 호흡기로, 돼지는 구강을 통해 감염된다. 영국 동물질병연구소는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6㎞ 떨어진 농가에 있는 1000마리 가축을 상대로 바람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 돼지 감염 위험은 없지만, 소의 감염 위험은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 거위를 비롯해 야생조류인 갈매기와 참새는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 사람 코와 목에서 36시간까지 살아남는다. 사람이 매개가 돼서 공기를 통해 소에게 전파할 수 있다. 사람이 구제역에 걸릴 수도 있다.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진이 2011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1921년부터 196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0명이 감염됐다. 1834년에는 채식주의자 3명이 구제역에 걸린 소에서 짠 원유를 마신 뒤 구제역에 걸린 사례도 보고됐다. 살균된 우유를 마시고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구제역에 걸리면 감염된 동물처럼 손과 발, 입과 혀 등에 물집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낫는다. OIE에 따르면 구제역 청정국은 67개국에 이른다. 주로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하고 있지만 살처분이 여전히 최선의 확산 방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11.5 X 30.9 cm

한국경제

2017년 02월 13일 (월)
26면 사회

전국 구제역 확산 … 마장동 축산물시장 가보니

"돼지마저 구제역 걸리면 자영업자는 끝장"

"(구제역이) 돼지에까지 퍼지면 끝장입니다." 한우의 구제역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잇달아 나온 12일, 국내 최대 축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마장동 일대에는 불안이 감돌았다. 소고기는 유통 물량의 절반가량이 수입산이라 그나마 충격이 덜하겠지만 90% 이상이 국내산인 돼지고기는 "얘기가 다르다"는 게 상인들의 이구동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1100만여마리 돼지 대부분이 구제역 변종인 A형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닭 소 이어 돼지에까지 번지나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2일 충북 보은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가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5일 올겨울 들어 첫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농장에서 2.4㎞ 떨어진 곳에 있는 농장에서다. 전국 구제역 확진 건수가 여섯 건으로 늘어났다.

이번 구제역은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완전히 다른 두 개 유형으로 창궐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국내 돼지에서는 A형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전부 O형만 발생한 터라 A형 바이러스 대비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발생한 전국 여섯 건의 구제역 가운데 혈청형이 확인된 5건 중 4건이 O형이다. 하지만 경기 연천 소 농가에서 7년 만에 A형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

돼지 농가에서 A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축산업계의 우려다. 검역당국도 A형 구제역이 돼지 농가에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부인하지 않고 있다.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소보다 최대 1000배 가량 많아 삽시간에 퍼질 위험도 크다.

국내에 있는 A형 백신은 소 전용으로 수입되는 O+A형 백신뿐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확보한 재고가 190만마리분에 불과해 소 일제 접종(283만마리)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 사육 돼지는 약 1100만마리에 달한다. 돼지에 접종할 A형 백신을 급하게 구해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불안한 자영업자들

구제역이 돼지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삼겹살집 등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영업 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껍데기 곱창 등 돼지고기 부속물을 파는 이모씨(65)는 "오래 거래한 서울의 유명 식당들도 손님이 끊겼다며 속속 문을 닫고 있다"며 "가뜩이나 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데 전염병까지 돌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했다.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은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한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6일 ㎏당 7만5905원에서 10일 7만8294원으로 나흘 만에 약 2400원 뛰었다.

사정이 이렇자 도매시장에선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30년째 마장동에서 한우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정모씨(54)는 "구제역이 계속 퍼져서 도축장이 폐쇄되기라도 하면 물량이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유통업체 사이에서는 한우를 미리 구입하려는 눈치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찾은 주부 서선희 씨(43)는 "닭에 이어 소까지 감염병이 퍼지니 식탁에 뭘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체 감염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76도에서 7초만 가열하면 모두 죽는다.

구은서/오형주 기자 koo@hankyung.com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물 유통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12일 서울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종일 한산한 모습이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충북 보은서 구제역 감염 소 추가
연천에선 7년 만에 'A형 구제역'

돼지고기는 90%가 국내산인데
1100만마리 백신 안 맞아 '비상'

23.0 X 17.2 cm

머니투데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전국 5번째 구제역 확진… 방역당국 '패닉'

〈충북 보은〉

이동제한 방역대 내 추가… 전국 확산 우려
항체형성률 87.5%에도 발생 '물백신' 논란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또 다시 구제역이 터졌다. 올들어 다섯 번째, 충북에서만 세 번째다. 이미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지역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잇따라 발견돼 방역당국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동제한 내린 방역대 내 구제역 추가 확진=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 한우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O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농가와 같은 유형이다.

두 농가간 거리가 460m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바이러스가 이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충북 보은에선 지난 5일 마로면 관기리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나흘 뒤인 9일 1.3㎞ 떨어진 탄부면 구암리에서 두 번째 구제역이 확진됐다. 이어 이날 마로면 송현리에서 또 확진판정을 받는 등 1주일새 반경 1.3㎞ 안에서 3차례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구제역 확산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11개 농장, 695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을 포함해 전국 16개 농장에서 1196마리를 살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동제한 중인 방역대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항체형성률' 기준치 이상 농가도 구제역 확진=정부가 백신의 효능을 맹신한 나머지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역의 경우 AI(조류인플루엔자)와 달리 백신이 있는 만큼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초기단계에서 긴급처방으로 백신접종 카드를 꺼낸 이유다. 전국 모든 소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추진해 면역력을 확보하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대전의 한 한우농가에서 축산농민이 사료를 주며 소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전=뉴스1

하지만 일선 농가에선 구제역 백신의 효능을 의심한다. 항체형성률 90%인 경기 연천과 100%를 보인 충북 보은의 2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서다. 다섯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는 충북도가 최근 실시한 항체검사에서 87.5%(기준치 80%)의 항체형성률을 보여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물백신'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지난 10일엔 항체형성률 100%를 보인 농가에서도 의심증상 소가 나왔다.

항체형성률 조사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지금까지는 100마리 중 10마리만 조사하더라도 10마리 모두에서 항체가 나오면서 항체형성률 100%가 되는 구조다. 나머지 90마리의 항체 형성 여부는 알 수 없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수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열린 구제역 확산방지대책회의에서 물량 부족상태인 'O+A'형 백신 160만마리분과 'O'형 백신 320만마리분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소에 접종하는 백신(O+A백신)이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

23.5 X 16.4 cm

파이낸셜 뉴스
2017년 02월 13일 (월)
09면 종합

충북 보은서 5번째 구제역 확진

살처분 소 1천마리 넘어

충북 보은군 마로·탄부면 일대 반경 1.5㎞ 거리에서 엿새 만에 3건의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근 농장주들 사이에 구제역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보은군 마로면 송현리의 한우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이번에 첫 확진 판정이 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46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9일 2차 구제역이 발생한 탄부면 구암리의 한우농장과도 1.5㎞ 남짓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전날 방역대 내 농장을 예찰하는 과정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68마리 중 6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O형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농장은 구제역 발생 이후 이뤄진 긴급 항체 형성률 일제 조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87.5%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역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데다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구제역 가운데 3건이 집중됐다. 더구나 101개 농가가 소 9100여마리를 키우고 있고 돼지 사육도 3400여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단지라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장들은 밀집사육을 하기 때문에 가축 전염병이 돌면 피해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탓에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보은읍 마로면 송현리 한우농장에서 혀에 허물이 벗겨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등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소 6마리를 발견, 도살 처분했다. 의심 소가 발생한 송현리는 이날 마을회관까지 폐쇄한 상태다.

충북도는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의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이어 농식품부가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리자 이미 살처분한 6마리 외에 나머지 키우던 62마리도 추가 살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확진 건수는 충북 보은 3건, 전북 정읍 1건, 경기 연천 1건 등 총 5건으로 늘었으며, 살처분 마릿수도 1000마리를 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보은 첫 발생농장 반경 1.5㎞ 안에서 3건의 확진 판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이 지역에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보은 지역은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보고 농장 단위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같은 지역 내에서 최초 발생 외에 두 번째 발생농장부터는 의심축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김원준 기자

9.6 X 20.2 cm

파이낸셜 뉴스
2017년 02월 13일 (월)
27면 전국

'K-뷰티 엑스포' 中·태국·베트남·한국 등서 개최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케이뷰티 엑스포(K-BEAUTY EXPO)'를 4월부터 중국, 태국, 베트남, 한국 등 4개국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뷰티 엑스포'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인 뷰티분야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뷰티전문 전시회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케이뷰티 엑스포 방콕' 행사에서는 10개국의 유력바이어 2500여명을 비롯해 1만3000여명이 전시장을 찾았고 1억830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액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

경기도, 시장판로개척 지원
올해 첫 박람회는 中서 열려

됐다.

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규모를 더욱 확장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칭다오,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등 아시아 4개국 주요 도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첫번째 박람회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국 내륙 물류·유통 거점인 쓰촨성 칭다오시의 '세기성 신국제회전중심(CCN ICEC)'에서 열린다.

이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주목받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 '사이공 전시 컨벤션센터(SECC)'에서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뷰티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인 방콕의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지막 박람회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도는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케이뷰티 엑스포 청두 2017(K-BEAUTY EXPO CHENGDU 2017)'에 참가할 도내 유망 뷰티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중국 3대 미용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청두 뷰티 엑스포(Chengdu Beuty Expo) 2017'과 동시에 열려 많은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자격은 경기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뷰티분야 기업 40여 곳으로, 주 전시 품목은 화장품, 헤어, 네일, 미용도구, 바디케어, 이너뷰티, 향수, 피트닛, 스마트뷰티기계, 의료서비스 등이다.

참가 기업에는 참가비, 통역원, 한국인의 밤 행사 무료 참가, 셔틀버스 무료운행, 20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방법은 오는 20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참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엑스포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20.1 X 10.9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A면 종합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눈망울 2010년 이후 경기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피해보상비와 살처분 비용 등이 1조원이 넘었지만,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한우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도 방역, 1조원 삼킨 '밑빠진 독'

이슈추적 되풀이되는 구제역 근본대책 없나

2010년이후 모두 4차례 창궐
피해 컸을 때 9047억원 소요
일부 잘못된 백신 접종·회피
백신 맹신 차단방역 구멍 한몫

지난 2010년 이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 등 우제류 살처분과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비용은 경기도에서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방역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매년 사회적 비용을 들여 가축을 묻고 백신을 접종해도 구제역은 잡초처럼 다시 자라나 엄청난 전염력으로 수풀을 이루면서, 근본적인 억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3·6면

12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도내에서는 이번 연천 구제역 사태 이전까지 모두 4차례 구제역이 창궐했다. 피해가 가장 컸던 때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에 이어 발생한 구제역이다. 당시 도내 2천390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174만2천694두가 살처분 됐다. 당시 재정소요액만 무려 9천47억원에 달한다.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에도 지난 2015년 67억원, 지난해에는 88억원이 소요됐다(표 참조). 올해 구제역도 1주일새 충북 보은과 연천 등 4곳서 발생해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충북에선 O형, 연천에선 A형 구제역이 발생해 '끼인 신세'에 놓인 경기지역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은 이중으로 커졌다.

최근 2년간 구제역 예방백신 예산

		2015년	2016년
구제역 예방 주사 예산 (국비+지방비)	전국	356억원	529억원
	경기도	56억원	77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영세농 지원)	전국	120억원	120억원
	경기도	11억원	11억원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구제역 발생 및 재정 소요액 현황

	발생기간	발생	살처분	재정 소요액
2010년 1월	1월 2~29일	6건	55농가 5,956두	383억원
2010년 4월	4월 19일	1건	10농가 425두	829억원
2010년 12월~2011년	12월 14일~3월 21일	23건	2,390농가 1,742,694두	9,047억원
2014년 12월~2015년	12월 29일~4월 21일	56건	58농가 42,616두	138억원

제공/경기도

지난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정부는 우제류에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잘못된 접종 방식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회피 등이 겹쳐 구제역 발생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구제역 백신은 소 기준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과 그 이하의 영세농으로 나눠 접종이 진행된다. 영세농은 수의사 등 접종을 위한 전문인력이 지원되지만, 전업농 농가는 자체적으로 이뤄진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백신접종과 관련해 젖소 농가는 우유 생산량 감소를 걱정하고 임신한 소의 사산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며 "백신 접종은 예외 없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차단방역도 평소 신경써야 한다. 실제 이번 연천 구제역의 경우 높은 항체 형성률에서 발병이 이뤄져 방역상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에만 맹신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친환경 축산 등 축산환경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축산 개념을 도입해 무항생제 축산은 물론, 밀식사육을 자제해 구제역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강기정·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

25.2 X 25.1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A면 종합

화성시·안산시 "군공항 거부"
국방부 이전강행에 공개대응

"의견 없으면 반대 없는 것"
최후통첩에 따라 기조 바꿔

"희망 지자체 있어야 가능"
무대응 일관해오다 첫 표명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계획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견을 내지 않으면 반대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하겠다는 국방부의 최후통첩(경인일보 2월7일자 1면 보도)에 따라 공개적인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화성시·안산시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화성시·안산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제외' 등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지난 10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은 관련법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진행되는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양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다.

화성시와 안산시가 국방부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찬·반 여론이 조성되고 국방부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은 시민을 고통과 위기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화성시·안산시 등 6개 지자체의 9개 후보지를 두고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 등을 진행해 최적의 후보지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9.9 X 20.5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11세 이하 50만이상 줄어

<수도권>

어린이집 숫자도 '내리막'

9년 사이 326만 ➡ 272만명

총인구대비 비율 10% 초반

감소세 심각 관련산업 우려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숫자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인일보DB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 9년간 수도권의 11세 이하 어린이 숫자가 5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던 어린이집 숫자도 감소세로 전환, 어린이 관련 산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서울·경기·인천 어린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11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272만3천143명으로 조사됐다. 9년 전인 2007년의 326만7천368명보다 54만4천225명이나 줄어든 숫자다.

같은 기간 경기도(169만6천369명→149만3천799명)와 인천(36만6천959명→ 32만414명)의 어린이 인구도 각각 20만2천570명과 4만6천545명 줄어들었다.

총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어린이 인구가 이처럼 줄어들면서 총인구에서 11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총인구 대비 11세 이하 비율이 2007년 13.6%에서 지난해 10.6%로 3.0%포인트나 떨어졌다. 인천의 11세 이하 비율도 2007년 13.8%에서 지난해 10.9%(-2.9%)로 낮아졌다.

젊은 인구가 많아 어린이 구성비가 높은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7년 15.3%였던 11세 이하 비율이 지난해에 11.7%(-3.6%p)까지 떨어졌다.

어린이 인구의 꾸준한 감소는 결국 어린이집 감소로 이어졌다.

경기도 어린이집 숫자는 지난 2006년 7천864개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3년 1만3천364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1만3천259개로 증가세가 꺾였다. 2015년에는 1만2천689개로 줄었다.

인천은 2014년에 2천308개로 정점을 찍고 2015년에 2천278개로 감소했다.

한편 한자녀 가정 확대와 남아선호 위축으로 수도권 어린이 성비(여아 100명 대비 남아수)는 지난해 105.4명을 기록, 2007년 107.6명보다 2.2명이 줄어들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2기 연정실행위 첫 의제는 '청년구직 지원금 확대'

강득구 부지사 등 내일 회의
대상 1200명으로 확대 검토

경기도 2기 연정 실행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연정과제 추진방향과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회의에는 강득구 연정부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새누리당 대표의원,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등 13명의 연정실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행위는 우선 올해 연정 합의 과제인 '청년 구직 지원금 제도' 확대·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만 18~34세, 중위소득 80%이하 미취업 청년들이다. 회의에서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1천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또 경기연정을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평가하는 모니터링 사업의 기간과 평가 대상 등을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연정실행위원회 회의에서 보완이 요구됐던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 '재정전략회의'와 '인구정책조정회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밖에 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와 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방안 등 도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15.1 X 7.8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백신 못맞은 돼지 수백만마리 'A형 구제역 무방비'

<O+A 혼합백신>

소 우선접종 돼지엔 A형 항체없어

도내 사육두수 '소 4배' 198만여마리

감염시 바이러스 배출 1천배 많아

전염성 커 '대형피해' 불안감 증가



'구제역 비상' 텅 빈 가축시장 구제역 위기경보가 최고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가축시장이 일시 폐쇄된 가운데 12일 안성축협 가축시장이 텅 비어있다. 우제류 가축시장은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연천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도 축산농가들이 12일까지 소·돼지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부랴부랴 완료했지만, 소보다 사육두수가 4배 이상 많은 돼지에는 정작 A형 구제역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O+A 혼합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면서 돼지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2개로 갈라진 가축)는 246만마리다. 이 중 소는 농가 1만2천192곳에서 45만4천여마리를 기르고 있고, 돼지는 농가 1천321곳에서 198만7천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돼지 사육두수가 소보다 4배 이상 많지만, 이날까지 정부 등이 배부한 O+A 혼합백신은 소 사육농가에 집중됐다. A형 구제역이 지난 2010년 1월 연천·포천에서 발생한 후 7년 만에 다시 발병해 보유 중이었던 O+A 혼합백신 수가 턱없이 부족했던데다 2010년 1월과 이번 사례 모두 소에게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소가 우선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로부터 O+A 혼합백신을 배부받은 북부지역은 물론, 남부지역에서도 시·군이 갖고 있던 소량의 혼합백신을 모두 소에게 접종했다. 돼지에게는 O형 백신을 접종했다. 앞서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 이뤄지는 정기 백신접종 때도 소에겐 대부분 O+A 혼합백신이 접종됐지만 돼지에겐 O형 백신이 접종됐다. 적어도 돼지는 현재 A형 구제역에 대한 항체가 형성돼있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돼지가 A형 구제역에 감염될까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소에 비해 돼지는 한 농가당 기르는 사육두수가 많고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양도 소보다 최대 1천배가량 많아 더 빠른 속도로 피해가 번지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아직 돼지가 A형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발생한 25건의 A형 구제역 중 3건이 돼지에서 발생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돼지가 A형 구제역에 걸리면 어쩌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2일 수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대책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O+A 혼합백신 160만마리 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돼지가 A형 구제역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지역 시·군들은 12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 8일 연천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O형 백신을 부랴부랴 접종했던 북부지역에선 지난 9일 A형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자 소에 스트레스 완화제까지 함께 투여하며 O+A 혼합백신을 보강 접종했다. 연천에선 군 제독차량마저 투입됐다. O형 백신을 배부받은 용인과 평택·안성 등 남부지역에서도 자자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던 O+A 혼합백신까지 동원해 소·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끝냈다.

/윤재준·오연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9.5 X 20.3 cm

경인일보

도의회 "道 산하기관 먼저 비정규직 해소" 압박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정 의장, 23개 기관 대표들과 간담회 '정규직 전환 업무협약' 제안나서

"道가 예산·인사권 가져 결정 한계" 기관별 반응 달라… 상당수 '난색'

경기도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직업상담사들조차 대부분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이라는 '모순'(**경인일보 2월6일자 3면 보도**)을 타파하자며 경기도의회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명시한 업무협약을 제안, 산하기관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상당수 기관에선 난색을 표하며 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도의회 정기열(민·안양4)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23개 도 산하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한 민선 6기 경기도가 일자리재단을 출범하는 등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2천147명에 이르고 있어 산하기관에서부터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다. 도·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8월 도·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2기 연정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에 산하기관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비정규직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을 할 경우 동일한 임금·처우를 보장토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는 게 정 의장 제안의 골자다. 이날 간담회엔 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산하기관들의 반응은 기관 특성에 따라 엇갈렸다. 경기도시공사 등 도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낮은 기관은 대체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힌 반면, 의존도가 높은 상당수 기관에선 "경기도에서 사실상 예산·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산하기관만 압박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며 난감해했다.

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은 "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고 대표들도 임기가 제각각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을 좀 차근차근 밟아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했으면 한다"고 역제안했다. "동참하기 어려운 기관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몇개 기관이라도 시작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정 의장이 업무협약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자 기관들의 고민은 깊어지는 추세다.

한 기관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도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 살림하는 기관에선 스스로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 입장을 마냥 무시하긴 어렵지 않겠나. 산하기관 입장에선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예산 추가 반영과 시스템 개선 등을 남경필 도지사와도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9.5 X 9.3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4면 정치

"대한민국 안위 위협 용납 못한다"

북한 '미사일 기습 도발' 여야·대선주자 한 목소리

새누리당 "정부 국민안전 철저히"
민주당 "평화 원한다면 대화해야"
바른정당 "정치권 안보유지 협력"
국민의당 "김정은 스스로 命재촉"
원유철 "한국형 핵무장 다시 제안"
문재인 "김정은의 앞날 예측 못해"
남경필 "道, 비상대비상황실 가동"
손학규 "韓美 대화·협상 위기해소"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기습 도발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이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발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북한의 각종 도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권 모두 정파적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이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에 또 다시 불장난을 해제 명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세우고 중국, 일본과의 대북공조를 복원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도 북한의 도발에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트리거 선언'을 제안했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형 핵무장'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게다가 한국의 최근 정치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도발을 하는지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SNS에서 "정부는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안보 위기 상황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즉각 비상대비상황실을 가동했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철저한 국방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미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질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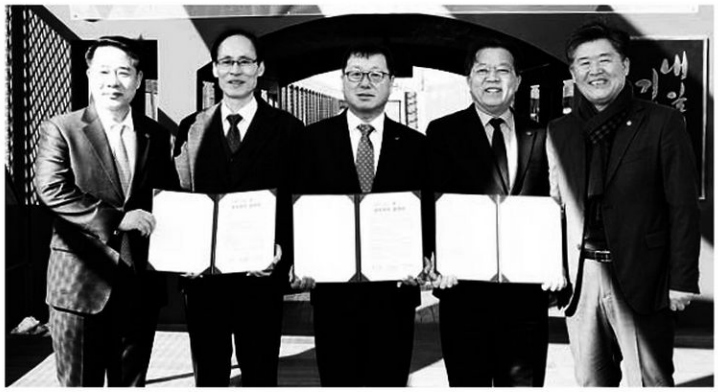
23.6 X 14.2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5면 지역

파주와 연천, 관광으로 잇는다

경기관광공사와 '3자 협약'
민통선내 연결 등 상품개발
공동 마케팅·네트워크 구축



경기관광공사 홍승표(우측 두 번째) 사장과 김준태(가운데) 파주 부시장, 정의돌(좌측 두 번째) 연천 부군수, 한길용(좌측)·김광철(우측) 도의원이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해마루촌과 연천군이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등 민통선 북방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파주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연천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파주·연천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공동추진과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파주시는 최근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관광 마케팅 추진을 위해 관광과를 신설,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파주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면서 3년 동안 안정적인 국비지원으로 체계적인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시설 환경개선 등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준태 파주 부시장은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와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양 도시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15.6 X 17.0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6면 경제

구제역 직후 대량 도축, 불안한 소비자

첫 확진 7일 4211마리 등급 판정 설연휴 직전 수준 '이례적'

이동·반출 금지 우려 농가 조기출하 분석… 국산매출 감소

구제역 확산으로 소고기와 우유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첫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전국 도축장에서 4천 마리가 넘는 소가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법에 근거해 도축 24시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받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6~7일 무더기 도축이 이뤄진 셈이다.

구제역에 걸린 소고기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소비자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돼 등급판정을 받은 소(한우·육우·젖소)는 지난 6일 979마리, 7일 4천211마리, 8일 2천230마리, 9일 3천600마리, 10일 2천808마리 등으로 집계됐다.

7일 이후 등급판정을 받은 수는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연휴 직전(지난달 23일 3천70마리, 24일 4천321마리, 25일 2천385마리)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특별한 추가 수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7일 등급판정 수는 이례적이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등을 우려한 축산 농가의 조기출하와 금요일 도축 기피에 따른 도축 수요증가 등이 겹치면서 월요일인 6일 소 도축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구제역이 발생한 곳에서 도축이 많이 이뤄졌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충북 1천608마리, 경기 2천159마리 소가 도축돼 등급판정을 받았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구제역에 걸린 소고기도 76도 이상에서 7분간 가열하면 바이러스가 파괴돼 안전하다고 설명하지만, 이 같은 무더기 도축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발생 이후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국산 소고기 매출은 19%가량 줄었지만, 수입 매출은 5~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나 반출금지가 해제될 때까지는 가축시장 등을 운영하지 않아 구제역이 처음 확진되자 일부 농가가 소를 조기 출하했다"며 "육회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정부 설명대로 구제역은 사람에게 옮는 병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20.1 X 11.4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스포츠

올해도 휘몰아친 다관왕·신기록… 경기도 '16연패' 강타



도전자들 물리치고 'V'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12일 폐막한 가운데 경기도 선수들이 16년 연속 우승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동계체전 '최다우승 타이'

금 86·은 72·동 86개 고른 활약

빙속 4관왕 김민석 '대회 MVP'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16연패(2002~2017)를 달성했다. 서울의 최다연속우승과 타이 기록이다. 도 선수단은 12일 평창에서 막을 내린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86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86개로 종합 점수 1천251점을 획득했다. 2위인 서울은 1천37.5점, 3위 강원은 931점을 기록했다. | 표 참조

경기도는 시범종목인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을 제외한 정식종목인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4관왕에 오른 김민석(평촌고, 빙상 스피드 남자고등부)은 대회MVP를 수상했다.

특히 다관왕 부문에서는 김민석을 비롯 빙상 스피드 여자고등부 박지우(의정부여고), 남자 일반부 이인복(포천시청)도 4관왕에 올랐으며 빙상 스피드, 빙상 쇼트트랙, 스키 알파인에서 각 4명의 3관왕을 배출하는 등 2관왕 12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금메달이 쏟아졌는데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초부 9㎞ 계주에 출전한 김하빈·전찬유·조성현(이상 일동초)가 34분55초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여고부 18㎞ 계주 김민경·임효진·아베마리야(이상 일동고), 스키(크로스컨트리) 남중부 20㎞ 계주 김태훈·김한주·윤병현·정재연(세교중, 영덕중)도 각각 금메달을 신고했다.

경기도는 대회신기록 경신에도 성과를 보여 김민석(평촌고) 빙상스피드 남고부 5천m와 1천500m, 차민규(동두천시청) 빙상스피드 남일부 1천m와 500m 등 빙상종목에서 대회신기록 8개를 갈아치웠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최종순위

순위	시도	득 점	금	은	동
1	경기	1,251	86	72	86
2	서울	1,037.5	50	61	47
3	강원	931	56	50	52
4	전북	547	20	19	20
5	부산	471.5	8	11	8
6	대구	395	6	8	10
7	경북	361	6	4	6
8	인천	260.5	5	6	3
9	전남	239	5	6	3
10	충북	230	3	1	4
11	광주	219.5	1	1	0
12	경남	193	3	1	1
13	충남	150	10	9	5
14	대전	125	1	2	4
15	울산	89	0	4	4
16	제주	20	1	1	0
17	세종	13	0	0	0

34.9 X 26.3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스포츠

"종목 평준화… 비인기종목 창단 준비"

최규진 경기도 총감독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올림픽에서도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내겠다."

12일 폐막한 제98회 전국동계체전에서 '종합우승 16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하며 서울과 타이를 기록한 경기도 최규진(도체육회 사무처장·사진) 총감독의 일성이다. 최 총감독은 "제67회 대회부터 종합채점 및 성적이 도입되고 역대 타이 기록인 16연패를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체육응도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선수 배출에 노력하겠다"며 "경기체육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민들께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빙상종목의 경우, 14연패를 달성했지만 예년에 비해 많이 고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빙상 스피드를 제외한 쇼트트랙과 피겨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며 "우리 또한 종목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선수관리 등 전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동계 비인기 종목 팀창단을 계획하고 있다"고 깜짝 발표하며 "도내 선수가 평창에서도 입상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동계종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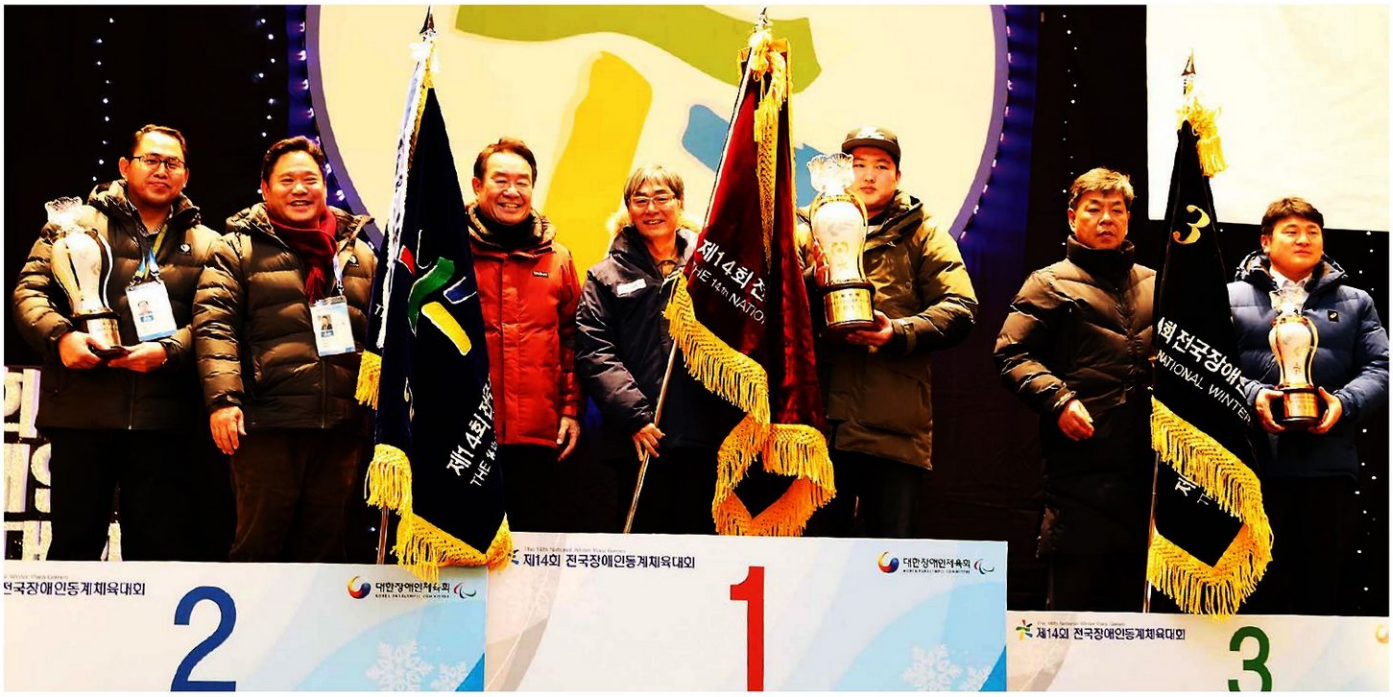
/경기도체육회 제공

17.2 X 7.3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5면 스포츠

경기 '1등 같은 2등' 인천 '금쪽같은 5등'



지난 10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울(가운데), 2위 경기도(왼쪽), 3위 강원도(오른쪽) 대표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경기도, 장애인동계체육대회 '2연패 도전 실패'

금 20·은 15·동 5개 총득점 밀려
이진호·박시우등 8명 2관왕 쾌거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가 메달 수는 서울에 크게 앞섰지만 총 득점에서 아깝게 뒤져 2위로 대회를 마감, 2연패 달성에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도는 지난 7~10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장애인동계체전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5개를 따내며 종합 점수 1만9천906.4점을 획득, 서울(2만893점, 금 14·은 9·동 14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강원도(1만5천404.4점, 금 8·은 6·동 3개)가 이름을 올렸다. 메달 수만 놓고 보면 서울에 앞섰지만 참가점수(장애인/비장애인 참가선수수)에 종목별 득점을 더해 계산하는 총득점에서 근소한 차로 뒤졌다. | 표 참조

세부종목을 보면 빙상이 종목점수 3천966점(금 9, 은 8, 동 1개)으로 1위를 차지해 선전했으며, 알파인스키 4천997.6점(금 5, 은 5, 동 4개)과 휠체어컬링 4천445점(은 1개)으로 나란히 종목 2위, 크로스컨트리스키(3천399점) 3위, 스노보드(367점)는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도는 8명의 2관왕(빙상 3명, 알파인스키 2명, 크로스컨트리 3명)을 배출했다. 빙상에선 작년에 이어 고병욱(의정부시)이 동호인부 빙상 남자 1천m 청각장애 결승에서 1분44초85로 우승해 500m에 이어 금 2개를 목에 걸었고, 이진호(수원시)는 동호인 청년부 지적장애 남자 1천m에서 1분39초20으로 우승, 500m와 함께 2관왕에 올랐다.

동호인 소년부 지적장애 종목에 출전한 박시우(의정부시)도 1천m와 500m에서 각각 우승하며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스키에선 김홍빈(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과 황민규-유재형(비장애·남양주시)이 나란히 금메달 2개씩을 따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제14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최종순위

순위	시도	득 점	금	은	동
1	서울	20,893.0	14	9	14
2	경기	19,906.4	20	15	5
3	강원	15,404.4	8	6	3
4	부산	8,939.0	1	1	4
5	인천	8,812.8	0	6	4
6	충북	5,757.4	0	2	8
7	충남	4,936.2	0	0	3
8	전남	4,677.4	0	3	2
9	전북	3,834.6	2	1	0
10	광주	3,621.8	5	2	4
11	경남	3,356.0	0	0	0
12	경북	3,157.0	0	1	6
13	울산	3,072.0	5	4	1
14	대전	3,047.0	0	0	0
15	대구	2,431.2	0	1	1
16	제주	1,658.0	0	2	0
17	세종	913.0	0	2	0

23.5 X 24.3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수도권

"400년 역사 해동화 놀이 지켜내야"

<광주시 마을행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관광자원화 요구 여론 높아

지역 13개 부락 전승… 도시화 빨라 단절가능성 우려

광주시 마을 행사로 40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해동화 놀이'에 대해 최소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통 민속놀이의 전승 유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 관광자원화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시와 광주문화원 등에 따르면 관내 16개 지역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민속 중 13개 부락(리 단위) 에서 동화 또는 해동화 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해동화 놀이는 볏짚단과 참나무와 느티나무 등으로 만든 해동(解洞, 일명 달집)을 태워 액운을 날린다는 뜻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리는 광주지역에 전승되어온 독특한 부락 단위의 신앙적 문화다.

이 가운데 광지원리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놀이의 경우 1605년 조선 선조 38년에 시작돼 4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입소문을 타고 매년 수백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민속놀이로 인정받고 있다.

그만큼 이 놀이문화는 전승지로 광주지역이 유일하고 타 지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규모나 내용 면에서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문화재 지정이 안돼 마을 주민들이나 즐기는 행사로 전통놀이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문화원이 민속학 전문가에게 의뢰 발간한 '놀이의 전승 양상과 활용방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동화놀이의 전승단절 가능성 시사는 물론,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 유지 제안과 함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전국 유사 놀이인 정산 동화제(청양군 정산면·충남 무형문화재 제9호)와 승주 달집태우기(전남 순천 송산마을·전남 무형문화재 제24호) 등 타 광역지자체 문화재에 버금갈 정도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시급한 무형문화재 지정은 물론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라도 최소 도단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범재 광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마을로만 40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해동화 놀이의 전통성에 비해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또다른 지역 대표 민속문화인 장승제와 더불어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00년째 이어져 내려온 광주시 해동화놀이에 대해 무형문화재 지정 등 재발견 여론이 높다. /광주시 제공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 X 18.6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수도권

섬유 중기+디자이너 '윈윈' 콜라보

道·양주시, 세계 패션시장 개척 지원… 창작등 협업 '상생'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양주시의 가죽 원단 생산업체들이 국내 유망 신진 패션디자이너들과 손잡고 '글로벌 패션 아이템' 제작에 나선다.

경기도와 양주시가 조성하고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운영 중인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GFCS·양주시 산북동)'는 올해 가죽 원단을 생산하는 양주지역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패션상품을 제작, 세계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GFCS는 실력과 가능성을 지닌 신인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인큐베이터'로 설립돼 현재 20명의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재정,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가죽 원단 업체와 협업은 올해 초부터 진행돼 디자이너와 기업이 일대일 매칭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이 원단을 제공하고 디자이너가 이 원단으로 시즌별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 국내외 패션시장에 선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단 이외 새로운 비즈니스와 판로를 개척하고 디자이너는 창작품의 상품화 기회를 얻는 이점이 있다.

이번 협업에 참여하는 (주)와이엠테크 소재현 부사장은 "이탈리아 최고급 원단 못지 않은 순수국내 개발 원단을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이 접목돼 상품화해야 한다"며 "이번 협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인 디자이너와 섬유 중소기업의 협업은 다음 달 중순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패션박람회(CHIC)에서 상품성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에 오른다. 이어서 국내 유명 패션 전시회와 백화점 '팝업 스토어(Pop-up Store)' 등을 통해 협업 제품들이 잇달아 소개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15.1 X 10.9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수도권

킨텍스,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사전설명회

킨텍스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7 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이하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가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청장·정양호)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는 이상윤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과 장세용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장,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가하는 272개 기업 중 1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자리해 올해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대변했다.

조달청은 전시회 개요, 부스 디스플레이 및 운영 방법, 국내외 바이어 유치방안, 신제품 발표회 등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국내 기업의 다양한 공공조달 관련 상품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15.1 X 5.2 cm

경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수도권



(사)경기산학융합본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시화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등 학생 100여 명이 참가한 고교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사)경기산학융합본부 제공

경기산학융합본부 인턴십
고교생에 아두이노등 교육

(사)경기산학융합본부(원장·양해정, 이하 본부)가 경기도와 시흥시의 후원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인 고교생 인턴십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산학융합지구 성과 활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교생 인턴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화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등 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3D프린팅 교육과 아두이노, 드론, SolidWorks, PLC제어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요가 많지만 고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에 참여해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본부가 지원해줌에 따라 학생·기업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10.0 X 13.4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반쪽짜리 '더하기 프로젝트' 1년만에 중단

〈道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단순업무로 청년층 참여 저조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경기도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가 추진 1년 만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노동업무에 불과한 일자리로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인데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더하기 프로젝트는 연령에 관계없이 복지급여 탈락자·차상위계층을 초등학교 교통지도와 순찰을 담당하는 안전 지킴이로 배치하고 월 4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프로젝트는 1년을 넘지 못했다.

당초 도는 청년과 중장년층,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노인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357명 중 80대 이상이 45명, 70대 167명, 60대 100명이었으며 50대는 30명, 40대 12명, 30대 이하 3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년·중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60대 이상이 312명(87%)을 차지하자 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했다. 결국 노인의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업무는 각 시·군에 속한 일자리 지원센터로 이관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도는 단순 노동업무와 적은 월급에 젊은 층의 참여율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면서 졸속행정을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시작한 일자리 사업인 만큼 교통지도 등 단순업무가 아닌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분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노동시장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업무에 쏠려 있다"면서 "젊은 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정책 내실화를 위한 신중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업무가 아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더하기 프로젝트는 중단됐지만 연령대에 따라 고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17.2 X 12.8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남경필 지사 "사드, 한반도 배치 적극 찬성"

성난 중국… '공무원 교류연수' 보이콧?

경기도, 랴오닝성·허베이성 등 5개 자매지역과 연수 프로그램
남지사 소신 발언… 관계 급랭
작년 발길 뚝… 올해도 먹구름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연수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드 배치를 적극 찬성한 뒤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 연수가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중국 랴오닝성·광둥성·산둥성·허베이성·장쑤성 등 5개 자매지역과 '한·중 공무원 교류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제도, 경제발전정책, 수도권정책 등의 특강을 통해 양국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매지역 간 우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난 2014년에는 중국 광둥성·허베이성·산둥성 소속 공무원 50명이 연수에 참여했고, 2015년에는 모든 자매지역에서 총 77명의 중국 공무원이 경기도를 찾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한국과 미국의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 시작된 이후 중국 공무원의 연수 참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는 산둥성과 광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을 대상으로 4개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도를 방문한 곳은 산둥성 단 한 곳이었다. 참석자 역시 1년 전보다 63명이나 감소한 14명에 불과하면서 사드 배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드배치에 적극 찬성하면서 올해 계획된 5개 연수프로그램 추진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시 남 지사는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발언 직후 중국 측에서 돌연 면담을 취소하는 등 중국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나 가뭄 등 중국 내부 사정으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 문제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요소를 배제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23.0 X 11.2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中企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道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13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와 CJ헬로비전이 청년의 취업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체결한 '도정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도는 신청 기업 중 10곳을 선정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제품의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을 제작해 제공한다. 단, 홍보 동영상 제작비 중 일부(음향저작권, 시나리오 작가) 100만 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의도와 방향을 반영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원한다. 특히 북부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제작된 기업소개 동영상을 무상으로 케이블TV(CJ헬로비전)를 통해 방영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자사의 제품·서비스 영상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을 원하는 업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경기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철상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가의 동영상 제작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웠던 도내 중소기업에게 영상홍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제품 판로 개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5.6 X 19.5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간담회'가 열린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열 도의회 의장과 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장 등이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道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암초

경기도의회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본보 7일자 1면) 가운데 일부 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도의회 제안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화' 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0일 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경기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의회와 도, 산하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차별 개선 위한 간담회'
일부 기관장 '정원↑' 난색 표명

도의회는 '(가칭)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약서(MOU)'를 체결, 비정규직 중 가장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직접고용에 따른 정원 증대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MOU 체결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프로젝트, 수탁사업 등 일시 업무가 많아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기관은 직접고용 시 향후 고용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MOU는 민간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부문에서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에 앞서 나가자는 취지"라며 "기관마다 상황이나 특성이 제각각인 만큼 MOU체결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17.2 X 19.4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소비위축에 구제역까지… 엎친데 덮친 농가 깊은 한숨

화훼농가, 성수기에도 매출 부진
병아리값 급등 양계농가는 울상
벼농사 우선지급금 환수로 한숨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악화에다 김영란법, AI 발생, 쌀값 하락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농가들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화훼농가는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쌀 생산농가들은 우선 지급금 환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양계농가들은 AI의 영향으로 상당수가 농장 운영을 접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AI와 구제역이 연달아 발생, 수급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내산 닭고기와 소고기 값이 올라 수입산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업 및 농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고양 화훼농 등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화훼농가들은 2월 졸업시즌 꽃 소비 성수기에도 불구, 소비위축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에서 5천280㎡ 규모로 장미를 재배하는 K씨(66) 농가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약 20% 떨어졌다. K씨는 "겨울에 장미를 키우려면 난방비만 한 달에 820만 원 넘게 드는데, 장미를 재배해 벌이를 계속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이정백 한국화원협회 경기지회장은 "졸업식에서 3만 원짜리 꽃다발보단 2만 원짜리를 사는 등 간소화됐다"며 "생화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시행 영향에 소비 침체까지 겹친 탓에 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벼 재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 경영이 어려운데 정부에 환수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평택에서 6만6천㎡ 면적의 벼농사를 짓는 S씨(62)는 "지난해보다 농사는 더 잘 됐는데 쌀값 하락으로 오히려 수입은 10% 넘게 줄었다"면서 "농기계 값이나 기름 값 등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쌀값은 폭락하고 여기다 최근엔 정부에 우선지급금을 토해내야 할 판"이라며 하소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 지급금 중 일부를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쌀 수입 확대로 재고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가 쌀값 폭락을 일으킨데다 우선 지급금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양계농가도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산란종계가 대량 살처분 되면서 병아리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이다. 포천에서 산란계 농가를 운영하는 P씨(57)는 "산란계의 대량 살처분으로 병아리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한 마리에 950원 정도였던 병아리가 2배 이상 치솟아 앞으로 닭을 키울 수 있을지 깜깜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광주채란지부 관계자는 "차량이나 가축의 이동이 통제되는 방역대가 풀려야 병아리를 사든가 하는데 현재 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수급 불균형으로 닭고기와 소고기 값이 상승하고 있다. 자칫 구제역이 양돈까지 파급될 경우 돼지고기 값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증하듯 현재, 10일 현재, 한우 등심 평균 소비자가격이 1kg에 7만8천294원으로, 닭고기 또한 중품 1kg이 5천531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선엽기자

34.7 X 9.8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못 믿을 구제역 백신

연천 젖소농장 항체율 90%에도 발병
정부, O+A형 160만마리분 수입키로

O형 바이러스에 김염된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과 달리 연천 젖소농장은 A형 감염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도 방역당국이 초긴장(본보 10일자 1면)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당 농가의 A형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90%에 달했음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만으로 구제역을 100%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까지 'O+A'형 백신 160만 마리 분을 수입키로 했다.

12일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A형은 90%, O형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이 연천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21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 O형은 11마리에 항체가 형성됐다.

항체 형성률이 낮았던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가(19%)나 전북 정읍 발생농가(5%)와 달리 연천은 비교적 높은 항체 형성률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것이다. 연천 젖소농장은 항체 형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A형'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보은과 정읍 발생농장 3곳은 모두 'O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백신 접종이 구제역을 100% 막을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 셈이다.

이처럼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완전히 다른 두개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도내 198만 8천여 마리 등 전국 1천 만 마리 규모의 돼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돼지의 경우 'A형'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혀 접종하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상태인 만큼 일단 감염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소보다 최대 1천 배가량 많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수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 회의를 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현재 99만 마리분에 불과한 'O+A'형 백신의 재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O+A'형 백신 160만 마리 분을 수입하고, 현재 852만 마리 분의 재고가 있는 'O'형 백신은 320만 마리분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또 정부는 A형 백신을 긴급 보급하기 위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A형 백신이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후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8~10%의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농장별로 1마리를 골라 항체형성률을 검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농장별 검사 마릿수를 5마리로 늘리기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일형·유병돈기자

11.2 X 19.7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7면 사회

관심 끊긴 도내 공부방… 학생 발길도 '뚝'

유사 중복사업 이유로 국비 중단
예산 반토막나며 줄줄이 문닫아
낙후 시설·불안한 치안에 외면
해마다 이용객 10만명 감소 추세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 10일 시흥시 매화동의 A공부방은 아동·청소년의 이용률이 낮아 공부방 한 곳의 난방이 꺼진채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공부방으로 올라가는 복도와 계단은 조명이 켜지지 않은 채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지난 11일 오후 수원 파장동에 위치한 B공부방도 씹다 버린 껌이 붙어 있고 낙서가 잔뜩 쓰여 있는 낡은 책상 40여 개가 불청결하게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선반이 부서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책상도 한 켠에 버려져 있었다.

경기도청소년공부방이 지난 2010년 국비지원이 중단된 이후 절반 이상 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공부방도 시설 낙후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찾지 않으면서 이용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공공도서관이나 청소년체험학습시설 등이 부족한 도내 농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학습공간제공,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경기도청소년공부방'을 지난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비가 지원된 지난 2010년까지 청소년공부방에 매년 2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내 공부방은 총 131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 유사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비와 시·군비 9억 원 가량만이 공부방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현재 도내 공부방은 48개소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도내 청소년공부방은 수원, 용인, 오산, 양평 등 22개 시·군에 있지만 청소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인 여주, 남양주, 양주 등은 각각 1개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의정부, 파주, 하남, 광주 등 9개 시·군은 공부방이 폐소돼 없어지거나 설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부방의 낙후된 시설과 불안한 치안 등을 이유로 청소년들조차 공부방 가기를 꺼려하면서 이용률도 해가 넘어갈수록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공부방 이용실적은 2014년 50만2천538명, 2015년엔 41만9천642명, 지난해엔 30만1천60명으로 해마다 약 10만 명 가량 감소하는 추세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 농촌, 외곽지역에 공부방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의 안전, 위생에 더욱 신경쓰겠다"며 "이와 더불어 공부방 홍보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22.1 X 11.7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8면 경제

수도권 인구比 어린이 교육시설수 경기지역 '최고'… 도서관은 '최저'



경기도가 수도권지역 가운데 인구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도서관 수는 인천,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수도권지역 어린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3~5세 인구 1천 명당 유치원은 5.8개로 인천(5.1개), 서울(3.8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6.4개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였다. 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14.4명으로 인천(14.9명)보다 적고 서울(13.0명)보다는 많았다. 전국 평균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13.3명이다. 만 6~11세 인구 1만 명당 초등학교 수에서도 경기지역은 16.1개를 기록, 인천(15.3개), 서울(13.2개)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8명으로 인천(15.6명), 서울(14.8명)은 물론 전국 평균(14.6명)을 웃돌았다. 5세 이하 인구 1천 명당 어린이집(2015년 기준)도 17.2개로 인천(14.1개), 서울(13.9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5개보다도 10% 넘게 높은 숫자다. 경기지역의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는 6.2명으로 인천(6.4명)보다는 적고 서울(6.1명)보다는 많았다. 전국 평균은 6.3명이었다.

반면 11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도서관 수(2015년 기준)는 1.74개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인천은 2.79개, 서울은 2.24개였다. 유병돈기자

7.3 X 18.6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8면 경제

道 'SIB 해봄 프로젝트', 첫 민간 크라우드펀딩 목표액 달성

사회 어둠 밝히는 '착한투자' 통했다

사업비 18억 민간조달… 도내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20% 자립성공땐 투자자 '인센티브' 방식
사회문제 연계 '가치 투자' 일반인 관심 이끌어

경기도와 ㈜한국사회혁신금융이 추진하는 '경기도 SIB 해봄 프로젝트'가 SIB(사회성과연계채권)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수익률까지 낼 수 있는 SIB가 '착한 자본'으로 주목받은 가운데, '해봄' 사업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오마이컴퍼니 등에 따르면, 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자본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를 사용하고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대중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재무적 수익도 얻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봄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8억 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고 근로할 수 있는 800명을 선발, 이들에게 2년간 맞춤형 취업교육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이들 가운데 20%가 자립에 성공하면 도가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특히 사업비에는 기업과 재단의 투자금 이 외에 일반 시민 투자 5천만 원이 더해져 의미를 더했다.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회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5천만 원의 자금 조달을 한 결과 목표액의 102%를 초과 달성했다. 16명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투자금액은 1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237명이 탈수급에 성공하면 최대 24.65% 수익률(누적)을 가져갈 수 있다. 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되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0년 6월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이 지급된다. 이처럼 SIB에서 민간인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 수익률이 보장돼 투자 수단으로도 매력적으로 다가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환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사는 "일반 수급자들의 진정한 자립을 도우려면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가 국내에서 SIB를 개척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인들에게도 '착한 투자'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14.8 X 18.1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3면 지역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김준태 파주시 시장권한대행(가운데), 연천군 관계자와 관광활성화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경기관광公·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맞손

홍보·마케팅 등 협력체계 구축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시·연천군과 관광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관광공사·파주시·연천군은 지난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관광 상생협력을 맺고 지자체들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사업으로는 ▲파주·연천 지역 관광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파주·연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관광상품 업그레이드는 물론 경기관광공사가 보유한 전문적인 관광마케팅 노하우와 관광 콘텐츠 개발, 상품개발 등을 파주시와 연천군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며 관광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파주시도 지난해 개통한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광과 신설을 계기로 경기관광공사의 전문적인 관광기술을 도입, 효율적인 관광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은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개별관광지 중심의 '점' 단위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선을 감안한 '선형 관광'이 강조되는 만큼 인접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천군·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17.0 X 17.2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문화

우리 역사에서 경기도의 의미와 정체성은 무엇일까. 5천 년의 역사에서 경기지역은 삼국시대에도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끝내 한강을 차지한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됐다. 통일 이후 중국과 교통하는 국제 교통로로 개방성의 중심에 있었다. 고려시대 역시 건국 주체가 경기지역 출신이다. 서해와 예성강을 아우르는 송도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세력 왕건과 연천과 철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림 세력 궁예의 대결은 왕건의 승리로 마감되면서 새로운 국가 고려가 건국됐다. 조선의 건국 역시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진사대부들과 무장 출신의 이성계의 결합이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구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운 국가를 창출했다. 이로 볼 때 경기지역은 우리 역사에서 건국의 중심축이자 문화와 교류의 중심지이다. 이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경기지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경기 지역만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경기지역은 수도 서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경기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조어진


다산 정약용


미수 허목


순암 안정복

열린 사고로 다양성 중시… 국태민안 꿈꾼 실용학파의 뿌리

〈國泰民安〉

1 프롤로그

조선후기 실질적인 주자성리학의 중심지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아닌 퇴계학통의 근원지인 영남이고 율곡의 학통을 계승한 우암 송시열 학문의 근원지인 호서이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가 아닌 지방이지만 산림(山林)으로 서울의 관료들을 지배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지역이 주자성리학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정체성과 사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 전체의 개혁을 주도하면 민산(民產)을 풍부하게 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실학(實學)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실학을 기반으로 열려 있는 사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에 있다. 이러한 실학과 개방성은 다른 지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경기지역만의 독특성이라 말할 수 있다.

실학을 조선후기 경세차용과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학풍만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학이란 말 그대로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실용지학(實用之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 주자성리학도 실용지학이 될 수 있었고 그 학문을 익혀 경세가로 활동한 이들은 모두 실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지역은 건국의 주체 지역으로 백성을 위한 위민정책을 만들기 위한 실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경기지역은 특유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방성이란 외부적 개방성과 내부적 개방성을 들 수 있다. 외부적 개방성이란 대외교류의 추진 및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내부 개방성이란 주자성리학만이 아닌 다양한 학문 사상을 수용하고 자신이 신분을 뛰어넘는 발상과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농공상(士農工商) 체제하에서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구성을 추구하는 것과 양반사대부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를 통해 실용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기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통하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이후 대당 무역기지로서 강화의 혈구진과 남양의 당성진을 이용했다. 이와 같은 교통로는 중국과 무역을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서 아울러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물자유통이 활발히 이뤄졌다. 역대 왕조들은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다시 분배하는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래 수도를 둘러싼 경기지역은 역로(驛路)와 조운(漕運)이 발달해 물자유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경기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강·임진강 등의 수로교통이 발달해 지리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역시 경기지역은 수도인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해상과 육로 등 주요 교통로와 직접 연결돼 발전했다. 육로는 한성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모양으로 전국에 뻗어나갔는데 경기도는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 기능을 했다. 이러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경기지역의 도시는 예성강 이북 지역의 도시나 금강 아래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경기지역은 조선 후기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물류의 유통이 존재했다. 광주의 송파장은 영남에서 충청을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한강변의 유통 거점이었다. 특히 송파장은 서울의 시전상인이 갖고 있는 금난전권(禁難廛權)이 적용되지 않게 설정한 곳이어서 시장의 활성화가 촉진됐다. 양주의 누원점은 서울에서 원산과 함경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형성됐고 안성은 영남로와 호남로를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해 충청도와 전라도의 토산품이 집하되는 지역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 일찍부터 대외무역을 비롯한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개성의 송도상인(松都商人)은 세계 최초의 복식 부기인 송도사개 문서를 작성할 정도로 탁월한 상업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경기지역은 일찍부터 실용적 사고가 발전할 수 있었다. 지리적 측면에서 강과 인근해 있으면 강을 통해서 성장하는 특유의 개방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개방성은 자연히 경기지역을 발전시켜 조선후기에는 교하, 양근, 가평, 여주 등 서울에서 100리권인 원교(遠郊)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읍(京邑)'이라 불렸다.

경기지역은 조선 건국을 전후해 지역의 문화가 실용적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당대인들이 실학으로 평가하는 성리학의 등장이었다. 고려말 불교의 폐단은 극심했다. 이러한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 이제현과 정도전 그리고 권근 등은 성리학의 '인의충신(仁義忠信)' 등의 수기(修己)와 충효를 비롯한 오륜과 육예(六藝)의 학습으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고려말 조선 초기 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을 실학이라 규정짓고 불교와 한당(漢唐) 유학을 대신해 새로운 국가 수립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러한 실학으로 인하여 조선 건국 후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사상으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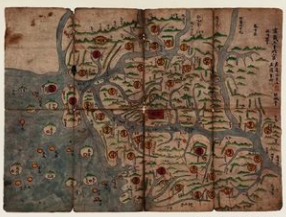
조선 초기 경기지역의 대표적 행정가이자 사상가인 황희는 성리학을 실학으로 인식하고 세종대 실용적 경세사상을 보여주었다. 그의 경세사상의 핵심이 '인권존중과 민본의식, 개혁을 통한 백성의 불편과 고통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세 정책으로는 '기강 확립 방안, 치안과 국방강화책, 빈민구제책, 교육정책, 언론과 여론 중시'의 5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황희와 같은 파주 지역 출신인 율곡 이이 역시 실학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율곡은 경세학을 추구한 인물로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학문과 지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학문은 실천적으로 현실에 적용돼야 그 존립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이이는 성리학 전성기와 실학의 맹아기에 위치해 성리학을 하면서도 실학적 사유에 앞장섰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율곡 사상의 특성은 이후 전개된 경기지역 사상가들의 학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영남 유학의 단조로움과 달리 다양성을 중시하는 학풍의 전개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조선 초기 경기지역 사상가들의 현실적 사상을 계승해 이원익과 김육의 공동체론을 바탕으로 대동법이 등장했고 박세당의 개혁사상이 등장했다. 또한 이 대동사상을 기반으로 미수 허목,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녹암 권철신으로 이어지면서 개혁사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들의 사상을 이어 정조시대에는 채제공, 서명응, 강세황, 홍양호, 서호수, 이가환, 박제가, 서유구, 정약용 등 경화사족 출신 '실학자' 들이 정조의 탕평정치에 협입어 당색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함께 조정에 포진해 개혁을 주도했다. 이들은 정조를 보좌해 학문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개혁의 시범도시이자 실학의 도시로 화성신도시를 건설했다. 화성에는 그들이 구상했던 개혁론을 실제 정책으로 입안해 시행했으며 그 결과 '양반 상인론'과 '국영 시범농장론' 같은 상업과 농업 진흥책이 실현됐다. 결국 경기도의 사상과 사상가들은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1년간 본보에서 21세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근대 이전의 경기지역 사상가들과 그들의 사상을 되돌아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예전의 역사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전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경기도와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지역의 사상과 사상가들을 연구하는 중진 학자들과 함께 깊이 있으면서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재를 할 것이다. 독자제현(讀者諸賢)의 기대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산 홍재연구소장


경기삼십육관지도.



성호집.

특유의 개방성 보여주는 경기지역
시대에 걸맞는 현실적 학문 추구
한반도 새 문화 창조 구심점 역할

정조의 탕평정치 힘입어 개혁 주도
당색·신분의 차이 넘어 조정에 포진
백성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

34.6 X 48.6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8면 건강

경기도의료원, 감염병 통합대응체계 구축

경기도의료원이 감염병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도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에 1인실 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감염병 발생 시 단계적 대응체계와 보고 및 신고체계 등을 담은 6개 병원 통합 '감염병관리지침'을 제정했다.

특히 지난 9일 도의료원장, 안성병원장,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안성시보건소장 및 관계자들과 자리를 갖고 감염병 관리체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병욱 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 및 관내 보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3차 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11.7 X 6.5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스포츠

'뜨거운 겨울' 경기도, 16연패 신화를 쓰다



12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폐회식 뒤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한 경기도선수단이 우승배와 우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金 86·銀 72·銅 86… 총 1천251점 득점
'빙속 4관왕' 김민석, 최우수선수 영예

경기도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 종합우승의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체육웅도' 경기도는 12일 막을 내린 이번 동계체전에서 금 86, 은 72, 동메달 86개로 총 1천251점을 득점, 서울시(1천37.5점·금50 은61 동47)와 강원도(931점·금56 은50 동52)를 제치고 서울시(1986년~2001년)가 보유한 역대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제46회 전국소년체전(5월·4연패 도전),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6월·17연패 도전), 제98회 전국체육대회(10월·16연패 도전) 등 4대 전국종합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 4연패 달성의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또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4관왕에 오른 김민석(안양 평촌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경기도는 2015년 이채원(스키 크로스컨트리), 2016년 고병욱(스피드스케이팅)에 이어 3년 연속 MVP를 배출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5개 종목 가운데 빙상이 대회 14연패를 달성하는 신기원을 이뤄냈으며, 컬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나머지 4개 종목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고른 활약을 펼쳤다. 세부 종목으로는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스노보드가 1위를 차지했고, 쇼트트랙과 스키 크로스컨트리가 2위, 스키 알파인이 3위에 입상했다.

또 다관왕 부문서는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과 박지우(의정부여고), 바이애슬론 이인복(포천시청) 등 3명이 4관왕에 올랐고, 쇼트트랙 '샛별' 서휘민(안양 부림중) 등 4명이 3관왕, 스키 심채연(화성 청계초) 등 14명이 2관왕에 오르는 등 총 21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스키 알파인에서는 여고부 임승현(군포 수리고)이 회전(1분41초38)과 복합(100.70점)에서 금메달을 보태 지난 8일 대회전 우승포함 3관왕에 올랐고, 남대부 정민식(한체대)은 회전(1분29초06)과 복합(44.31점)서 우승하며 2관왕이 됐다. 바이애슬론서는 남초부 조성현(포천 일동초)이 2관왕에 오른 가운데 남중부 스프린트 6㎞ 김규찬(일동중), 남초부 9㎞ 계주, 여고 18㎞ 계주서 우승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중부 20㎞ 계주 경기선발은 유일한 종목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4년간 11위에 머물렀던 인천광역시는 피겨스케이팅 2개, 쇼트트랙과 스키 알파인 각 1개의 금메달 획득으로, 금 5, 은 6, 동메달 3개로 260.5점을 득점해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황선학기자

27.7 X 18.7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스포츠

"평창 빛낼 글로벌 스타 육성에 주력"

최규진 경기도 선수단 총감독
동계 비인지 종목 팀 창단 지원책 마련

"16연패 달성으로 역대 최다 종합우승 타이기록을 세웠지만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타를 배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경기도 선수단 최규진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현장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종목 단체 임원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1년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를 빛낼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총감독과의 일문일답.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으로 서울이 보유한 역대 최다 연속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는데 소감은.

역대 최다 연속우승 타이기록을 이뤘지만 만족하지 않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 또 내년에는 국가적인 관심은 물론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평창을 빛낼 우수 선수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빙상 종목이 14연패를 달성했지만 예년에 비해 많이 고전했다. 일부종목 전력이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도 동계종목 육성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전력이 평준화 추세다. 시·도간 관심과 경쟁을 유발해 동계종목이 발전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또한 종목단체와 함께 전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역대 최다인 종합우승 17연패를 달성하겠다.

-전국 규모 종합대회서 시즌 첫 우승의 물꼬를 텄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최다종목 우승과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도는 동계 비인지 종목 팀창단을 계획하고, 도 소속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입상 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동계종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홍완식기자



14.2 X 18.2 cm

경기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0면 스포츠

道,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아쉬운 2위

경기도가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경기도는 10일 막을 내린 이번 대회서 금 20, 은 15, 동메달 5개로 1만9천906.4점을 획득, '라이벌' 서울시(2만893점·금14 은9 동14)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은 6, 동메달 4개로 8천812.8점을 마크해 당초 목표한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 DB(청각장애) 선수부의 전용민(하남시)이 2.5㎞ 프리와 5㎞ 클래식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고, 같은 종목 남자 IDD(지적장애) 동호인부 김동광(화성시)이 2.5㎞ 프리, 5㎞ 클래식서 우승해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또 크로스컨트리 여자 IDD 동호인부 원도희(도장애인스키협회)도 2.5㎞ 프리와 5㎞ 클래식을 차례로 석권해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빙상에서는 남자 DB 동호인부 고병욱(의정부시청)이 500m와1천m를 석권해 2관왕을 차지했으며, 남자 IDD 소년 동호인부 박시우(의정부시), 청년 동호인부 이진호(수원시)도 모두 2관왕을 차지했으며, 스키 알파인 남자 BLINDING(시각장애) 선수부 황민규, 남자 STANDING(지체장애) 선수부 김홍빈(이상 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도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경기도가 정상 수성에 실패한 원인은 스키에서 시각장애 선수를 인도하는 가이드의 비등록자 출전으로 인한 실격과 점수 비중이 높은 아이스하키에서의 작전 실패,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뉘어 치뤄졌다가 이번 대회부터 동호인부로 통합돼 운영한 빙상 종목에 대한 대비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홍완식기자

14.2 X 9.1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백신접종 여부, 소 잃고도 몰랐다

8일 연천 구제역 발생 젖소농가 道 접종유무 검사 대상서 빠져
농가당 1마리 표본샘플도 부실
지난해 22곳 적발… 해마다 줄어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이 구제역 확산을 키웠다.

도(道)는 지난해 백신 비접종 농가에 대한 상시단속에서 달랑 22곳을 적발했으며,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의 접종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직접 조사를 통해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총 22곳의 농가 뿐이다.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단속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농가도 매년 줄고 있었다.

경기지역 백신 미접종 과태료 부과 대상 농가는 지난 2014년 61곳에서 2015년 25곳, 지난해 22곳으로 줄었다.

더욱 문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유무를 관계당국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지역 구제역 발생당시 도 관계자는 "이 농가에서 지난해 12월 다량의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농장주가 소에게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제역 백신을 수의사들이 일일이 농가를 찾아다니며 접종을 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장주들이 의례적으로 백신을 구입한 뒤 실제 접종을 하지 않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체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농가 한 곳당 소 한마리만을 표본 검사해 항체 형성률을 따지는 허술한 관리와 무책임한 방역당국의 탁상행정도 사태를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최규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한 농장에서 한 마리의 샘플을 뽑는 것은 웃긴 이야기"라며 "통계학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각 농장의 상황을 파악한 뒤 사육 두수만큼 샘플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45만 마리가 넘는 소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매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현우기자

22.1 X 30.0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道공제회, 흡수통합 찬반 내홍

자체사업 통해 법인 유지 주장
道 "사업실패땐 책임 못 질 것"

경기복지재단과 통합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중부일보 2016년 8월 18일 2면)의 내부 구성원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독립적 사단법인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등에 따르면 도와 양 기관은 올해말 통합을 위한 조례 및 정관 개정과 이사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통합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공제회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져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도비 지원 중단 전까지 출연된 금액은 56억 원이며, 현재 잔액은 17억 원에 불과하다.

공제회는 인건비 6억 원과 출연금 예치수익 대비 지급보장으로 발생하는 2억 원 규모의 이자결손보전금 등 연간 8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하지만 공제회 내부 최종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들 사이에서 독립적인 사단법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통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대의원들은 "사회복지공제회가 복지재단으로 통합될 경우 도에 종속돼 자율적 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적립된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펼쳐 독자 법인으로 생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만약 기금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다 손실이라도 입게 되면, 그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대의원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제회 관계자 역시 "전체 60명 대의원 중 몇몇 분들이 그런 주장을 펴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는 현재 3만9천400명의 회원이 납부한 643억 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다. 황영민기자

11.3 X 14.8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B면 종합

연천 구제역 젖소농가 항체형성률 A형 90%·O형 52% 확인

항체 형성률 높아도 구제역 발병

백신접종만으로 방어엔 한계
道,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 주력

지난 8일 'A형' 바이러스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 젖소 사육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A형은 90%, O형은 52%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연천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21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A형은 19마리, O형은 11마리에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

항체 형성률이 낮았던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가(19%)나 전북 정읍 발생농가(5%)와 달리 연천은 비교적 높은 항체 형성률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것이다.

연천 젖소농장은 항체 형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A형' 바이러스에 감염, 구제역이 발생했다. 보은과 정읍 발생농장 3곳은 모두 'O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백신 접종이 구제역을 100% 막을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 셈이어서 경기도내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높음에도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까지 874개 농가의 소 3천200마리를 표본으로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94.6%에 해당하는 3천26마리에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역은 562개 농가 2천179마리 중 2천33마리(93.3%), 경기북부지역은 312개 농가 1천21마리 중 993마리(97.3%)가 항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 접종은 물론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방역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천의 경우 높은 항체 형성률에도 발병한 것을 보면 차단방역을 소홀하게 했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농가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천에서는 지난 8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사육 중인 소 114마리를 살처분했다. 연천 젖소농장에서는 2010년 1월 연천과 포천에서만 발병한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가 백신'(O형 + A형)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두 가지 혈청 각각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야 한다"며 "연천 구제역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4~7일 후부터 항체가 형성됨에 따라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 형성률과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더해져 90%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38% 가량 항체 형성률이 향상됐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0% 정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은과 정읍 발생농장의 경우 O형과 A형 바이러스 모두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긴 했으나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률 증가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약했다. 조윤성기자

22.7 X 22.6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B면 종합

임진각 평화누리 DMZ생태관광 활성화 노력

관광公-파주-연천 상생협약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연천군이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지난 10일 협약을 통해 파주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연천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파주·연천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공동추진과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서희수기자

11.1 X 6.9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판교TV 입주 청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5명… 2년간 지급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내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20대와 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실 당 최대 2천만 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12일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과학원) 등에 따르면 도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1실당 최대 2천만 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판교TV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5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기가 되면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50%는 공제한 후 차액만 반환하면 된다.

신청은 경제과학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받으며, 선정자는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황영민기자

11.5 X 8.9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2기연정실행위 내일 첫 회의
청년구직지원금 등 계획 논의

경기도 2기 연정(聯政)실행위원회가 첫회의를 열고 청년구직지원금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도는 14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연정실행위원회를 열고 연정과제 추진방향과 사업실행 계획, 도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년구직 지원금 제도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 사업 ▶연정실행위 산하기구 확대 운영 ▶도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청년구직 지원금 제도는 만 18~34세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급 대상을 1천 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는 연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기연정 모니터링 및 평가를 벌인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평가 기간, 평가 대상 등을 정한다.

지난 회의에서 보완이 요구됐던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 '재정전략회의'와 '인구정책조정회의' 확대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현우기자·편집=김중겸기자

5.7 X 14.0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김영란법·AI·구제역 '악재 쓰나미'… 외식·유통·화훼업계 '비명'

소비절벽 악순환… 지역경제 '패닉'

경기침체에 고급음식점 폐업직전
졸업·행사시즌 꽃 소비도 줄어
화훼농가, 매출 70% 줄어든 곳도

지방정부, 행사 연기·줄취소
상인들 벌써부터 봄 축제 걱정

올겨울 외식업계와 유통업계, 화훼농가는 삼중고에 빠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후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터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도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인들은 혹시라도 2011년 구제역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으며, 봄축제까지 이어지지나 않을까 고민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의 이유로 예정돼 있던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된 곳은 구리, 시흥, 오산,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등 8개 지방정부다.

특히 시흥, 오산, 가평은 11일 대규모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추진 중이었지만 8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도가 행사 자제를 고려하도록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소비심리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모두 받은 요식업계다.

지난해 적용된 김영란 법 때문에 소비심리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도 매년 정례행사로 진행했던 시무식, 정무식 등도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제역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돼 전국 86곳 가축시장이 잠정폐쇄되면서 한우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9일 한우 등심 평균 소비자가격은 1kg에 7만8천17원으로 전날보다 2천85원 올랐다.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경기침체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정덕 한국외식업중앙회 수원팔달구지부 사무국장은 "세월호 당시에는 애도하는 분위기로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심각하다"라며 "그나마 점심을 제공하는 중급 음식점들은 사정이 낫지만 저녁 외식 소비자들을 주로 받는 고급 음식점들은 폐업 직전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악재로 피해를 입은 곳은 화훼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형 행사의 계속되는 취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의 시설하우스를 운영 중인 박정근 농가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꽃소비가 많은 명절과 졸업, 행사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줄어든 곳도 있다.

농촌진흥청이 쓰러져가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 '1Table 1Flower'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꽃 소비가 대부분 행사 및 선물로만 소비되다보니 일정 시기에만 팔리는 경향이 있다"며 "일상생활에서도 꽃이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달걀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외식업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T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도 외식경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이 없는데다 소비절벽, 청탁금지법, AI·구제역 등 부정적 요인만 많아 외식업 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치킨전문점 등 일부 업종은 향후 3~6개월간 성장 또는 위축 정도를 나타내는 미래경기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33.3 X 25.6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道, AI에 1천300억 투입

보상·방역비 사상 최대 기록
구제역에도 12억 추가 들어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며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도 사상 최대 액수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소강상태지만 종식 선언이 아직 이른 데다 구제역마저 발병하며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에서 첫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7천 마리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도내 전체 가금류 사육 두수 5천400만 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전국 전체 살처분 두수 3천313만4천여 마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는 2014년 69개 농가 292만8천 마리, 2011년 86개 농가 234만3천 마리의 5~6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치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584억 원이 지급됐고 향후 정산할 보상금은 675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몰 비용으로도 30억 원을 지원했다.

17개 시·군 90곳에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 약품 구입비 등 방역비로는 66억7천만 원이 지출됐다.

AI를 차단하기 위해 50여일 동안 줄잡아 1천3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셈으로 2014년 256억 원, 2011년 255억 원의 5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 연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다.

도내 소 45만4천여 마리의 구제역 백신 비용으로 1년에 120억 원을 투입했는데 연천 구제역의 경우 통상적인 O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돼 경기북부지역은 보강접종과 함께 O+A형 백신까지 접종해야 한다.

보강접종 대상은 42만2천여 마리로 7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보강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면 가능한데 젖소의 경우 보강접종으로 산유량이 2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소 133만 마리분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4억3천890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AI, 구제역 모두 5~6월까지 장기전을 각오하며 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처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 만큼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11.2 X 17.1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도의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하려다 쓴소리만…

산하기관장 불러놓고 협약 추진
"갑자기 소집… 체결 종용"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 자리에서 기관장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이들 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자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협약체결을 종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0일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 개선을 위한 도와의 정책협약을 앞두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간담회'를 23개 도 산하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려다 기관장들의 반발을 샀다.

협약서에는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직무분석을 통한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 마련 ▶임금과 처우 차별 개선 ▶예산 확보 위한 공동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경기도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13조 규정'을 바탕으로 했다.

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은 "업무 협약은 이렇게 갑자기 소집해서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직접고용 전환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더 옳은가에 대해선 기관마다 판단이 다를수 있다. 큰 흐름에는 맞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형식적 협약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가 많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난 뒤 깊이 있게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은 "수련원이 대부도에 있고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데 단순노무 업무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우리는 도시 생활권에 위치하지 않아 잦은 이직이 문제다. 그런 현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정기열 경기도의장은 한발 물러섰다.

정 의장은 "MOU를 한다고 해서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라며 "체결을 원치 않는 기관은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모든게 졸속으로 준비됐기 때문"이라면서 "16일날 전부 모일지도 미지수다. 이런것들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3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된 비율은 도청의 경우 2014년 2%(전체 473명 중14명), 2015년 2%(483명 중 10명), 지난해 3%(553명 중 20명)이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2014년 3%(995명 중 37명), 2015년 5%(800명 중 43명), 지난해 6%(1190명 중 82명)로 집계됐다.

김현우기자

17.4 X 13.3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道, 2020년까지 '억대 농부' 5천가구 육성

따복미래농장 등 93개 사업 추진
年 소득도 5천만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2020년까지 연간 수익 1억원이 넘는 '억대 농부' 5천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또 같은 기간 도내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15년 기준 도내 1억 원 이상 수익 농가는 4천185가구,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은 4천100만 원이다.

도는 이를 포함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생산공동경영체 육성, 창농, 따복미래농장 운영 등 9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이들 사업에 3천331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 농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재고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8만1천여ha에서 올해 7만7천여ha로 4천여ha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백창현기자·편집=변민영기자

17.4 X 6.1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9면 지역

"수원·대구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공동발표로 혼란 줄여야"

수원공군기지(수원비행장)는 제2차 세계 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했다. 1954년 대한민국 공군에 관할권이 이양된 후 수원과 화성시 주민 26만여명이 밤낮으로 소음피해를 겪었다. 2000년대 초중반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최신예기(新銳機)가 기동(機動)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했다. 인구 2천500만명의 수도권 안보(安保)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수원시와 김진표 국회의원의 주도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방부는 이전사업을 착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후보대상 지역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이전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력 높은 최신예기, 큰 소음 탓 수원 군공항 운용 불가
야간훈련 제약·대형사고 위험 등 도심 외곽 이전 시급

예비이전 후보지 2곳 이상 선정땐 지역간 갈등 불가피
각 지역 장·단점 분석… 최적 군사요충지 1곳만 발표해야

▶수원 군공항 사실상 폐차장 수준= 수도권지역을 방어하는 수원 군공항에는 공군 주력 전투기 F15K 등 최신예기가 없다. 큰 소음때문에 훈련을 할 수 없어서다. 복수의 공군 전문가는 "수원군공항에는 60년대 초반 생산한 F-5기종과 1970년대 국산기종인 KF-5(일명 제공호)만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최신예기는 출력이 높아 소음문제로 수원에서는 운용할 수 없는 기종"이라고 했다.

최신예기를 조종하려면 출동 훈련 빈도를 높여야하는데, 26만6천300여명이 소음피해를 입는 수원, 화성, 오산, 안산 지역에서는 훈련이 어렵다는 의미다.

최신예기인 'F15K'와 'F16'은 대구 군공항에서만 운용된다.

한 공군 퇴역 장교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팬텀기종을 운용하는 곳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수원 군공항은 심하게 표현하면 폐차장 수준"이라면서 "정부가 도입 검토중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기도 수원을 제외한 대구 등에서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원군공항은 야간출동훈련 등도 제약을 받고 있어 전술훈련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사실상 퇴물취급을 받는 'F5' 전투기는 지난 20여년 간 오후 9시까지 한달평균 5회 가량의 간헐적 야간비행만 하고 있다.

또 다른 공군 퇴역 장교는 "90년대 까지는 새벽 3~4시에도 조출(早出·조기출동)훈련을 했는데, 현재는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야간 출동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공항은 중무장한 전투기를 사실상 운용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다. 공항에서 운용되는 F-5기종은 40~50년 기종이다. 대한민국 정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라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 탈출 등 최악의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외곽으로 이전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야간훈련 불가로 과거보다 운용되는 전투기수도 상당수 감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항은 비행장내 가능한 작전, 군수, 지원 등 전투태세 검열 훈련과 무장을 최소화한 초계활동과 비행훈련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공군기지로써 전시 작전태세가 유지돼야 하지만 야간훈련 제한 등으로 수도권과 서북부 영공방어, 국지도발 대비, 전투조종사 정예화 훈련 등 3대 주임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군 전문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기는 F-5기 등 구 기종 수 십대를 상대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라면서 "경기남부 지역으로 전진배치해야 유사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수원군공항은 공군 탄약 저장시설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간 유지해야할 최소 허용거리도 위반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수원군공항내 민간 주거시설간 최소허용거리를 위반한 탄약고는 44곳으로 전국 228건의 19.3%다.

▶정부 대구·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공동발표해야= 국방부는 2015년 6월4일 수원 군공항 이전 승인을 했다. 수원시가 2014년 3월 20일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대구군공항 이전 승인일(2016년 8월 30일)보다 1년 2개월이 앞선다. 하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속도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느린편이다.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승인이 난후 2년이 가깝도록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대구의 경우 지난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군공항 통합이전지시로 정부차원(국무조정실)의 TF팀까지 꾸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1월 중 대구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최근 국방부는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TF팀과 협의에 착수했고, TF팀은 오는 15일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일정 등을 수원군공항과 병합심의할 계획이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도해 제정한 김진표 국회의원 측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도 수원군공항 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구군공항과 병합심의후 공동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화성과 안산시 등에 지난 10일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군 작전성 검토를 토대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방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구 군공항도 군 전략상 중요하지만 2천400만명의 수도권 방어 차원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도 매우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동시에 발표해야 큰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이전 후보지 1곳 발표해야= 수원시는 이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 전후로 예정된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위해서는 대상지를 1곳으로 축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개 지역 이상 선정시 지역간 갈등을 중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市)는 복수 발표시 지방정부간 연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부담 증가와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력 낭비, 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도 우려하고 있다.

한 갈등 조정 전문가는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을 확산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전쟁터와 적(敵)은 축소하는 것이 순리다. 최적의 군사요충지 1곳을 발표하는 것이 군공항 이전 사업에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시, 양평군 등 6개 지방정부 9개 수원군공항이전 후보지중 예비이전 발표 대상지역으로 최소 1곳에서 최대 3곳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지역 1곳만을 발표했을 경우 이 지역이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면 또 다른 지역 대상으로 이전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는 부담감때문이다. 중복발표후 동시에 절차를 진행해 그 중 1곳만 최종 정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곳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용역을 통해 검토를 완료한 각 후보지별 장단점 및 최적지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천의현·박현민기자·편집=이용진기자

34.9 X 30.2 cm

중부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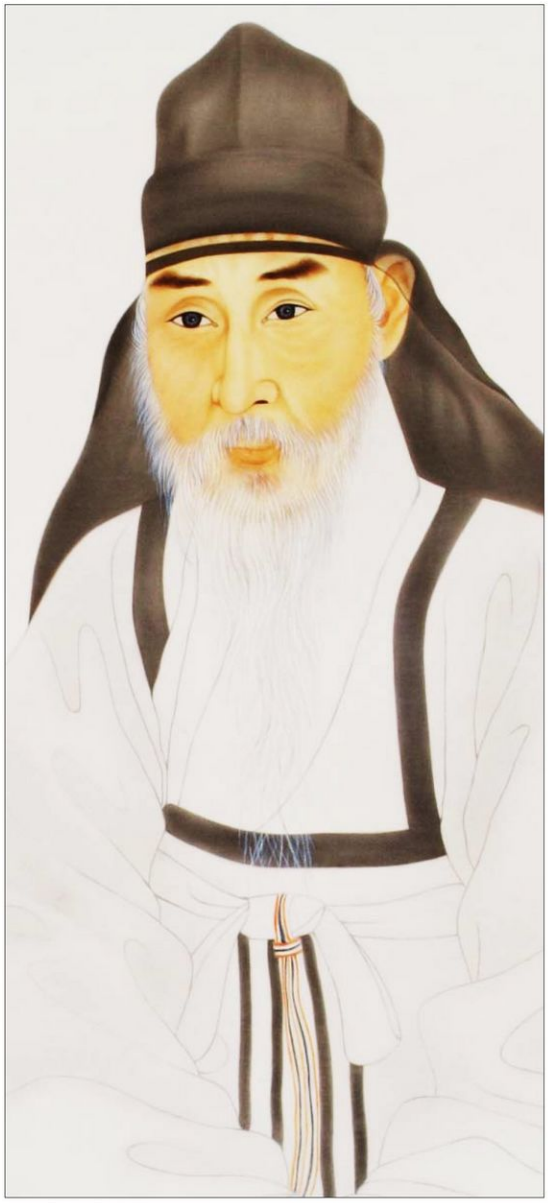
2017년 02월 13일 (월)
10면 문화

조선후기-21세기

1 총론 '문명 전환' 관점에서 바라본 경기 천년

중부일보가 기획하는 '2018 경기천년' 시리즈의 3년차 연재를 시작한다. 이 시리즈는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를 80회에 걸쳐 다뤘다. 올해에는 조선후기부터 21세기 현재시기, 그리고 새천년 경기 미래의 전망까지 40회에 걸쳐 여러 학자들이 참여해 연재할 계획이다.

한반도 벼농사 기원… 천주교 발생지
문명의 전환기때마다 빛난 경기역사



조선 성리학의 아버지 율곡 이이





고양 가와지볍씨박물관에 설치된 조형물(왼쪽), 1991년 가와지 2지구 발굴 현장(오른쪽).



병자수호조약. 이 조약으로 조선은 개항을 하고 외국문물을 수용하게 된다. 편집=박시원기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에게 참패하다

2016년 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한국의 이세돌 9단과 구글 딥 마인드의 인공지능인 알파고와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서울에서 펼쳐졌다. 대국을 앞두고 이세돌 9단은 "알파고의 인공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며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들었지만 나는 최소한 이번 대국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문가들도 이세돌 기사가 이길 것이라는 희망이 곁들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결과는 이세돌 9단이 4번지고 겨우 1번 이겼다. 이세돌 9단이 1번 이긴 것도 알파고가 일부러 져줬다는 뒷말과 함께 인간대표이자 한국 바둑의 자존심인 이세돌의 빼아픈 완패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국인들은 공중파로 생중계된 대국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인공지능시대는 이미 시작됐는데 사람들은 방송으로 생중계된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고서야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들어섰고 인류가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했다.

2018년은 '경기'가 한국 역사에 등장한지 천년이 되는 해이며, 경기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경기 새천년은 인류가 맞이하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과 맞물려 있기에 경기 새천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문명의 전환'이다.

문명 전환의 중요성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문명의 전환은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이었다. 씨를 뿌리고 가꿔 식량을 확보하는 이 단순한 듯 한 행위가 인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인류가 세상에 나타난 이후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구석기시대였고 이 시기 인류는 채집을 통해 식량을 해결했기에 이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인류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인구가 늘어났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도시와 국가가 발생했으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문명사회를 이뤄나갔다. 구석기인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신석기시대 농업혁명에 의해서 일어났다. 고양시 일산의 가와지 볍씨 유적은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이 경기지역의 신석기시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전환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비롯됐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됐으며 인류는 산업혁명이 가져다 준 대량 생산체제로 이전 농업시대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 그 누구도 불과 1세기 조금 지나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세계를 단일 문명권으로 묶어 지금과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 문화권으로 나눠 생활하던 인류는 산업혁명을 먼저 경험한 유럽에 의해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면서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소수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를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식민지지배를 당하는 국가와 개인의 자주성도 훼손됐다.

이 같은 문명 전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문명 전환 이전과 이후 세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르며 전환 이전에는 전환 이후 세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둘째 문명 전환은 그 과정에 폭력이 수반된다. 셋째 문명 전환의 과정은 긴 시간 동안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전환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눠지는데 어느 국가에 속하느냐에 따라 국가 구성원의 안녕과 생활 전반에 현격한 차이가 초래됐다. 넷째 문명의 전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고양시 일산의 '가와지볍씨' 유적
신석기 경기지역서 농업문명 시작

경기학인 조선시대 실학 발생 주도
道 천진암·주어사서 서학 연구 통해
선교사 없이도 천주교 자생적 발생

일제강점기 道서 3·1운동 일어나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도시로 조성
4차 산업 혁명시대 선제적 준비

18세기 문명의 전환에 수용적 입장을 취한 경기지역 학자

인류의 첫 번째 문명 전환과 두 번째 문명 전환 사이 한국 역사는 또 하나의 문명 전환을 경험한다. 북방계 알타이 문명권의 고조선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권으로 편입된 것이다. 고조선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에 편입되면서 폭력이 발생했다. 한 나라 무제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했고 한사군이 설치된 것이다. 이후 고구려가 한사군을 축출했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한국 역사가 이어졌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현장 모습.



판교제로시티 무인자동차.

조선사회는 성리학사회이다. 중국에서 들어 온 성리학은 파주에 본가가 있는 율곡 이이에 의해 조선 성리학으로 뿌리를 내렸고 토착화됐다. 율곡을 둘러싼 학자들과 그 뒤를 이은 학자들이 기호학파를 형성했고 이들이 영남학파와 함께 조선사회를 유교 지식국가로 만들었다. 성리학은 민본주의를 이상으로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실학이 발생했는데 그 중심에도 경기지역의 학인들이 있었다.

18세기 유럽이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18세기 이전 유럽은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도 월등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전환을 유럽이 주도하면서 유럽은 문명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 시기 서양의 과학문명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성호 이익을 포함한 경기 지역의 일부 선각적인 실학자들은 서양 문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한발 더 나아간 남인 계통의 이벽, 이승훈, 정약전, 권철신과 같은 학자들은 18세기에 경기도 천진암과 주어사에 모여 서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다가 천주교를 신앙으로까지 받아들였다. 세계천주교회사에 드물게 서양 선교사의 선교 활동없이 자생적으로 천주교 신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서양 문명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한 조선의 지식인은 소수였다. 조선 사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서양 문명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조선 사회는 천주교를 박해했고 서양 과학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유학자들은 폐쇄적이었으며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리학이 조선사회를 유교 지식국가로 만들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사회를 매우 경직된 사회로 만들었다. 18세기 이후 세계사적인 문명의 전환기에 조선사회는 이렇게 새로운 문명과 벽을 쌓아 나갔다.

문명의 전환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초래한 결과

1876년 조선사회의 개항은 1910년 일제 식민지로 귀결됐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의 동의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렇다고 개항 이후 역사를 식민지화의 과정으로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항 이후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길도 열려 있었다. 개항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1876년 이후 1910년까지 주어진 35년의 시간은 조선이 공업을 기반으로 근대국민국가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18세기에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개항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면 19세기 한국 역사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문명의 전환기에 문명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이같이 엄청나게 결과를 초래했다.

191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의 국민들은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 어느 지역보다, 경기도의 3·1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펼쳐졌다. 1920년대 이후 학생·노동·농민·신간회 운동과 의열 투쟁 활동은 일본에 큰 타격을 줬다. 1945년 광복은 연합국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투쟁한 결과이다.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남북은 분단됐고 경기도는 분단의 현장이 됐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소외됐다.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설정 등으로 경기북부 지역 민들은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분단 이후 남북은 다른 방식으로 독자적인 문명의 전환을 추진해 나갔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개방체제를 선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력갱생체제를 선택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더 나은 선택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과 북은 뚜렷한 격차를 드러냈다. 남한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데 반해 1980년대 이후 북한은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한 국가로 전락했다. 다른 선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곳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고,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산업 중심기지가 됐다.

경기 새천년의 과제

경기지역사회는 문명의 전환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8세기 새로운 문명이 나타났을 때 경기지역의 학자들은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21세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인 판교제로시티를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조성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천년 경기지역사회의 과제는 한국 사회가 문명 전환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고 동시에 문명 전환 과정에서 다시는 소외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강진갑 경기대 교수·경기학회장

34.9 X 46.8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3면 스포츠

16년째 '경기도 천하'… 준우승 서울은 하얗게 질렸다

道 금 86·은 72·동 86개 획득
서울과 16연패 달성 타이기록
다관왕 21명·대회新 8개 경신



"동계체전 16연패 해냈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16연패를 달성한 최규진(도체육회 사무처장)총감독과 경기도 선수단이 폐회식후 우승기와 우승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전국동계체전 경기도가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역대 최다우승 타이기록인 16연패를 달성했다.

도는 12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서 폐회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번 대회서 금메달 86개, 은메달 72개, 동메달86개를 획득하며 종합점수 1천251점을 마크, 서울(1천37.5점, 금50·은61·동47개)을 213.5점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도는 2002년 제83회 동계체전부터 16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 서울(67~82회)이 갖고 있던 16회 종합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서울은 도에 종합우승을 내준 이후 제95회 대회서 강원에 뒤지면서 3위로 한 번 추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준우승을 차지했다.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은 931점(금56·은50·동52개)으로 3위를 기록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고부서 4관왕에 오른 김민석(안양 평촌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을 수상함으로써 제96회 이채원(경기도체육회·스키), 제97회 고병욱(의정부시청·빙상)에 이어 3년 연속 도선수가 MVP에 뽑혔다.

도는 이번대회 5개 정식종목 중 빙상(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피겨)이 594점을 마크하며 종목 14회 우승을 차지했고, 스키(304점, 알파인·크로스컨트리·스노보드)·바이애슬론(152점)·아이스하키(117점)·컬링(84점) 등 4개 종목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빙상(-54점)이 많이 추락한 반면 아이스하키(+63점)가 뚜렷한 신장세를 보였다.

종합순위 (최종)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합계
1	경기	1,251	86	72	86	244
2	서울	1,037.5	50	61	47	158
3	강원	931	56	50	52	158
4	전북	547	20	19	20	59
5	부산	471.5	8	11	8	27
6	대구	395	6	8	10	24
7	경북	361	6	4	6	16
8	인천	260.5	5	6	3	14
9	전남	239	5	6	3	14
10	충북	230	3	1	4	8
11	광주	219.5	1	1	0	2
12	경남	193	3	1	1	5
13	충남	150	10	9	5	24
14	대전	125	1	2	4	7
15	울산	89	0	4	4	8
16	제주	20	1	1	0	2
17	세종	13	0	0	0	0

도는 김민석과 박지우(의정부여고·빙상), 이인복(포천시청·바이애슬론)등 3명이 4관왕에 올랐고, 임승현(군포수리고·스키)등 4명이 3관왕을, 이해영(의정부고·빙상)등 14명이 2관왕을 각각 차지하는 등 21명의 다관왕을 배출했으며 대회신기록도 8개 경신했다.

스키 알파인 대회전 경기서 우승했던 임승현은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여고부 회전 경기서 1분41초38을 기록하며 우승함으로써 복합에서도 정상에 올라 3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또 대회전서 동메달에 머물렀던 정민식(한체대)은 남대부 회전 경기서 1분29초06을 기록하며 1위에 올라 복합도 석권했고, 조성현(포천일동초)은 바이애슬론 남초부 4km(166분23초)와 김하빈·전찬유와 출전한 계주경기(9km)서 34분55초5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근원(포천일동고)은 바이애슬론 남고부 15km서 45분13초4를, 김규찬(일동중)은 남중부 스프린트 6km서 16분51초8을, 일동고는 여고부 18km계주서 1시간51초2를 각각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고, 평택세교중과 수원영덕중 선발팀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중부 20km계주서 1시간02분10초1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한편 수원 리틀이글스는 아이스하키 남초부 결승전서 드래건스클럽(서울)을 4-1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오창원기자

34.9 X 23.6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3면 스포츠

"이젠 올림픽 무대 휩쓸 선수 찾아야죠"

최규진 경기도 총감독

선수 지원·동계 종목 활성화
빙상·컬링 등 전력 강화 매진

"이번 종합우승을 발판삼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을 배출하는 데 힘쓰겠다."

12일 막 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의 종합우승 16연패를 이끈 최규진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시선은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향했다.

역대 타이기록인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의 쾌거를 이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림픽 무대에서 도를 대표할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 총감독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새로운 팀 창단을 모색하고, 도내 우수선수를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계종목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각오다.



앞서 도는 지난해 크로스컨트리 스키팀을 창단한 바 있다. 최 총감독은 지난대회보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 빙상과 컬링, 바이애슬론의 전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빙상이 종목 14연패를 달성했지만 예년에 비해 고전한 게 사실이고, 컬링과 바이애슬론도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평가한 뒤 "빙상은 스피드스케이팅을 제외하고 쇼트트랙과 피겨에서 전반적인 전력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 타 시도에서 동계종목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또한 종목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선수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전력 극대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도는 내년 동계체전에서 역대 최다인 종합우승 17연패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기라 아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최 총감독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뜻 깊은 일이지만 동계체전 또한 국내 겨울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대회인 만큼 중앙 종목단체와 협의해 어떤 형태로든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 총감독은 마지막으로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힘줘 말했다. 장환순기자

16.3 X 14.1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3면 스포츠

道 효자종목 '빙상·알파인 스키' 종목 1위 위엄

두 종목서만 금메달 14개 따내
道 종합 2위로 대회 2연패 좌절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경기도가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서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종합 2위에 올랐다.

도는 지난 10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폐막식을 갖고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해 총 1만9천906.4점으로 서울(2만893점, 금14·은9·동14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도는 이날 이천훈련원 컬링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휠체어컬링 결승전에서 4-7로 아쉽게 패하며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은메달 8개·동메달 1개를 거둔 빙상(3천966점)과 알파인스키(4천997.6점, 금5·은5·동3개)가 각각 종목 1위에 올라 '효자'노릇을 했다. 지난대회 때 3위에 오른 휠체어컬링(4천445점·은1개)은 은메달을 획득하며 비교적 선전했다.

장애인 종합순위 (최종)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합계
1	서울	20,893.00	14	9	14	37
2	경기	19,906.40	20	15	5	40
3	강원	15,404.40	8	6	3	17
4	부산	8,939.00	1	1	4	6
5	인천	8,812.80	0	6	4	10
6	충북	5,757.40	0	2	8	10
7	충남	4,936.20	0	0	3	3
8	전남	4,677.40	0	3	2	5
9	전북	3,834.60	2	1	0	3
10	광주	3,621.80	5	2	4	11
11	경남	3,356.00	0	0	0	0
12	경북	3,157.00	0	1	6	7
13	울산	3,072.00	5	4	1	10
14	대전	3,047.00	0	0	0	0
15	대구	2,431.20	0	1	1	2
16	제주	1,658.00	0	2	0	2
17	세종	913	0	2	0	2

금메달 6개가 나온 크로스컨트리(3천399점)는 3위를 마크했고, 정식종목으로 처음 도입된 스노보드(367점·은1개)는 4위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결승에 진출했던 아이스슬레지하키가 5위로 대회를 마감했고, 지난대회 4위에 올랐던 바이애슬론은 노메달로 9위에 그치며 부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보다 3명 많은 8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크로스컨트리의 전용민(하남시)과 김동광(화성시), 원도희(도장애인스키협회)가 각각 2관왕에 올랐고, 빙상의 고병욱(남양주시)·박시우(의정부시)·이진호(수원시)도 각각 금메달 2개씩을 획득했다. 알파인스키에서는 김홍빈(도장애인스키협회)과 황민규가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장호철 총감독(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비록 종합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고, 부상없이 대회를 마무리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대회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해 8천812.9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낮은 5위로 마감했다. 인천은 스노보드(481점·은1)에서 2위, 휠체어컬링(4천25점)에서 3위에 올랐지만 다른 종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며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장환순기자

17.4 X 13.8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8면 지역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희생자 사고 8일만에 장례절차 완료

사고수습안 등 협의 마무리
화성시, 부상자 지원은 유지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유족들이 화재 발생 8일 만에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다.

유가족들은 화성시 대책반과 시설관리업체 측이 구체적인 사고수습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인을 미룬 채 합동 빈소를 운영해왔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께부터 이날 정오까지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63)씨 등 4명에 대한 발인절차가 마무리됐다.

유족들은 지난 7일부터 오산시 오산장례문화원 4층에서 합동 빈소를 운영하며 매장 관리업체 M사와 시설관리업체 S사, 건물운영관리 협의체 등 3곳과 위로금 등 배상 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의는 이날 오전 2시에서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작업자와 시민 희생자의 위로금을 달리 산정해야 해서 관리업체 등과 유족들은 따로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로 보험 부분은 사망자 개인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정해진 약관에 의해 책정되므로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가 화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해 온 화성시는 희생자 발인이 완료되면서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대책반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병원 치료를 받는 김모(53)씨 등 화재 부상자 3명과 상가시설 정상화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챙길 예정이다.

신창균·윤혜지기자

10.6 X 15.4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3면 사회

'기본' 잊은 사회… 불티를 화마로 키운다

<火魔>

반복되는 대형화재 ❸ 여전한 안전불감증

이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2008년 1월 7일), 고양 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9명 사망·2014년 5월 26일), 김포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 화재(4명 사망·2016년 9월 10일), 남양주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 붕괴(4명 사망·2016년 6월 1일),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4명 사망·2월 4일). 이들 대형 화재는 예견된 인재였다. 안전불감 '용접'중 불티가 화마(火魔)가 됐다. 화성 메타폴리스 화재도 용접공이 용접할 때 불똥이 튀어 스티로폼 등에 불이 나면 보조원이 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대형화재로 번진 당시에는 보조원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각(時刻)에도 사회 곳곳에선 안전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종된 안전의식은 불티를 화마로 키울 태세다.

낡고 녹슨 소화기·막힌 비상구… 안전의식 실종 탓 위험 도사려

'1990년.' 지난 8일 오후 2시 의정부 신흥로 해태프라자 4층 엘레베이터 앞에 비치된 소화기 제조년수다. 37전 무패, KO승률 90%의 핵주먹 타이슨이 무명 제임스 버스터 더글라스에 패한 해로 27년이 지났다. 소방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소화기 가공(밀봉)기술이 낮고 부식이 심해 분사과정에서 오히려 '펑'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 6층에도 제조일자가 2005년이라고 적혀있는 소화기가 있었다. 소화기 손잡이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안산 단원구 선부동 서울프라자에도 1994년산 소화기가 비치됐다.

27년된 소화기가 비치된 것은 정부의 안전무관심이 주요원인이다. 정부는 올 1월에서야 소화기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날 수원시 권광로 시네파크 1층에서는 소화기를 찾기 힘들었다. 기자가 5분 정도 살펴보니 에어컨 뒤에 소화기가 보였다. 또 다른 층에서는 비상구가 닫히지 않도록 소화기로 받쳐놨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곳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같은날 안산시 삼일로 서울프라자의 한 상가 비상구는 잠겨있었다.

수원시 인계동 뉴코아 아울렛 2층 여성의류매장 통로.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에는 의류진열대가 놓여있었고, 같은 층 직원 직원전용 계단에는 빈 박스와 테이프로 감긴 6개의 의류 진열대 수북히 쌓여있었다. 이 층에 있는 소화전은 34벌의 옷이 걸린 행거에 가로막혀 있었다.

비상계단 벽면에 걸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각호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플라스틱 표지판이 무색했다. 모두 10개 층인 이 건물의 2·3·4·7층 비상계단에 의류브랜드 명칭이 쓰인 박스와 의류 진열대, 빈 박스 등이 적치돼 있었다.

안산 서울프라자 1~2층 L모전자는 유도등 점등 불량, 3층은 소화기 충압불량, 4층 모 의원 사무실과 6층 휘트니스센터는 화재 감지기가 떨어져 나갔다. 6층 소화기 손잡이는 끈으로 잠겨있었고 7층은 피난유도등이 꺼져 있었다.

소화전, 방수구는 창고로 쓰이기도 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 인근 센트럴타워 소화전 내부에는 '해내음 건어물'이라고 쓰인 박스가, 수원 시네파크 방수구함에서도 구겨진 종이컵, 수세미 등이 발견됐다.

백동현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화재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피해자는 운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인식한다"면서 "올해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된 것도 정부의 관심부족의 대표적 사례다. 법제정과 시민의식의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원경기자·지방종합







가로막힌 안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의 한 매장에서 여성용 의류가 걸린 행거를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곳에 배치했다. 의정부 해태플라자에서 찾은 소화기 손잡이에 녹이 슬어있다. 의정부 같은 건물에서는 제조일자가 1990년으로 찍힌 27년 된 소화기가 배치돼 있다. 안원경·서희수기자

29.3 X 16.6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3면 사회

아이가 줄었어요

경기지역 어린이통계

11세이하 인구 149만399명
출산율 하락 10년간 12% ⬇

경기도 내 어린이(11세 이하) 수가 10년 전에 비해 10%이상 줄어들었다.

12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경기지역 어린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11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149만399명으로 지난 2007년 169만6천369명보다 12%(20만5천970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7년 15.3%를 차지하던 어린이 인구가 지난해에는 11.7%까지 떨어졌다. 매년 0.2~0.6%p씩 감소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3~4년 내에 어린이 인구 비중이 10%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기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지면서 어린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 라면 3~4년내에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자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어린이 수도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 16.8명으로 2007년 보다 9.4명이 줄었다.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원아 수는 6.2명으로 2006년보다 2.9명 감소했다. 지난해 유치원 교사 1인당 담당 원아 수의 경우 14.4명으로 2007년보다 2.8명 줄었다.

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세 이하 어린이 1천명당 어린이집은 17.2개로 2006년 대비 6.6개 많아졌다. 유치원은 지난해 3~5세 1천명당 5.8개로 2007년보다 1개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6~11세 1만명당 초등학교는 16.1개로 2007년 대비 1.1개 늘었다. 허지성기자

11.1 X 12.4 cm

중부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23B면 사회

재선충병 채취시료 2주간 방치… 확진 후 긴급방제 소동

파주시, 소나무 재선충병 뒷북대응

지역 첫 의심신고에 초동대처 미흡
감염목 확산원인 제공 우려 눈살

"겨울철이라 확산 한계 있을 줄…"

파주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신고를 받고 채취한 시료를 2주일이 지난 후에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 자칫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할 빌미가 됐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일 적성면 어유지리 군부대 내에서 소나무 한그루가 고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나간 시 산림농지과 직원들은 채취한 시료를 곧장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야 했지만, 2주일 후인 지난달 16일 연구소에 시료를 보냈다.

파주시가 보낸 시료는 1차로 연구소가, 2차로 국립산림과학원이 검사했다. 과학원은 또 부대 안팎을 긴급 예찰했다.

과학원의 예찰 결과 부대 내 고사한 소나무에서 600여m 떨어진 임야에서도 잣나무 한그루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달 2일 재선충병 감염 사실을 발표했다. 파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판정을 통보받자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방제를 하는 등 소란을 떨었다.

시 관계자는 "시료를 바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냈어야 했는데 지역에서 처음 의심 신고가 들어와 재선충병인지 확신을 못 했다"면서 "겨울이라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제활동에 노력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경기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두 그루외에 추가로 발병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충병이 발병한 곳은 지난해 재선충병 발생지인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서 2.7㎞ 떨어진 곳으로, 경기도는 자연적 확산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상돈기자

28.5 X 14.5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A형백신 접종·확보량 전무 돼지 농가는 구제역 무방비

소 A형 발생… 돼지는 O형만 접종

도내 200만마리로 전국 20% 비중
A형백신 긴급 확보 사실상 불가능
돼지 바이러스 배출량 소의 1천배
A형 발생땐 재앙수준 확산 우려

전국적으로 소 구제역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연천의 소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 돼지 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19면

돼지의 경우 A형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없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구제역 파동'이 난 이후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으며, 소 농장에서는 'O+A'형 백신을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돼지 농가에서는 'O'형 백신만을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두가지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 발생하면서 'A'형 백신을 전혀 접종하지 않은 돼지가 'A'형 구제역에 걸릴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약 200만여마리로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1천만 마리의 20%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이천 36만, 안성 35만, 포천 25만, 용인 21만마리 순으로, 구제역 발생시 축산 농가는 물론 국내 육류 산업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돼지의 경우 특히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이 소보다 최대 1천배가량 많아 삽시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A형 백신은 소 전용으로 수입되는 O+A형 백신뿐인데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백신 재고도 190만마리분에 불과해 확고한 방역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돼지 사육 두수가 1천만 마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돼지에 접종할 A형 백신을 급하게 구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돼지 농가들은 기본적인 소독과 차단 외엔 A형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백신 보유는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 역시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소와 돼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소와 돼지가 먹을 사료 송달도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발병을 억제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 현황점검과 구제역 백신 긴급 수입 등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물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O+A'형 구제역 백신 160만 마리분을 이달 말까지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박국원·조용현기자 pkw09@

17.8 X 21.3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1면 종합

도, 전국동계체전 16연패

1251점 획득 서울시 200여점 앞서
인천시, 작년보다 3단계 상승 8위

경기도가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하며 동계체전 역대 최다 연패 타이기록을 세웠다.

▶▶관련기사 14면

도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바이애슬론센터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86개, 은 72개, 동메달 86개로 종합점수 1천251점을 획득, 서울시(1천37.5점, 금 50·은 61·동 47)와 강원도(931점, 금 56·은 50·동 52)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02년 제83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후 16년 연속 정상을 지키며 종합순위가 도입된 지난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2001년 제82회 대회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우승 16연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됐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에 도 대표로 출전해 남자 고등부 5천m와 매스스타트, 1천500m, 8주 경기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오르며 5천m와 1천500m, 8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한 김민석(안양 평촌고)이 선정됐다.

도는 강세종목인 빙상에서 금 59개, 은 51개, 동메달 53개로 종목점수 594점으로 14년 연속 종목 우승을 차지했고 컬링(84점, 금 2·은 1·동 2)과 스키(304점, 금 15·은 14·동 20), 바이애슬론(152점, 금 9·은 6·동 8), 아이스하키(117점, 금 1·동 3)에서는 각각 종목 2위에 입상했다.

한편, 인천시는 금 5개, 은 6개, 동메달 3개로 260.5점을 획득해 지난해 보다 3계단 상승한 종합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정민수기자 jms@

17.8 X 7.7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1300억 퍼붓고도… 도 가축질병 지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도, AI 보상·방역비 2011·2014년의 5배 '사상 최대'
구제역 덮쳐 백신비용 등 관련 재정부담 더 늘어날 듯

올해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 및 방역비가 사상 최대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AI는 현재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7천마리의 가금류들이 살처분된 상태다.

이는 도내 전체 가금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며 전국 전체 살처분된 가금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과거 AI가 발생했던 지난 2014년 69개 농가 292만8천마리, 2011년 86개 농가 234만3천마리보다 약 5~6배 가량 높은 규모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가에 대한 보상금과 방역비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올해 현재까지 투입된 살처분 보상금 584억원이며 향후 정산해야 할 보상금은 67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 약품 구입비 등 방역비로도 66억7천만원의 금액이 소진되고 있다.

또 살처분된 가금류를 매몰하는 비용으로도 30억원이 지출됐다.

이를 합산하면 약 1천300억원으로 2014년 256억원, 2011년 255억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지난 8일 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 해당 지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도는 도내 소 45만4천여마리의 구제역 백신 비용으로 한 해에 약 12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연천 구제역의 경우 통상적인 유형으로 분류됐던 'O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보강접종과 함께 'O+A형' 백신까지 신경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먼저 보강접종 대상 42만2천여마리를 지원하기 위해선 7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전에 예방접종을 한 소가 추가로 백신을 맞을 경우 산유량이 20% 감소하는 점을 감안,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비용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충북도를 중심으로 증가 우려를 보이고 있어 관련 지원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AI, 구제역 모두 오는 5~6월까지 지금과 같은 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처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아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전국에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걱정이 깊어만 가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 한 한우 농가에서 주인이 사료를 주며 소의 상태를 살피보고 있다. /연합뉴스

36.3 X 13.7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내달까지 낚시어선 안전진단
유어장 27곳도 점검 대상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낚시어선 80척, 유어장 27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5t 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t 미만 낚시어선 32척, 27개 유어장으로,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이 참여한다.

낚시어선 점검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7개 항과 포구에서 이뤄진다.

유어장 점검은 안산 흘곶·행낭곡·탄도, 화성 궁평리·국화리·백미리, 시흥 오이도에서 시행된다.

도는 점검에서 위법 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 혹은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5.7 X 15.9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억대 농부' 경기도가 키운다

2020년까지 5천 가구 육성
농가 연소득 5천만 원으로

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수익 1억원이 넘는 '억대 농부' 5천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도내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만원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내 1억원 이상 수익 농가는 2015년 기준 4천185가구,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은 4천100만원이다.

도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확대 ▲생산공동경영체 육성 ▲창농(팜셰어) ▲따복미래농장 운영 등 93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3천3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농업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 벼 재배면적을 8만1천여ha에서 올해 7만7천여ha로 4천여ha 줄이기로 했다.

연간 1인 쌀 소비량과 쌀값이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연간 쌀 80kg의 가격은 2014년 9월 기준 18만3천560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2만9천260원으로 약 30%가량이 감소했다.

이밖에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약 30만톤 가량이 많은 실정"이라며 "쌀 소비 및 유통확대를 위해 아침밤 먹기 홍보, 쌀 가공식품 다변화, 공공기관 공급 확대,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17.8 X 15.9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도, 뷰티산업 수행기관 공모

생산시설 표준화 등 3개 분야

21일까지… 10.5억 원 지원

경기도는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공모한다.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시책사업은 도내 뷰티제조업체를 육성·지원해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수출 확대와 내수시장 진작을 도모하는 취지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연구기관, 협회, 법인 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다. 공모 분야는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 ▲뷰티 R&D 지원사업 ▲뷰티 제품개발 지원사업 등 3개다.

1개 기관 당 최대 2개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사업비로 총 10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서류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고려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수행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특화산업과(의정부시청사로 1)으로 오는 2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5.7 X 15.9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2면 종합

태양광으로 전기요금 '뚝'

도, 베란다형 발전소 지원

경기도가 '최소 비용 최대 전기효율'을 위해 올 11월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난간거치형, 고정식, 이동식)를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이다.

도는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보급제품은 공인 성능검사기관 및 설비인증검사를 통과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발전용량 200~500W 제품(총 13개)으로, 설치 후 5년간 무상 A/S도 가능하다.

설치를 희망하는 도민은 업체와 제품을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pms.gtp.or.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

4.8 X 15.2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道 연정실행위 내일 첫 회의 촉각

위원장 사퇴 따라 연정 2기에 대한 방향 가늠하는 자리
청년구직지원금·도의회 기능 강화방안 중점논의 전망

경기연정(聯政) 2기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오는 14일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구직지원금'과 도의회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오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연정과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 양당의 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 8명, 연정위원장 4명, 도 기획조정실장·연정협력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연정위원장 4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승남·한길룡 의원이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연정위원장직에서 사퇴, 이번 연정실행위원회에는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연정실행위는 연정 합의과제로▲청년구직 지원금 제도 ▲경기연정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연정실행위원회 산하기구 확대 운영 ▲도의회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을 1천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중위소득 80%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고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3~4월까지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정실행위원회 산하로 도 재정운영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또 도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 확대'와 '정책연구원 설립'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연정 모니터링 및 평가'는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민단체 참여, 평가기간 및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올해 추진될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으로 연정과제를 추진해 도민들에게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17.8 X 13.8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경기복지재단 '지역별 복지 균형발전' 모색

오늘 인재개발원 '도민토론회'
일자리 등 7개 분야 의견 나눠

경기복지재단은 13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력과제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실시됐던 조사연구와 도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를 마련한다.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을 일컫는다.

분야는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7개다.

앞서 경기복지재단은 각 지역별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복지 기준선을 설정,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복지기준선 도민 공청회' 등 총 36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전략과제는 영역별로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청년 사회주택 공급, 장기요양 탈락노인 운동처방 등 총 44개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도민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도와 31개 시군별 복지기준선과 전략과제를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도민 토론회는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략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며 "앞으로 전략과제들이 잘 실천되는지 시군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17.3 X 7.7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道,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에 최대 2천만원 보증금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실당 최대 2천만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비싼 주택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근무자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올해 총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20~39세 근로자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5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자다.

선정자는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 평가를 통해 선발되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보증금은 2년까지 수령할 수 있고, 만기 시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다시 도에 반환해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50%는 공제한 후 차액만 반환하면 된다.

엄진섭 도 과학기술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젊은 근로자들이 주거 안정과 통근시간 절약으로 업무에 보다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IT와 지역경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학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031-776-4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

17.7 X 7.6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관광공사-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맞손

DMZ 생태관광 상생 구축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파주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연천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파주·연천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공동추진과 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파주시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관광과도 신설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해 가을 개통한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올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 등을 진행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대표 관광도시인 파주시, 연천군간의 상생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두 시·군의 관광자원 통합 홍보마케팅 등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11.8 X 8.1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3면 종합

道,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 모집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2017 사회적경제 협동화사업'에 참여할 협의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마을공동체, NGO 등 3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동화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NGO, 주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방법까지 모색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협동경제팀(031-8008-3592), 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070-4285-1467)으로 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5.7 X 8.2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5면 경제

대목인데도 사라진 꽃다발… 시들어가는 화훼업계

"꽃보다 실용적인 선물" 졸업·입학 시즌에 손님 '뚝'
업계 "청탁금지법·불경기 탓… 절반 이상 고사 위기"

"청탁금지법 이후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그나마 졸업과 입학 시즌에는 판매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손님이 뚝 끊긴 상태네요." 20년째 수원 화서동에서 화훼농가를 운영 중인 김모(45)씨는 대목 시즌인데도 손님들이 꽃 구매를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경기도내 화훼농가들이 최근 대목인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았음에도 경기 침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영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지난 9일부터 졸업과 입학식을 실시하거나 진행 중이다.

이 기간은 화훼농가들에게 연중 꽃 소비가 가장 많은 대목 중 하나로, 농가들은 이달 초부터 판매가 늘면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경기 불황 등으로 살림살이가 예년보다 팍팍해진데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입학과 졸업 시즌이 무색케할 정도로 여전히 판매가 부진해 고사 위기에 처할 정도로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서동 화훼농가를 운영 중인 김 씨는 "작년에 비해 절대 가격이 비싼 게 아닌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손님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수원과 화성, 용인 등지에 위치한 화훼농가에서 판매되는 꽃 한다발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2~3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매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회사원 한모(36) 씨는 "지난 주 금요일이 조카 졸업식이라 지갑 사정이 어려워도 꽃 한다발 사 가려고 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주변에서도 요즘엔 꽃 보다 실용적인 선물을 주는 추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양에서 화훼농가를 운영하는 또 다른 김모(43) 씨는 "이제 화훼 농가의 결혼 등 대목은 아예 사라진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맞물려 경기불황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손님들이 꽃을 살 엄두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화훼농가 다 죽이는 청탁금지법이 지속된다면 지역 화훼농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훈기자 lsh@

29.9 X 8.9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5면 경제

소 사료작물 봄 파종 기술지도

도농기원, 내달 20일까지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동계사료작물 추가 생산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봄 파종 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도는 지난해 동계사료작물 파종면적 감소로 조사료(풀사료) 생산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도농기원은 지난해 718ha 규모의 밭에 주요 동계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래스(IRG) 품종을 파종할 예정이었지만, 잦은 비로 목표 대비 6% 줄어든 674ha만 파종했다.

또 지난해 가을 사료용 볏짚 수거량도 예상량의 75.6%에 그쳐 조사료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기원은 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일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봄 파종 관련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희망농가에 대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5.7 X 11.0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8면 지역

김포도시公, 청산보다 존속으로 가닥 잡히나

市 "시 개발위해 존립해야" 입장
유 시장도 브리핑서 "심사 숙고"
道와 지속 협상… 패널티도 감수

경기도가 3년 내 김포도시공사 청산을 조건으로 지난해 허가했던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김포시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도시공사를 존속시키기로 가닥을 잡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화 시 정책예산담당관은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심의에 참석, "1지자체 1공기업 원칙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이기에 도시공사 청산에 관한 계획안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 개발을 위해서는 공사와 공단 두 기관이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또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나가겠지만 3년 후 상황에 따라 재통합하든지 패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공사를 존속시킬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영록 시장이 올해 초 신년 브리핑에서 '김포도시공사 청산은 좀더 숙고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해석돼 존치 가능성도 예견된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되면 4월 김포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시의 입장과 청산 로드맵은 무엇인지 공사의 인적 쇄신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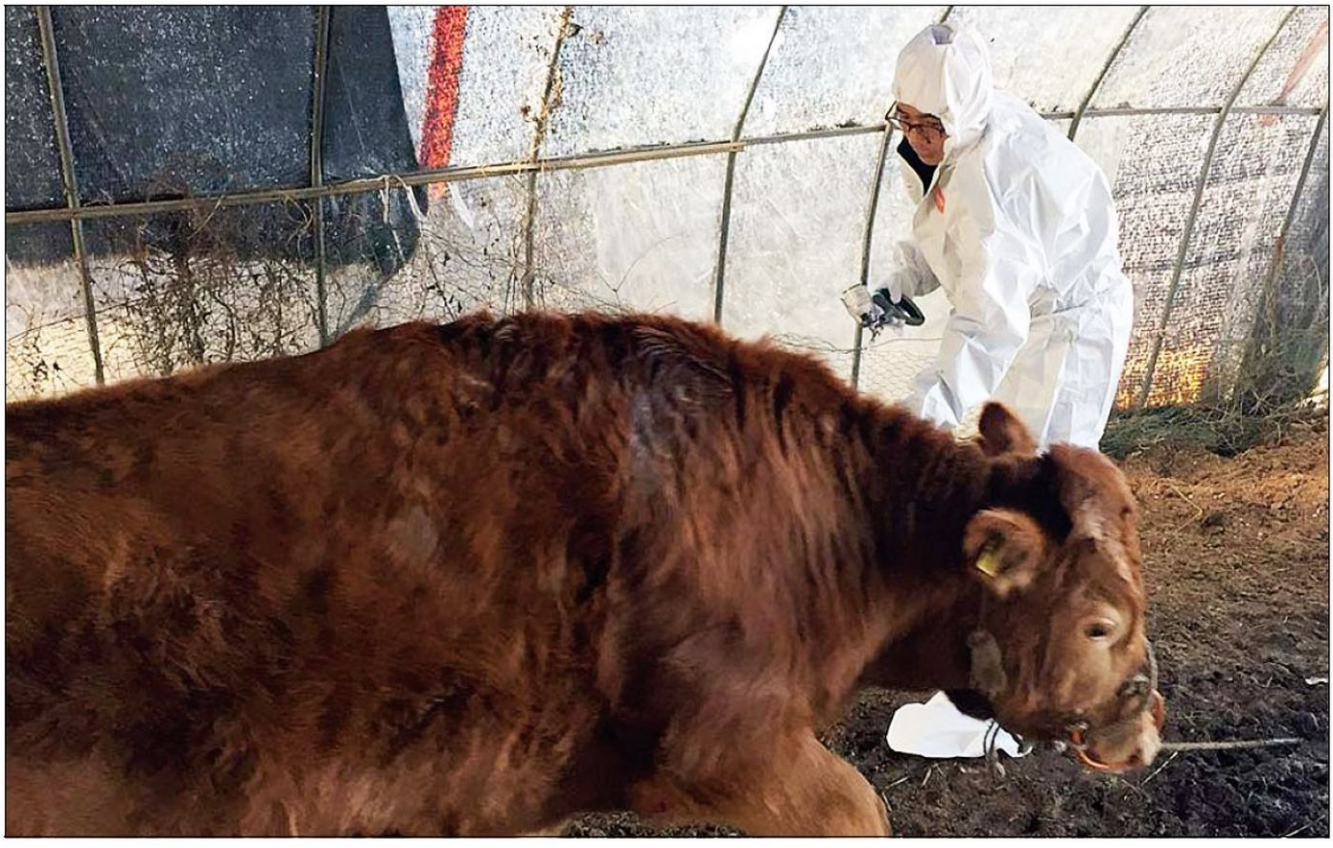
이에 김 담당관은 "공사는 수익을 내는 기관으로 시는 개발을 계속해야 하기에 공사 존치는 필요하다"며 "공단 설립을 위한 조건인 공사 청산을 위해서는 공단 설립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뤄진 후 세무전문가 등 전문가와 협의해 청산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시는 공사와 공단 분리가 목표이지만 경기도와의 협상과정에서 공사 청산이라는 조건을 받았기에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청산계획안을 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이 10여개 정도 있어 그 중 선택해서 자체사업은 시가 인수하면 되고 SPC사업은 재협상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17.8 X 10.6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09면 지역



구제역 유입 방지 온 힘 안산시가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 관계자들이 축산농가를 방문,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17.8 X 12.4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스포츠



12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경기장 바이애슬론센터에서 막을 내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동계체전 사상 최다 연패 타이기록을 세운 경기도선수단이 우승기와 우승컵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 1251점 종합우승… 겨울스포츠 절대 지배자

제98회 전국동계체전 16連覇

경기도가 국내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오르며 동계체전 사상 최다 연패 타이기록인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했다.

도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바이애슬론센터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86개, 은 72개, 동메달 86개로 종합점수 1천251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 2002년 제83회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후 16년 연속 정상을 지키며 종합순위가 도입된 지난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2001년 제82회 대회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우승 16연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됐다.

서울시가 금 50개, 은 61개, 동메달 47개로 종합점수 1천37.5점을 획득, 3년 연속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고 강원도는

서울시 종합우승 16연패와 타이
빙속 4관왕 김민석 MVP 선정
박지우 등 다관왕만 21명 배출
빙속 등 대회신기록 8개 작성

금 56개, 은 50개, 동메달 52개로 931점을 얻어 종합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고등부에 출전해 5천m와 매스스타트, 1천500m, 8주 경기에서 우승하며 4관왕에 오르며 5천m와 1천500m, 8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한 김민석(안양 평촌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김민석은 이날 강릉에서 진행된 2017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관계로 시상식에 참석하진 못했다.

도는 2015년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채원(당시 경기도체육회), 2016년 고병욱(의정부시청)에 이어 올해도 김민석이 최우수선수에 오르며 3년 연속 대회 MVP를 배출하게 됐다.

도는 강세종목인 빙상에서 금 59개, 은 51개, 동메달 53개로 종목점수 594점으로 14년 연속 종목 정상을 지켰다.

또 2년 만에 종목우승에 도전한 컬링은 금 2개, 은 1개, 동메달 2개로 84점을 획득, 2년 연속 종목 준우승에 머물렀고 스키에서도 금 15개, 은 14개, 동메달 20개로 304점을 얻어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해 종목 3위에 올랐던 바이애슬론은 금 9개, 은 6개, 동메달 8개로 152점을 얻어 종목 2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아이스하키는 금 1개, 동메달 3개로 117점을 획득하며 지난 해 종목 6위에서 4계단 뛰어오른 종목 2위에 입상했다.

지난 해 19명이었던 다관왕은 21명이 배출됐다.

김민석과 함께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고부 박지우(의정부여고)가 2년 연속 4관왕에 올랐고 바이애슬론 남일반 이인복(포천시청)도 4관왕 대열에 합류했으며 스키 알파인 여고부 임슬현(군포 수리고) 등 4명이 3관왕에, 빙상 쇼트트랙 황대헌(안양 부흥고) 등 14명이 2관왕에 등극했다.

기록면에서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고부 5천m에서 김민석이 6분44초89로 대회신기록(종전 6분47초28)을 세운 것을 비롯해 모두 8개의 대회신기록이 작성됐다.

이날 알펜시아경기장 크로스컨트리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남중부 20㎞ 계주에서는 김태훈, 윤병현(이상 평택 세교중), 김한주, 정재연(이상 수원 영덕중)이 팀을 이룬 경기선발이 1시간02분10초1로 강원 대관령중(1시간02분29초6)과 강원 진부중(1시간03분11초6)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고부 18㎞ 계주에서는 포천 일동고(김민경, 임효진, 아베마리아)가 1시간00분51초2의 기록으로 전북선발(1시간01분35초5)과 강원 대화고(1시간03분04초4)를 따돌리고 우승했고 남초부 9㎞ 계주에 나선 포천 일동초(김하빈, 전잔유, 조성현)도 34분55초5로 전북선발(35분20초3)과 강원선발(38분36초0)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인천시는 금 5개, 은 6개, 동메달 3개로 260.5점을 획득해 지난해 보다 3계단 상승한 종합 8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인천시는 다관왕은 배출하지 못했지만 신기록 부문에서 빙상 쇼트트랙 남중부 3천m에서 배백균(연화중)이 4분41초618로 대회신기록(종전 4분59초380)을 세웠다.

/정민수기자 jms@

■ 전국동계체전 종합순위

〈최종〉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메달합계
1	경기	1,251	86	72	86	244
2	서울	1,037.5	50	61	47	158
3	강원	931	56	50	52	158
4	전북	547	20	19	20	59
5	부산	471.5	8	11	8	27
6	대구	395	6	8	10	24
7	경북	361	6	4	6	16
8	인천	260.5	5	6	3	14
9	전남	239	5	6	3	14
10	충북	230	3	1	4	8
11	광주	219.5	1	1	0	2
12	경남	193	3	1	1	5
13	충남	150	10	9	5	24
14	대전	125	1	2	4	7
15	울산	89	0	4	4	8
16	제주	20	1	1	0	2
17	세종	13	0	0	0	0

36.3 X 25.6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4면 스포츠

인터뷰 최 규 진 경기도선수단 총감독

"道, 동계종목서 국제선수 배출하도록 노력"

1월부터 열린 장기 레이스에도 임원·지도자·선수들 혼연일체

道 종합우승 이어가기 위해 모든 종목 전략 재점검 필요

"지난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종합채점제가 도입된 이후 16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울시와 같은 기록을 내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체육웅도의 명성에 걸맞게 동계종목에서 국제적인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축제인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하며 동계체전 사상 최다 종합우승 타이기록을 세운 경기도선수단 최규진 총감독(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소감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 종합우승으로 지난 2002년 제83회 대회부터 16회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며 1986년 제67회 대회부터 2001년 제82회 대회까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우승 16연패 기록과 타이를 세웠다.

최 총감독은 "올해 동계체전은 내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와 동계 아시안게임, 동계 유니버시아드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 간 진행돼 선수단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힌 뒤 "장기간 진행된 대회에도 체육회 임직원은 물론 각 종목별 임원 및, 지도자, 선수가 혼연일체가 돼 정확한 전력분석과 상대 팀에 대한 평가로 종합우승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 총감독은 이어 "올해 빙상에서 종목우승 14연패를 달성하고 스키, 컬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나머지 종목에서도 종목 2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타 시도의 동계종목 육성 등으로 전력이 평준화 했기 때문에 종합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국 최강의 자리를 지켜온 컬링과 새롭게 팀을 창단한 스키는 내년 대회에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총감독은 "이번 동계체전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6월 제주도에서 열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최다종목 우승과 10월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6연패 달성 등 올해 열리는 전국 규모 종합대회에서 정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덧붙였다.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차기 대회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동계체전은 국내 동계스포츠의 근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동계올림픽 전인 1월 중에 종목별로 개최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감독은 끝으로 "내년 동계올림픽이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평창에서도 소속 선수가 시상대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계 비인지 종목 팀 창단을 계획하고, 도내 선수가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입상 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동계종목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민수기자 jms@

17.3 X 18.4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5면 스포츠



지난 1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막을 내린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경기도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道, 금메달 20개 따냈지만… 아쉬운 종합 2위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폐막

점수 배점 높은 아이스하키 5위, 휠체어컬링 銀 그쳐

17개 시·도 중 금메달 최다획득 불구 2연패 달성 실패

경기도가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아쉽게 종합우승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포레스트 홀에서 열린 대회 폐회식에서 금 20개, 은 15개, 동메달 5개로 종합점수 1만9천906.40점으로 서울시(금 14·은 9·동 14, 2만893.00점)에 시상대 맨 윗 자리를 내줬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점수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 중 아이스하키가 당초 목표했던 은메달 획득에 실패, 종목 5위에 그쳤고 휠체어컬링도 결승전에서 서울시에 패해 종목 2위에 머물며 2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강원도가 금 8개, 은 6개, 동메달 3개로 1만5천404.40점을 얻어 종합 3위에 올랐고 인천시는 은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8천812.80점을 기록하며 종합 5위에 랭크했다.

종목별로는 알파인스키 선수부와 동호인부에서 각각 금 4개, 은 4개, 동메달 4개에 4천209.60점과 금 1개, 은메달 1개에 788.00점을 획득해 나란히 종목 1위에 올랐고 빙상 동호인부에서도 금 9개, 은 8개, 동메달 1개로 3천966.00점을 획득하며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크로스컨트리스키 동호인부에서는 금메달 4개로 1천571.00점을 얻어 종목 1위를 차지했고 이 종목 선수부에서는 금메달 2개로 1천828.00점을 얻어 종목 3위에 올랐으며 휠체어컬링 선수부에서는 은메달을 획득, 4천445.00점으로 종목 2위에 입상했다.

이밖에 스노보드 선수부에서는 은메달 1개로 367.00점을 얻어 4위에 올랐고 아이스하키 선수부에서는 메달 없이 2천520.80점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바이애슬론 선수부에서도 메달 없이 211.00점으로 9위에 머물렀다.

다관왕 부문에서는 빙상 남자 청각장애(DB) 고병욱과 남자 소년부 지적장애(IDD) 박시우, 남자 청년부 지적장애 이진호, 알파인스키 남자 지체장애(STSNDING) 김흥빈과 시각장애(BLINDING) 황민규-유재형(비장애),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지적장애 김동광과 여자 지적장애 원도희, 남자 청각장애 전용민이 나란히 2관왕에 등극했다.

이날 열린 알파인스키 남자 대회전 STANDING(선수부)에서는 김흥빈이 1분33초31로 1위에 올랐고 남자 대회전 BLINDING(선수부)에서는 황민규-유재형(비장애)이 1분28초47로 정상에 올랐으며 남자 대회전 IDD(동호인부) 정현식도 1분30초50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휠체어컬링 결승에서는 경기도가 서울시에 4-7로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순위 (최종)

순위	시도	총득점	금	은	동	메달합계
1	서울	20, 893. 00	14	9	14	37
2	경기	19,906.40	20	15	5	40
3	강원	15, 404. 40	8	6	3	17
4	부산	8, 939. 00	1	1	4	6
5	인천	8,812.80	0	6	4	10
6	충북	5, 757. 40	0	2	8	10
7	충남	4, 936. 20	0	0	3	3
8	전남	4, 677. 40	0	3	2	5
9	전북	3, 834. 60	2	1	0	3
10	광주	3, 621. 80	5	2	4	11
11	경남	3, 356. 00	0	0	0	0
12	경북	3, 157. 00	0	1	6	7
13	울산	3, 072. 00	5	4	1	10
14	대전	3, 047. 00	0	0	0	0
15	대구	2, 431. 20	0	1	1	2
16	제주	1, 658. 00	0	2	0	2
17	세종	913. 00	0	2	0	2

/정민수기자 jms@

23.9 X 27.5 cm

경기신문

2017년 02월 13일 (월)
19면 사회

AI 이어 구제역까지 설상가상… 방역 공무원들 넉다운

AI발생부터 유입차단 주력… 매몰작업에 스트레스도
장기간 야외근무로 과로로 쓰러져…공무원 사고 빈번
도내 17개 시군 671명 투입 구제역 통제초소 등 근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방역활동에 나선 공무원들의 몸과 정신이 극도로 지쳐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안성과 포천, 이천, 평택 등 도내 13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발생 직후부터 시·군마다 공무원들이 동원돼 3교대씩 조를 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만들어 방역활동과 함께 AI 유입차단에 주력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AI는 도내 13개 시·군에 전염돼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7천마리를 매몰 처분, 이 작업에는 연인원 1만3천7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장기간에 걸친 방역초소 근무에 지쳐있던 공무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매몰작업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했다.

도내 한 지자체 축산분야 공무원은 "살처분 현장에는 올해 처음 투입됐는데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소중한 동물을 죽이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면서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초소근무 하는 것보다 살처분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야외 근무로 인해 과로로 쓰러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사고를 당하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안성시의 한 공무원은 살처분을 마치고 시청에 들어온 뒤 계단을 올라가다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공무원 A씨도 사료를 덤프차량에 옮겨 싣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이번에는 구제역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671명이 투입돼 51개 통제초소와 42개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1만4천925농가의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90명을 동원해 소 42만3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의 AI 방역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구제역 예방시설로 함께 운영하면서 구제역 확산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AI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퍼질지도 모르는 비상상황에서 구제역 사태까지 맞게 돼 당황스럽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29.9 X 9.6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A면 종합

쓰러져가는 닭·소에 道 재정도 휘청

AI로 도내 가금류 3분의 1 살처분 매몰비·보상금만 1300억 달해
엎친 데 덮친 격 구제역까지 발생… 백신 접종 등 비용부담 눈덩이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은 사상 첫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경기도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12일 경기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에서 첫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7천 마리의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는 도내 전체 가금류 사육 5천400만 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전국 전체 살처분 3천313만4천여 마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2014년 69개 농가 292만8천 마리, 2011년 86개 농가 234만3천 마리와 비교해도 5~6배 이상 압도적인 수치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584억 원이 지급됐고, 향후 정산할 보상금은 675억 원으로 추산됐다. 매몰 비용으로도 30억 원을 지원했다. 17개 시·군 90곳에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 방역비로는 66억7천만 원이 지출됐다. AI를 차단하기 위해 50여 일 동안 1천3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셈으로 2014년 256억 원, 2011년 255억 원의 5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 연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

도내 소 45만4천여 마리의 구제역 백신 비용으로 1년에 120억 원을 투입했는데 연천 구제역의 경우 통상적인 'O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돼 경기북부 지역은 보강 접종과 함께 'O+A형' 백신까지 접종해야 한다. 보강 접종 대상은 42만2천여 마리로 7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보강 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면 가능한데 젖소의 경우 보강 접종으로 산유량이 2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소 133만 마리분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4억3천890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AI, 구제역 모두 5~6월까지 장기전을 각오하며 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처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 만큼 발생 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3.4 X 10.3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A면 종합

평화누리길 연계 어촌관광 최적지
김포 대명포구, 제2의 소래포구로

도, 연간 방문객 100만 명 목표
수산물 직판장 등 인프라 확충
어항구역 지정해 전략적 개발

경기도가 김포 대명포구를 도 대표 관광포구로 조성한다.

도는 김포 대명포구를 인천 소래포구처럼 많은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포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기 서북부권에 위치한 김포 대명포구가 수산자원 확대와 어촌관광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고 어항 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 대명포구는 현재 어항구역 36만7천㎡ 규모로 현재 이용 어선 71척과 연간 수산물 매출액이 12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연간 방문객도 50만 명에 달한다.

도는 대명포구의 이용 어선을 현재 71척에서 100척으로, 연간 방문객을 50만 명에서 배가 많은 10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포구 확장 개발을 위한 설계를 한 뒤 내년부터 50여억 원을 투입해 갯벌을 준설하고 정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산직판장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산물 판매액도 현재 연간 12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소래포구의 경우 350척의 어선이 이용하면서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4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명포구가 위치적으로 김포 평화누리길과 인접해 있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어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조성하면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포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11.6 X 16.0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A면 종합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모두 "우리 지역은 안돼"

국방부, 6개 지자체서 찬반 입장 수렴… 최종 선정에 고심
수원시, 각종 지원 혜택 마련… 늦어도 내달 초 발표 예상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의 예비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6개 지자체로부터 최종적인 찬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수원시는 최근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담당부서 고위 간부와 만난 자리에서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와 이전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국방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성·안산·여주·이천·양평·평택 등 예비 이전후보 협의대상 6곳의 지자체로부터 군공항 유치반대 입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해당 지자체에 '이번 의견 수렴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군공항 이전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과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예비 이전후보지를 국무조정실 최종 결정을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군공항 이전사업단장과 이전협력과장, 담당사무관 등 총 4명이 부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협조 요청 등 인사를 나누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수원시를 방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등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수원시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지원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고 조속한 발표를 요청했다.

시는 특히 국방부의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각종 지원 혜택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원만한 이전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발표를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밟은 만큼 예비 이전후보지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월 말에서 3월 초순께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은 유치 희망 지자체가 있는 것과 달리 수원 군공항은 협의대상 지자체 6곳이 모두 이전을 반대해 두 곳을 함께 이전을 발표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지만 국무조정실 협의를 거친 후에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까지 협의대상 지자체와 주민들의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5.0 X 10.5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A면 종합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 주거비용 마련 걱정 던다

도, 임대보증금 지원
2년간 최대 2000만 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제과학원)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20·30대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1실당 1천만~2천만 원까지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만기 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의 50%를 공제한 후 차액만 도에 반환하면 된다.

1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보험수수료 30만 원을 빼고 985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신청 자격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20~39세 근로자다. 대중교통으로 50분 이내 출·퇴근하는 경기도내 주거 예정자다.

신청은 경제과학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에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젊은 근로자들이 주거 안정과 통근시간 절약으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학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시설지원팀(☎031-776-4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9.9 X 16.0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작정 덜 뽑는다고 해결되나

도의회, 23개 기관과 정규직 전환·처우개선 등 정책협약 추진
현장선 "업무 특성·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일방적 종용"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정작 '알맹이'는 없어 기관들의 불멘소리만 키우고 있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는 고려하지않은 채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는 협약문 작성을 일방적으로 종용했다는 지적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도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불안과 차별 개선을 위해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23곳과 정책협약을 맺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비정규직 채용 억제와 직무 분석을 통한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 마련 ▶임금과 처우 차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10일 도의회 정기열(민·안양④)의장 주재로 열린 산하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관별 정원 탓에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 인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곧 도의 산하 기관 평가에 반영돼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다수였다.

또한 도의회가 산하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막는다며 각 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정원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규택 사무총장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공공기관의 고용은 탄력성이 없다. 비능률성 문제가 크다"며 "MOU 체결에 앞서 이런 근본적 문제들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협약 논의를 두고 사전에 실무 협의 등을 조율하지 않았고, 실권을 쥔 도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도의회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 동생도 비정규직이다. 협약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자, 경기연구원 임해규 원장은 "실무 협의 없이 업무협약부터 하는 사례가 있나. 행정부(집행부)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예정된 협약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산하기관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협약식과 간담회 모두 졸속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5.0 X 10.5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경기도,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지난 10일 서울 창경궁에서 열린 문화재청 주관 '2017년도 문화재 안전관리 유공자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경기도 제공>

14.9 X 9.5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우리 회사도 CF 만들어볼까

중기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도, 오는 28일까지 참여 모집

경기도는 13~28일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와 CJ헬로비전이 청년들의 취업 및 유망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체결한 '도정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는 신청 기업 중 10곳을 선정해 '자사 제품의 홍보동영상'과 '기업 소개 동영상'을 각 한 편씩 제작·제공한다. 단, 홍보동영상 제작비 중 일부(음향저작권, 시나리오 작가) 100만 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시중 업체를 통해 홍보영상 한 편을 제작할 경우 평균 1천5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점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영상을 만들 수 있다.

경기북부 소재 기업에 한해서는 제작된 기업 소개 동영상을 무상으로 케이블TV(CJ헬로비전)를 통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방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13일 기준 도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자사의 제품·서비스 영상 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을 원하는 업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구비해 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철상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가의 동영상 제작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웠던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영상 홍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제품 판로 개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 031-8030-2162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4.9 X 10.0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도내 지자체 균형적 복지발전 모색

복지재단, 오늘 도민 토론회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적인 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민 토론회를 13일 연다.

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4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복지인프라 등 7개 분야에 대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 전략과제는 영역별로 주거취약계층 주거보증금 지원, 청년 사회주택 공급, 장기요양 탈락 노인 운동처방 등 총 44개에 달한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사회복지 현장 관계자, 일반 도민으로 이뤄진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다. 복지재단은 도민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3월 중 도와 31개 시·군별 복지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9.8 X 9.9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A면 종합

남 지사 "북한 도발 고립 자초"

한반도 평화 위협 강력 규탄
접경지역 등 비상대비태세

남경필 경기지사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하고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안보 위기 상황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즉각 비상대비상황실을 가동했으며,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자주국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는 도 공무원들에게 정부와 함께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하고, 물 샐 틈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주문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11시 도 북부청사에 비상기획관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대비상황실을 구성하고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갔다.

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공무원들에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유사시 신속한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기 조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500여㎞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9.8 X 15.4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4면 종합

경기연정 2기 추진방향 모색… 내일 실행위 개최

'청년수당' 1200명으로 확대 논의할 듯

올해 첫 경기도 연정(聯政)실행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연정실행위는 첫 회의를 통해 2기 연정과제 추진 방향과 구체적 사업 실행 계획을 논의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 도의회 양당 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 8명, 연정위원장 4명, 도 기획조정실장·연정협력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정위원장 4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던 2명이 바른정당에 입당, 연정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이번 회의에는 13명만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정합의 과제에 포함된 경기도형 청년수당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1천 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정실행위 산하로 도 재정운용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기연정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평가기간과 평가대상 등을 정하고 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 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방안도 세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될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연정과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19.9 X 8.5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4면 종합



파주시는 경기관광공사, 연천군과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연천 관광 활성화 '너나없다'

관광공사·시군 3者협약
홍보 마케팅 공동 추진
연계 관광상품 개발 협력

파주시는 지난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와 파주·연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3자 협약으로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연천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내용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파주·연천 지역 관광 홍보마케팅 공동 추진 ▶파주·연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일 관광과를 신설했다. 지난해 개통된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돼 받게 된 3년간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시설 환경 개선, 지난해 시범운영한 파주 시티투어 등 다양한 기획과 테마 코스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김준태 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관광 트렌드는 개별 관광지 중심의 '점' 단위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 '선형 관광'이 강조되므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윤춘송 기자
csy@kihoilbo.co.kr

14.9 X 18.9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5면 종합

안철수 "AI 등 가축 전염병 대비 '백신은행' 설립해야"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1일 경기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백신은행' 설립을 통한 사전 예방관리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도내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및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구제역 발생은 AI에 이은 정부의 명백한 방역 실패"라며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떤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하고,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유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질병 방역 부서 설치 등 현장관리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AI 차단방역과 살처분에 이어 구제역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피해농가와 축산업자들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며 일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8일 연천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충북 보은, 전북 정읍 농가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과는 다른 A형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114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17.5 X 6.8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6면 경제

농가소득 5000만 원 실현을 농협 경기본부 농정간담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경기도청과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기열 경기본부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조합장, 김건중 도 농정해양국장 외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농업발전과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2020년까지 농가소득 5천만 원 시대를 열자는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DMZ접경지역(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연천, 파주, 포천 등 7개 시·군)의 농축산물 군납 확대, 도 굿모닝 푸드트럭사업의 경기농협 금요장터 도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경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판매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경기농협 금요장터 참여 농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양진영 기자 camp@kihoilbo.co.kr

4.8 X 14.3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6면 경제

도, 스타트업 육성 K-챔프 랩 정보 공유 등 '데모데이' 성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보육기업 지원프로그램인 'K-챔프 랩' 3기 기업에 대한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K-챔프 랩' 프로그램은 경기센터와 KT가 협력해 만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ICT, IoT, 게임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기술멘토링, 판로개척, 홍보, 사무공간 등 지원, 총 13개 기업이 참여해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정보와 전시부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우수기업 시상이 이뤄졌으며 총 5개 기업이 분야별 수상을 했고, 5개 부문에서 수상하지 못한 기업은 선배기업인 2기 보육기업 '해보라'의 리플버즈 제품을 받았다. 리플버즈는 해외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약 200만 달러의 펀딩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K-챔프 랩 3기 보육기업은 이후 Post-BI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공간, 제품홍보, 사업화 멘토링 등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4.8 X 14.7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1면 사설/칼럼

구제역 원점에서 근본적인 처방 마련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은 구제역 파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A'형과 'O'형 바이러스가 동시 검출되자 정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한다.

구제역 백신 역시 'O'형만 예방할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많이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연천 농장의 젖소에서 확인된 바이러스가 'A형'으로 밝혀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기피해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농가는 백신이 제대로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물백신'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수년째 영국에서 수입하는 예방백신에만 의존하고 있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입시장 다변화나 자체 백신 개발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백신은 국내 백신회사가 영국의 메리알사에서 수입, 소분해서 행정기관과 축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백신을 접종하고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1월 구제역 때 항체 형성률이 100%인 돼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농가에서는 영국에서 제조, 수입하는 백신의 효능에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에 정부는 농가에서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에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농가에서 제대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게되면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송아지 유산 우려 때문에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지만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이 허술하고 축산농가에 백신접종을 맡긴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역시스템이 구제역 파동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작용이 작은 맞춤형 국산 백신을 서둘러 개발하고 백신 개발 전까지라도 수입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농업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12.0 X 13.6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6면 스포츠

경기도 빙상 신기록 9개… MVP는 김민석

<쇼트트랙 1개·빙속 8개>

<빙속 4관왕>



전국동계체전 경기도선수단이 12일 16년 연속 종합우승을 확정하고, 우승컵과 기념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최규진 총감독.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동계체전 폐회 경기 16년째 종합우승… 인천 8위로 상승

도, 5개 정식종목 모두 입상 쾌거
빙속에선 3년째 최우수선수 배출

경기도가 '눈과 얼음의 축제'인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에 성공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경기도는 12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전 22일(사전경기 포함)을 마감한 이번 대회에서 금 86, 은 72, 동메달 86개로 1천251점을 획득, 서울시(금 50, 은 61, 동 47·1천37.5점)와 강원도(금 56, 은 50, 동 52·931점)의 추격을 가볍게 뿌리치고 16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최강 전력의 빙상이 종목 14연패를 달성했으며 컬링과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이 종목 2위에 입상하는 등 5개 정식종목 모두가 입상하는 전력을 과시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남자고등부에서 4관왕을 차지한 김민석(안양 평촌고)은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안으며 경기도는 스피드스케이팅에서 MVP 수상자만 3년 연속 배출되는 기염을 토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자고등부 박지우(의정부여고)와 바이애슬론의 '살아있는 전설' 남자일반부 이인복(포천시청) 등도 나란히 4관왕 대열에 합류했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대학부 오현민(한국체대)과 여자초등부 김지연(한가람초), 빙상 쇼트트랙 여자중학부 서휘민(부림중), 스키 알파인 여자고등부 임승현(군포 수리고) 등이 3관왕에 등극했다. 알파인 여자초등부 심재연(화성청계초)과 쇼트트랙 여자고등부 이수연(분당 서현고), 바이애슬론 여자고등부 아베마리야(포천 일동고) 등 14명이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 여자고등부 1천500m에서 박지우가 2분03초81의 기록(종전 2분04초37)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도는 빙상에서만 무려 9개(쇼트트랙 1개, 스피드스케이팅 8개)의 대회신기록을 쏟아냈다.

대회 최종일 도는 바이애슬론 남자초등부 9㎞계주에서 김하빈·전찬유·조성현(이상 일동초)이 한 팀을 이뤄 34분55초2의 기록으로 우승한 데 이어 여자고등부 18㎞계주의 김민경·임효진·아베마리야(이상 일동고)가 1시간51초2로 1위로 골인하며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중학부 20㎞계주에서는 김태훈·김한주(이상 세교중)·윤병현·정재연(이상 영덕중) 등이 한 팀을 이뤄 1시간2분10초1의 기록으로 대망의 금메달을 따냈다. 아이스하키 초등부 결승에서 수원리틀이글스는 서울 드래건스클럽을 4-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인천시는 이 대회에서 금 5개, 은 6개, 동메달 3개로 260.5점을 수확하며 지난해 11위에서 3단계 뛰어오른 종합 8위의 호성적을 보였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27.7 X 27.2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6면 스포츠

동계올림픽 주역 발굴 계기 마련

최규진 총감독 '우승 의미'

"동계체전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해 준 선수와 임원,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경기도선수단을 이끌고 16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으로 서울이 보유한 역대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룬 최규진 총감독(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우승은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의 승리였다"며 "역대 타이 기록인 16연패 달성에 연연하지 않고 체육웅도로서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감독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차기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의 우승 의미에 대해 "종합우승을 발판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선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례없이 사전경기가 진행돼 22일간 분산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 임원 및 지도자, 선수의 힘이 우승의 원동력이었다"고 자평했다.

최 총감독은 "빙상 종목이 14연패를 달성했지만 예년에 비해 고전했다"며 "스피드스케이팅을 제외한 쇼트트랙과 피겨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도 동계종목 육성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올 시즌 전국 규모 첫 종합대회에서 첫 우승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며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최다 종목 우승과 더불어 10월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의 시발점으로 삼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심언규 기자

15.2 X 8.9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6면 스포츠

장애인동계체전 경기선수단 준우승

8명 2관왕 달성… 인천은 5위에

경기도가 '장애인 감동의 축제'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 달성에 실패했다.

도는 지난 10일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 20, 은 15, 동메달 40개로 1만9천906.4점을 획득, 서울시(금 14, 은 9, 동 14·2만893점)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도는 2016년 대회 우승 이후 2년 연속 정상 도전에 실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도는 빙상 종목 1위에 올랐으며 알파인스키와 휠체어컬링이 준우승, 크로스컨트리가 3위에 입상한 반면 스노보드 4위, 아이스하키는 5위에 그쳤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청각장애 전용민(하남)과 지적장애 김동광(화성)·여자 지적장애 원도희(도스키협회)를 비롯해 알파인스키 시각장애 황민규·유재형(비장애), 지체장애 김홍빈, 빙상 청각장애 동호인부 고병욱(남양주)·지적장애 소년부 박시우(의정부)·지적장애 청년부 이진호(수원) 등 8명이 2관왕에 올랐다.

대회 최종일 알파인스키 동호인부 지적장애대회전에서 정현식(1분30초50)과 지체장애 대회전 스탠딩 선수부 김홍빈(1분33초31), 시각장애 대회전 블라인딩 선수부 황민규·유재형(비장애인)조가 1분28초47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하며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휠체어컬링 결승에서 지체장애 혼성 선수부에 나선 윤복자(화성)·정승원·박길우·송기운·조득화(이상 수원)가 한 팀을 이뤄 서울시와 접전을 벌인 끝에 4-7로 준우승에 만족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대회에서 노골드에 머물며 은 6개, 동메달 4개, 종합점수 8천812.8점을 얻어 종합 5위에 올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11.0 X 11.4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9면 사회

소·돼지고기도 밥상 올리기 무서워요… 썰렁한 축산물 코너

AI 이어 구제역 잇따라 발생
불안감 커지며 주부 발길 '뚝'
금값된 달걀처럼 가격 오를라
식탁걱정 증가 대책마련 시급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오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대형 마트 축산물 코너는 채소 등 다른 식료품 코너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매장을 찾은 고객들을 향해 연신 축산물 판매 홍보를 펼치고 있었지만, 고객들은 잠시 들여다보기만 할 뿐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렸다.

수원시 영통구의 또 다른 대형 마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축산물 코너 근처에 마련된 달걀 판매 코너에는 30알짜리 달걀과 15알짜리 달걀 등이 매대에 쌓여 있었지만, 달걀을 살펴보던 고객들은 가격표를 확인한 뒤 제자리에 내려놓기 일쑤였다.

이 같은 풍경은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달걀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AI는 전국의 양계농가를 휩쓸며 3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33%(2천30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며 달걀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충북 보은을 시작으로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 등 곳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주부들 사이에서는 구제역마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도 달걀처럼 급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년 차 전업주부 김모(35·여)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달걀을 구입하려 했지만 4천~5천 원 하던 달걀 한 판이 3천 원 가까이 오르다 보니 선뜻 구매하기 힘들다"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구제역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격까지 오를 것 같아 식탁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산란계의 30% 이상을 살처분하자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된다고 가정할 때 쇠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이 떨어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즐겨 먹는 먹거리와 관련 있는 AI와 구제역 사태는 조기 종식만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송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정부가 구제역 위기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거점소독장소 설치와 살아있는 가축의 전면 이동 금지 및 가축시장을 전면 폐쇄한 가운데 12일 인천시 강화군 초지대교에 설치된 거점소독소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35.4 X 11.9 cm

기호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9면 사회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사망자 넷 발인 마쳐

유가족, 합의금 협의 마무리
상가 운영방안 등 계속 논의

화성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복합쇼핑몰에서 난 화재로 숨진 희생자 4명의 발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까지 오산시 부산동 소재 장례문화원 4층 합동 빈소에서 현장소장 이모(62)씨와 용접전문가 정모(49)씨를 비롯해 같은 층 두피관리실 직원 강모(29·여)씨와 이곳 손님 강모(50)씨 등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 절차가 차례로 완료됐다.

앞서 유가족들은 7일부터 이곳의 건물운영관리사와 매장관리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3곳과 합의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발인 당일 오전 2시께 최종적으로 마쳤다.

시는 사고 당일부터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대책반 운영을 희생자 발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화재 부상자 3명과 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상가 운영 재개 방안 마련은 계속적으로 챙긴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메타폴리스 상가건물 지상 3층 뽀로로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작업자 2명과 시민 2명 등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15.0 X 7.8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경기판)면 종합

최악의 AI … 보상·방역비도 사상 최대

道, 구제역 동시발생 탓 재정 부담 가중… "장기전 각오 '추가 투입' 검토"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에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도 사상 최대 액수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구제역까지 동시 발생하면서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의 경우 현재 소강상태라고 하지만 종식 선언도 아직 이른데다 구제역 방역비용까지 겹치면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양주시에서 첫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573만7000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도내 전체 가금류 사육 두수 5400만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전국 전체 살처분 두수 3313만4000여마리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2014년 69개 농가 292만8000마리, 2011년 86개 농가 234만3000마리의 5~6배 이상의 수치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584억원이 지급됐고 향후 정산할 보상금은 67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몰 비용으로도 30억원을 지원했다. 17개 시·군 90곳에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 약품 구입비 등 방역비로는 66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AI를 차단하기 위해 50여일 동안 출잡아 13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셈으로 2014년 256억원, 2011년 255억원의 5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8일 연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다.

도내 소 45만4000여마리의 구제역 백신 비용으로 1년에 120억원을 투입했는데 연천 구제역의 경우 통상적인 O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돼 경기북부지역은 보강접종과 함께 O+A형 백신까지 접종해야 한다.

보강접종 대상은 42만2000여마리로 7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보강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면 가능한데 젖소의 경우 보강접종으로 산유량이 20%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소 133만마리분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4억389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 대책본부 관계자는 "AI, 구제역 모두 5~6월까지 장기전을 각오하며 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처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 만큼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25.8 X 13.5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1(경기판)면 종합

道 '16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

서울 제치고 최강자 재입증…14연패 빙상 종목 4관왕 김민석 MVP

경기도가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 달성했다.

〈관련기사 17면〉

경기도는 12일 폐막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 1251점(금86, 은72, 동86)을 최종 획득해 종합점수 1037점(금50, 은61, 동47)으로 2위를 차지한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02년 대회부터 종합 1위를 놓치지 않은 경기도는 이로써 16년 연속 동계체전 최강자 자리를 유지했다.

종목별로는 빙상이 1위를 차지하고 컬링,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은 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 14연패를 달성한 빙상에서 4관왕이 된 김민석(평촌고)이 대회 MVP를 차지했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기쁨은 경기도 체육에 열렬히 관심을 가진 도민과 남경필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체전은 전례없이 한달여 동안 장기간 분산 개최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종목단체 임원 및 지도자, 선수들이 이를 극복해 이같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앞으로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를 알릴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19.4 X 7.2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2(경기판)면 종합

도청사 주차난 해결?… '글쎄'

道, 주차관리 개선 한달…요일제 위반 등 감소 불구 직원 평가 엇갈려

경기도가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주차관리 개선책이 공무원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월2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청사 내 경차주 차장 등 전반적인 주차질서 계도를 시행한 결과 자체요일제 위반 차량이 등록대수 1794대의 7.69%인 총 138대로, 지난해 12월 한 주 평균 750대가 적발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근버스 이용자수는 15개 노선 확대를 통해 지난해 11월 일평균 811명에서 올해 1월 일평균 1120명으로 309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주차관리 담당부서는 자체요일제 준수와 통근버스 이용, 부서장의 주차복무 적극 지도 등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담당부서 직원들의 경우 직접 새벽부터 청사 정문과 후문에 나와 어깨띠를 두르고 자체요일제 협조를 위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도청 내부에서는 직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오히려 원치 않는 통근버스를 억지로 이용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경우 청사 주변에 주차해야 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은 체감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에게 자체요일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고 '벌 당직'을 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담당부서 직원들을 어깨띠를 두르고 동원하는 것도 70~80년대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체요일제나 통근버스 노선 확대로 턱없이 모자란 주차면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주차면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주차관리 시행 한 달 결과를 보면 1월 첫 주 61대 적발에서 넷째 주는 18대까지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엄정한 자체요일제 단속과 편리한 통근버스 확충 등을 통해 실제적인 주차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17.5 X 12.9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직업 소개부터 교육·훈련까지 '맞춤형 관리' … 621명 상담사 동분서주

"최적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인터뷰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일자리플랫폼과 교육·훈련기관의 동반 운영을 통해 최적의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대표이사는 12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부족으로 생기는 실업(마찰적 실업)과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부재로 인한 실업(구조적 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재단의 핵심 역할"이라면서 "이 두 가지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올해 핵심 목표다"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상담,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완성과 최근 조직 통합을 마친 기술학교를 비롯한 여성비전센터 등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올해부터 재단 안에서 통합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1일 출범한 재단은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을 통합해 각 기관이 가진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단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을 완성해 상반기엔 청년을, 8월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구직자들 중에서 소극적 구직자가 많다. 이들을 한 번만이라도 일자리재단과 인연을 갖게 하고 최적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예를 들어 50대 어머니가 상담을 오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도 일자리 공고를 제공받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은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비롯해 시·군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의 정보를 한데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까지 가는 대중교통 정보나 창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무료 공간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찰적 실업 해소는 구직자가 1만명이 이용하나 100만명이 이용하나 예산이 오프라인처럼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점차 비용은 줄고 이용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 같은 알선·상담 서비스 외에도 구조적 실업해소를 위해 장기간 직업훈련(1년 단위), 단기간·중기간 양성 프로그램(400시간) 등의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진행한다. 이 같은 양분된 구조를 올해 완벽하게 구축하면 구직자에 대한 진단부터 교육·훈련, 알선, 관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구직자들을 대면해 만나는 상담사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재단은 시·군 단위로 모두 621명의 상담사들이 있다. 430명은 행정센터에 한명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 200명은 5~6명씩 함께 배치돼 있다"며 "최전방에 있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잡코리아 대표 시절에는 기업의 필요(Needs)를 해결하면서 취업도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일자리재단은 반대로 구직자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풀어가면 기업도 좋아지게 되는 방향이다"며 "도민과 일자리재단의 작고 소극적인 인연만으로도 그 인연의 크기를 키워 제대로 된 일자리 연결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12일 일자리재단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일자리재단

35.5 X 15.5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이재율 부지사 스마트 제조라인 시설 방문 10일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현장인 '데모 스마트 공장'을 방문해 스마트 제조라인 등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17.5 X 10.3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2기 경기연정 추진방향 논의

실행위 첫 회의…청년수당 중점적 다뤄

경기도 2기 연정 실행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열어 연정과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 양당의 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 8명, 연정위원장 4명, 도 기획조정실장·연정협력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연정위원장 4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김승남·한길룡 의원이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연정위원장직에서 사퇴, 이번 연정실행위원회에는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연정 합의과제로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연정실행위원회 산하로 도 재정운영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와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도의회 개방형직위 확대와 정책연구원 설립과 관련,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방안도 세우게 된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7.5 X 6.8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3(경기판)면 종합

2020년까지 '억대 농부' 5000가구 육성

〈연간수익 1억 이상〉

도, 따복 미래농장 운영 등 93개 사업 추진…농업소득 증대

경기도는 2020년까지 연간 수익 1억원 이상인 '억대 농부' 5000가구를 육성하고, 도내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00만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1억원 이상 수익 농가는 4185가구, 농가 평균 연간 소득은 4100만원이다.

도는 올해 3331억원을 투입해 농식품 수출 확대, 생산공동경영체 육성, 창농(팜셰어), 따복미래농장 운영 등 93개 사업을 추진해 농업소득 증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농협, 농어촌공사 등 농업 유관기관·단체와 농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소비 감소와 생산량 증가로 재고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 8만1000여ha에서 올해 7만7000여ha로 4000여ha 줄인다. 논에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쌀 가격이 2014년 9월 18만3000원에서 올해 1월 12만9000원으로 30%가량 하락했다"며 "경기미 생산을 안정시키고 아침밥 먹기 홍보 등으로 유통·소비를 확대시켜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17.4 X 15.4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08면 경기

"관광객 동선 고려 주변 시군 협력 트렌드"

파주시, 연천·경기관광공사 상생 협약… '선형 관광' 구축

파주시는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내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연천군·경기관광공사와 파주, 연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 상생 협력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연천군·경기관광공사의 협약을 통해 파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연천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파주·연천지역 관광 홍보 마케팅 공동추진 ▲파주·연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파주시는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 7일 '관광과'를 신설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게 됐다. 관광과는 지난해 개통된 감악산 출렁다리에 이어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 설치' 등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돼 3년간 안정적인 국비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시설 환경개선,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시티투어는 다양한 기획·테마코스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준태 시장 권한대행은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개별관광지 중심의 '점' 단위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한 '선형 관광'이 강조되므로 인접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17.5 X 9.0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7면 스포츠

경기 금86·은72·동86… 16연패

인천 금5·은6·동3… 8위로 껑충

경기도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6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인천선수단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3계단 오른 종합 8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12일 끝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6개, 은메달 72개, 동메달 86개로 총점 1251점을 획득, 1037.5점의 서울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2002년 대회부터 종합 1위를 놓치지 않은 경기도는 이로써 16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도 대표 김민석(18·평촌고)이 선정됐다.

김민석은 이번 대회에서 남고부 1500m와 5000m, 8주 종합, 매스스타트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 동계체전에서 2회 연속 4관왕에 올랐고 대회신기록도 3개나 작성했다.

아울러 인천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 5, 은 6, 동 3개로 종합득점 260.5점을 획득, 지난해(11위)보다 3계단 오른 종합 8위를 기록했다.

종합득점 260.5점은 인천이 동계체육대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점수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임원 1207명, 선수 2789명 등 모두 399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폐회식은 12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렸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11.0 X 12.1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7면 스포츠

"전력 극대화 만전…17연패 도전"

최규진 경기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가 제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16연패를 달성하며 종합우승을 이뤘다.

본지는 종합우승을 이끌어낸 최규진(사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서울이 보유한 역대 최다 연속 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는데.

-종합채점 및 성적이 도입된 제67회 대회이후 역대 타이 기록인 16연패를 달성했지만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국제적인 선수를 배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빙상이 14연패를 달성했지만 많이 고전했다. 컬링과 바이애슬론도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도 동계종목 육성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전력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 역대 최다인 종합우승 17연패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전국규모 종합대회서 시즌 첫 우승의 물꼬를 텄는데 계획은.

-오는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최다종목 우승과 더불어 10월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

11.1 X 12.0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8(경기판)면 사회

'봄 파종 기술지도'로 동계사료작물 추가 생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3월20일까지 동계사료작물 추가 생산을 목적으로 '봄 파종 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도 교육은 지난해 동계사료작물 파종 면적 감소로 조사료(풀사료) 생산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동계사료작물은 추수가 끝난 후의 논이나 겨울철 밭을 이용해 생산하며 9월 말 파종해 5월 중순께 수확한다.

주요 동계사료작물로는 이탈리안 라이그래스(IRG) 품종으로 '코윈어리'와 '그린팜' 등이 있다.

농기원에 따르면 도에는 지난해 9월 718ha에 이탈리안 라이그래스가 파종될 예정이었지만 잦은 비로 제때 씨를 뿌리지 못해 목표치 대비 6% 줄어든 674ha에 파종됐다. 또 지난해 가을 사료용 볏짚 수거량이 전체의 75.6% 수준에 그쳐 전체적인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기원은 올해 조사료 가격이 평년대비 2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사료작물 봄 파종 기술을 보급해 조사료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주요 기술지도 내용은 밑거름 주는 양과 방법과 비료 살포 및 종자 파종법, 배수로 설치법, 추가비료 살포량과 시기 등이다.

농기원은 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일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봄 파종 관련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희망 농가에 대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은 "봄 파종의 경우 가을 파종 대비 80%정도 수확이 가능해 부족한 풀사료 생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3월 상순까지 파종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1.6 X 11.4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8(경기판)면 사회

낚시어선·유어장 내달말까지 안전 점검

경기도는 13일부터 3월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세부 점검대상은 5t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t미만 낚시어선 32척, 27개 유어장이다.

낚시어선 점검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에서 이뤄진다.

또 유어장 점검은 안산 소재 흘곶·행낭곡·탄도, 화성 소재 궁평리·국화리·백미리, 시흥 오이도에서 실시된다.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이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유어장 지정기준과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23.4 X 5.7 cm

인천일보

2017년 02월 13일 (월)
19(경기판)면 사회

동탄 화재 사망자 발인 절차 마무리

부상자 3명은 병원 치료중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유족들이 화재 발생 8일 만에 발인을 모두 마쳤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부터 이날 정오까지 공사업체 현장소장 이모(63)씨 등 4명에 대한 발인절차가 차례로 마무리됐다.

유족들은 지난 7일부터 오산시 오산장례문화원 4층에서 합동 빈소를 운영하며 매장 관리업체 M사와 시설관리업체 S사, 건물운영관리 협의체 등 3곳과 위로금 등 배상 협의를 각각 진행했다.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협의는 이날 오전 2시에서야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작업자와 시민 희생자의 위로금을 달리 산정해야 해서 관리업체 등과 유족들은 따로따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로 보험 부분은 사망자 개인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정해진 약관에 의해 책정되므로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가 화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반을 운영해 온 화성시는 희생자 발인이 완료되면서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대책반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병원 치료를 받는 김모(53)씨 등 화재 부상자 3명과 상가시설 정상화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챙길 예정이다.

지난 4일 오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작업자 2명과 시민 2명 등 4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다.

발화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경보도 울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 =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

17.5 X 10.4 cm